



2

주체99(2010)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9(2010)년 제2호

(루계 제 748 호)

◇◇◇◇◇◇◇◇◇◇

## 차 례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4
고향집에 내리는 눈송이 .....	4
혁명적신념의 노래 .....	5
뢰성은 하늘에서 울지 않았다.....	6
선군은 승리, 승리는 김정일장군.....	6
주체문학의 대강 .....	7
해병들이 돌아온다 .....	7
그리운 땅.....	8
한없이 고결한 전사의 자세.....	19

묘향산에 오신 날에 외 1 편.....	20
묘향산우에 묘향산 .....	21
경구, 격언 .....	21
회령의 불타는 아침은 강성대국의 찬란한 노을 .....	22
장미밭 1~2ha 에서 얼마만한 장미기름을 얻을수 있는가?.....	24
회령의 녀인들 .....	25
강성대국의 가을을 여기서 보라! .....	27
조국은 어디서 제일 잘 보이는가.....	30
달마중 가세 .....	30
칠보의 새 풍경을 찾아 .....	31
삶의 노래 .....	34
작가의 사색과 발견 .....	45
내 심장 철령을 안고사네.....	50
겨울밤의 궤도전차에서 .....	51
생활의 분석가가 되라 .....	63

사랑과 믿음의 생활철학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 화폭 .....	65
수수께끼 .....	68
금강산의 장수바위와 할미바위 .....	69
학습제일주의주제 작품창작에서 시대정신의 반영과 동심적형상의 구현 .....	71
그를 왜 《시습》이라 불렀는가.....	74
세계유모아.....	74
항일혁명투사들을 형상한 강경애의 창작활동 .....	75
현명한 판결 .....	77
고려시기 농민생활을 반영한 시문학의 사상정서적특성 .....	79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김정일**동무를 백두산의 아들이라고 하는것은 항일혁명의 산아라는 뜻이며 민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항일혁명투사들의 품에서 인생의 첫걸음을 떼고 그 품에서 우리 혁명의 향도성으로 솟아오른 조선의 아들입니다.》

《**김정일**동무를 민족의 령도자로 키운것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의 투사들이 그를 향도성으로 내세워주었으며 백두산의 정기가 그의 기개로 되었습니다.

우리 혁명의 대가 굳건한것은 **김정일**동무가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나서자란 민족의 령수이 기때문입니다. 그는 만민의 지지와 총애를 받는 인민의 령도자입니다.》

## 고향집에 내리는 눈송이

리 덕 진

함박눈 내리는 백두밀영  
가슴가득 차오르는 승엄함에  
걸음조차 옮기기 서슴어지는  
고향집앞에  
내 경건히 옷깃 여미고 서있노라

이 아들을 반겨맞는  
백두의 뜨거운 축복인가  
머리우에 어깨우에 소담히 내려앉는  
고향집의 흰눈송이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열리고  
내 삶의 영원한 행복이 꽃피난 곳  
크나큰 요람에 안긴 행복으로  
가슴은 한없이 설레이는데

광명성 솟아오른  
2월의 그 아침처럼  
이 땅의 끝없는 환희를 속삭이는  
고향집의 흰눈송이 눈송이

너는 오늘도  
백두광명성탄생을 소리쳐 알리던  
그날의 장쾌한 봄우뢰를 안고있느냐

백두밀영고향집을 우러러 감격에 목메이던  
투사들의 그 후더운 숨결을 이야기하느냐

하늘땅 가득히 차흐르는  
너의 속삭임소리  
내 뜨겁게 가슴에 새기노라면  
안겨오누나 《자장가》의 은은한 선율속에  
간절히 흐르던 어머니의 그 소원이...

백두의 정기를 다 모아안고  
별들이 내리며 반짝이던 들창가에 어려있는  
찬란한 패일을 안아보시던 어머니의 그 축복  
2월의 환희를 오늘도 전하며  
내리고내리는 백두의 눈송이

아 티없이 깨끗한 순정의 마음으로  
내 가고갈 그 한길을 깨우쳐주며  
이 가슴 가득히 내려앉는  
백두밀영고향집의 흰눈송이

2월의 눈송이  
백두의 흰눈송이  
너는 내 가슴속에  
영원히 녹지 않으리라

## 혁 명 적 신 념 의 노 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가가 신념을 잃으면 비록 육체적생명은 살아있어도 정치적생명은 끝장나게 됩니다.》

창작가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혁명적신념에 대한 노래를 쓰기 시작한것은 주체69(1980)년말부터였다. 여러가지로 모색해보았으나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간직한 불타는 신념을 깊이있게 보여 주지 못하고 다만 신념에 대한 철학적개념만을 서술한데 불과하였다.

그러던 주체71(1982)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여러가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다가 문득한 일군에게 혁명적신념이 무엇인가고 물으시였다.

그 일군은 일어나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영원히 우러러모시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정의 마음이라고 정중히 말씀올렸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그건 너무 일반적인 대답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적신념이란 얹어놓아도 쇠소리가 나고 뒤집어놓아도 쇠소리가 나며 행복한 날에도, 준엄한 시련의 날에도 오직 한길을 가면서 한가지 말만 하는 인간의 억센 마음입니다. 한번 다진 맹세, 한번 찾은 혁명의 진리를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고 한번 택한 혁명의 길을 순간의 동요도 없이 걸어가는 사람을 두고 혁명적신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말씀은 신념의 노래를 지으려고 애쓰던 창작가들의 눈을 밝게 띄워주었다.

창작가들은 《한번 다진 전사의 맹세》, 《한번 찾은 혁명의 진리》, 《한번 택한 혁명의 길》을 핵으로 하여 가사를 쓰고 거기에 맞추어 곡을 붙이였다.

주체71(1982)년 8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작가들이 올린 가요《우리의 신념은 하나》를 들으시고 곡을 몇개 더 써보라고 하시였다.

그후 창작가들은 새로 몇곡의 노래를 더 짓고 그가운데서 제일 잘되었다고 생각되는 2곡을 골라 위대한 장군님께 올렸다.

그 노래를 듣고 또 들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곡을 다 미루어놓으시면서 처음에 올린 가요《우리의 신념은 하나》를 신념에 대한 노래로 고착시키자고 하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정해주신 가요《우리의 신념은 하나》를 형상하는 전투를 벌리

게 되였다.

주체71(1982)년 9월 하순 어느날이였다. 합창으로 형상한 노래를 들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작가들에게 합창곡《우리의 신념은 하나》가 아주 잘되었다고, 노래가 명곡이라고, 나는 합창곡《우리의 신념은 하나》를 15번이나 들어보았는데 웅장하고 무게있게 잘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가사에서《당중앙》이라고 한 표현은《우리 당》이라고,《일편단심 우리 당에 자기 운명 의탁하리》라고 한 표현은《일편단심 우리 당과 자기 운명 함께 하리》로 고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창작가들은 노래의 매 절에서 마지막단을《일편단심 우리 당과 자기 운명 함께 하리》로 통일시켰다.

이렇게 하여 가요《우리의 신념은 하나》가 완성되였다.

혁명의 길엔 영광도 있고 모진 시련도 많아라  
어머니당이 준 신념이 없다면 그 어이 먼길 가라  
한번 다진 전사의 맹세 생명보다 귀중해  
일편단심 우리 당과 자기 운명 함께 하리

조선의 려명 동트던 아침 한별을 따르던 녀인가  
향도성 받들어 천만의 심장이 충성의 꽃 피워가네  
한번 찾은 혁명의 진리 천금보다 귀중해  
일편단심 우리 당과 자기 운명 함께 하리

영광의 날엔 이 길을 가고 준엄한 날엔 판길 가라  
이 한몸 불속에 재가 된다 해도 이 신념 지켜가리  
한번 택한 혁명의 길을 순간인들 멈추라  
일편단심 우리 당과 자기 운명 함께 하리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노래를 두고 더없이 만족해하시며 노래《우리의 신념은 하나》의 가사가 잘되었습니다, 1, 2절 가사도 좋지만 3절 가사가 더 좋습니다, 3절가사는 이 노래의 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영광의 날엔 이 길을 가고 준엄한 날엔 판길 가라》라는 대목이 좋습니다, 그 가사에는 혁명의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습니다, 앞으로 노래《우리의 신념은 하나》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널리 부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더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이 신념의 노래는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되였다.

박 명 선

# 퇴성은 하늘에서 울지 않았다

정 동 찬

어디선가  
제철구내를 빠지는 직두천 여울소리도  
우리 장군님 다녀가신 뒤  
저무는 이 하루를 아쉬워하는듯  
누구 하나 그이 생각에 퇴근을 서둘지 않는  
야금기지의 이밤

한껏 비에 젖어 무겁게 서있는  
구내길 버들앞에 마주서도  
쿵쿵 가슴을 두드려주는 생각  
붉게 타는 철의 도시 상공에서  
그이의 음성 다시금 마디마디  
한가슴 가득 울려오는데

번쩍—  
짜르릉  
낮추 떠오르는 비구름 베어버리는 푸른 번개  
무언가 찍어버리는 번개불의 섬광속에 마주쳐오는  
강철직장 담벽의 네 글자

《자력갱생》

순간  
밤의 어둠을 짙게 밀어내며  
제철지구 상공높이 우렁이 어려워오는  
장군님영상이여

아무 말쑤이 없이  
저벅저벅  
앞서 걸으시던 장군님  
문득 발걸음 멈추시고  
평곳 근엄하신 안광 그어가던 바로 그곳에서  
저 글발이 불같은 웨침을 뿜으며

가 사

육박해오지 않았던가  
간고한 철의 력사 굵이굵이에서  
붉은기로 날렸고  
혁명가로 울렸던  
너 《자력갱생》  
강철공의 한생에 머리높이 이고산 글발을  
오늘도 안고사는가  
나에게 묻고있거니

죽으나사나  
우리 식 제철법을 끝장볼 때까지  
우리 혁명 완성의 그날 끝까지  
목숨처럼 안고살 이 정신으로  
생각하건대

수억만톤의 무산철광 옆에 끼고  
믿음직한 북부지구의 탄발을 깔고앉아  
남의 덕을 입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조국앞에서  
얼마나 큰 배신으로 되는것이라

자기의 녀를 찾고  
자기를 알 때  
백배천배로 심장을 뒤흔드는 퇴성  
번쩍—  
짜르릉소리

땅이 진동하고  
동해의 격파 솟구치도다  
사대와 교조 침체와 보수의 먹구름 찍어버리는  
조선의 퇴성을 내 듣노라  
오, 자력갱생!  
너의 퇴성 하늘에서 울지 않았다

## 선군은 승리, 승리는 김정일장군

조 성 판

승리의 광장에 펄펄 날리는  
선군의 붉은기를 바라보시라  
백두의 총대높이 조선을 떨쳐오신  
장군님 전선길이 그 기폭에 어려와라  
아, 선군은 승리, 승리는 김정일장군

승리의 광장에 굽이쳐가는  
무적의 열병대오 바라보시라  
정일봉의 번개서린 일당백총검마다

천하제일 령장의 그 기상이 빛발쳐라  
아, 선군은 승리, 승리는 김정일장군

승리의 광장에 터져오르는  
축포의 불야성을 바라보시라  
백두의 선군위업 총대로 완성하실  
장군님 철의 신념 축포속에 비껴와라  
아, 선군은 승리, 승리는 김정일장군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의 이야기는 빈틈없는 감정조직을 타고 흘러야 한다.》

《감정조직을 빈틈없이 하기 위하여서는 인물들사이의 감정적연계를 잘 맞물려나가야 한다.》

《감정조직에서 작품의 형상세계와 독자사이의 감정적연계도 잘 맺어주어야 한다. 감정조직의 진정한 목적은 독자의 정서적감흥을 높이는데 있다. 작품에서 인물이 웃고 울며 흥분하여도 독자에게 그 흥분이 남득되지 않거나 공감을 주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 작가가 주관적흥분에 사로잡혀 독자의 감정상태를 무시하면 인물의 감정선과 독자의 감정선사이에는 계속 불일치와 모순이 생겨나고 결국 감정조직은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된다.》

### 혁명일화

## 해 병 들 이 돌아 오 다

우리 조국의 강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가슴벅찬 사연들을 간직하고 범상치 않게 흘러가고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하루하루는 이에 명백한 대답을 주고있다.

얼마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해군부대를 찾으시여 백승의 전투력을 다져나가고있는 해병들을 고무격려해주시고 그들의 훈련모습도 친히 보아주시였다.

훈련은 대단하였다.

일당백용맹으로 충만된 해병들의 용감무쌍하고 기세충천한 모습과 바다를 뒤흔드는 무자비한 타격력, 최고사령관기를 높이 날리며 노도와 같이 돌진하는 함선들.

그 장쾌한 광경에서 받아안은 흥분과 신심도 큰 것이였지만 보다 심장을 울려준것은 훈련이 끝난 후에 펼쳐진 감동적인 화폭이였다.

해병들이 배고동소리를 자랑스럽게 울리며 군항으로 돌아오고있을 때 남먼저 그들을 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둘러보시며 격정에 넘쳐 보라고, 우리 해병들이 돌아오고있다고, 승리하고 돌아오고있다고 사랑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국의 바다를 굳건히 지키고 오늘 훈련에서도 용맹을 펼친 나의 아들들을 손을 흔들어 축하해주어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아직은 해병들의 모습이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고 눈앞에서 환호하는 전사들에게 답례하듯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오래도록 손을 높이 들어 흔드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우리르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의 심장은 저도 모르게 격해지였다.

눈에 보이는 거리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심장과 심장의 뉴대는 거리의 제한을 모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병들을 향해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계시던 그 시각, 수평선 저 멀리 군항들에서는 우리 해병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는 곳을 향하여 눈물이 번뜩이는 얼굴로 일제

히 거수경례를 하고있었다. 위대한 령장의 축하의 손길을 우리 해병들은 심장으로 절감하였던 것이다.

군항들에 울린 호각소리, 갑판우에 정렬한 해병들, 바다에 메아리치는 만세의 함성...

그것은 천만대적도 격멸소탕할 우리 해군의 군사적위력만이 아닌 그보다 백배, 천배로 강한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사이의 숭고하고 열렬한 믿음과 힘모, 사랑과 결사옹위의 열정이 세차게 굽이쳐 흐른 가장 진실하고 감동적인 승리의 열병식이였다.

그날 저녁이였다.

밤이 깊도록 해병들의 정다운 모습들을 그려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던 우리 장군님께서는 군항으로 돌아오던 해병들이 갑판우에서 경례를 드리면서 모두가 눈물을 흘리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보고받으시고 못내 감격하시여 우리의 해병들처럼 훌륭한 병사들은 없다고, 병사들이 최고사령관과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이런 혼연일체가 있어 우리 조국이 강하고 우리가 언제나 이기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우리 병사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제일 기쁘고 거기에서 커다란 힘과 용기를 얻군 한다고, 정말 오늘을 잊을수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운 잊을수 없는 그밤은 이 나라 선군혁명의 력사에 또 한페지 사랑의 전설을 수놓으며 소리없이 깊어갔다.

위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이렇듯 뜨거운 사랑에 떠받들려 필승을 펼치는 혼연일체의 강군이 태어날수 있는것이다.

우리 장군님 오늘도 병사들을 향해 사랑과 믿음을 담아 손저어주신다.

용감한 우리 해병들은 영원히 그 손길을 어머니 조국의 크나큰 기대로, 백승의 기치로 간직하고 언제나 승리만을 펼치고 돌아올것이다.

리 윤 찬





정 영 종

1

휘연한 새벽빛을 헤치며 긴 자동차행렬이 덩치  
듯 마주 달려왔다. 채수연은 황급히 길옆구덩이  
에 비켜섰다. 가슴에 꼭 끼안은 정교한 유리함이  
어떤 우발적인 손상이라도 입을가봐서였다. 공무  
직장에서 밤새워 만든 유리함이었다. 그속에는 까  
마득한 옛시절 그가 두살잡이에 기였을 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 연하땅에 오셨다가  
직접 쥐여주신 연밤빛털이 보르르한 귀여운 강아  
지완구가 들어있었다. 당장 연혁소개실에 진렬해  
놓아야 할것이었다.

사실 그 완구는 수연이네 집에 가보로서 수십년  
세월 정히 보관되어있었다. 그러다가 온 광산이  
위대한 장군님을 어느 시각에라도 모실수 있도록  
최상의 수준으로 꾸리자고 분투해나서고 연혁소개  
실도 새롭게 일떠서자 수연이 자신이 거기에 진렬  
해줄것을 제기하고 당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지하여  
《이사》가게 된것이였다. 방송선전차 방송원으  
로서 연혁소개실관리도 맡고있는 수연에게 바로  
그 행복한 소임이 전적으로 맡겨진것은 너무나 웅  
대한 일이기도 했다.

자동차행렬은 수연에게 눈가루를 들쑤우며 한대  
또 한대 똥똥 코앞을 스쳐지나갔다. 사람들이 빼  
곡 탄 맨마감의 뺨에서는 대한 말기의 맵짠 대  
기를 뒤흔들며 노래소리가 울려나왔다.

내 사랑 평양 내 심장 평양  
꿈결에도 그리운 마음의 고향  
...

마음을 류다르게 절절히 휘젓는 노래소리였다.  
수연은 그들이 온밤 여기 연하광산과 철도역사이  
에 우뚝 솟은 험준한 솔매령길에 허리치게 내린  
눈을 치고 돌아오는 광부들이라는것을 알고있었  
다. 광산의 정광을 제련소로 매일 어김없이 뽑자면  
어차피 도로가 항상 안전하게 열려있어야 했다.

하지만... 간밤의 눈치기전투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며칠째 자  
강도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도길에 계셨기때문이  
였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혹시?...

결코 근거없는 소망은 아니었다. 몇해전에도 자  
강도를 찾아주셨던 장군님께서는 연하광산이 《고  
난의 행군》시기에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  
화해왔다는것을 료해하시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참  
장한 동무들이라고, 언제건 시간이 허락하면 꼭  
들려보겠다고 약속하셨던것이다. 하물며 연하광  
산과는 그 개발이전부터 깊은 연고관계를 맺고계  
시는 장군님이심에랴!...

바로 이 시각에라도 불쑥 찾아오신다면!... 수연  
은 타는듯 한 촉박감에 떠밀려 차행렬이 끝나기  
바쁘게 닝큼 도로우에 올라섰다. 그찰나 뒤미처  
따라오던 승용차가 발치앞에서 뻥— 멎으며 차문  
이 열렸다. 거의 동시에 귀익은 광산지배인 렬성  
욱의 통명스러운 질책이 날아왔다.

《수연동무, 그건 또 뭐요? 방송원이면야 방  
송차를 불러 안전하게 실어가야 할게 아닌가. ...  
차를 돌리요!》

마감말은 운전사에게 한 지시였다. 수연은 온밤  
눈치기전투를 지휘하느라 푸르죽죽하게 언 지배인  
의 얼굴을 띄여보자 웅색하여 허아래소리를 했다.

《이젠 다 왔는데… 그냥 가보십시오.》  
렴성옥은 대꾸하지 않았다. 승용차는 회오리  
치듯 뱅 차머리를 돌렸다.

《타오!》

더이상 사양할수 없었다. 한번 뺄았던 말은 철  
회하는 법을 모르는 지배인이기도 했다.

차가 움직이자 려성옥은 유리함을 결눈질해보고  
나서 무뚝뚝하게 물었다.

《동문… 아침 첫 보도를 들었소?》

《아니, 공무직장에서 이것때문에 새우다나니…》

《흠-》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버렸다. 벌써 승용차  
가 광산전경을 한눈에 바라보며 우뚝 솟은 산뜻한  
2층짜리 연혁소개실정문에 들어선것이였다.

제 먼저 차에서 내린 려성옥은 뒤돌아보지도 않  
고 성큼성큼 현관계단을 뛰어올랐다. 거의 반달음  
에 가까운 땀시 다급한 걸음이었다.

숨차게 뒤따르는 수연의 심장은 후둑후둑 들뛰  
기 시작했다. 아침의 첫 보도에 대한 의미심장한  
질문, 저 초조한 거동… 그것이 혹시 눈앞에 박두  
한 어떤 비상한 사변에 대한 숨은 암시는 아닐까?

수연이 안고있는 유리함속의 주먹만 한 강아지  
완구도 그 추측을 열심히 긍정하듯 고개를 까딱거  
려댔다. 진동의 세기에 따라 고개짓크기가 변하는  
아주 정밀한 완구였다.

연혁소개실정면홀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수십  
년전 연하장의 탐사현장을 돌아보시는 대형영상사  
진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려성옥은 그앞에서 잠  
시 걸음을 멈추고 숙연히 서있다가 다시 광산연혁  
을 소개하는 두개의 방을 거의 한본새로 성큼성큼  
지나쳤다.

《지배인동지.》 끝내 참지 못하고 수연이 애  
원조로 불렀다. 《제발 대주세요. 무슨 일인지…  
무슨 새 소식이 있는게 아닌지… 예?》

지배인의 걸음이 불시에 툭 멎었다. 수연은 그  
의 널찍하고 단단한 어깨가 한순간 회초리에라도  
맞은듯 흠칫하는것을 가려보았다. 려성옥이 천천  
히 돌아섰다. 그다음 두툼한 손바닥으로 얼굴  
을 힘껏 문지르고나서 왕청같은 화제에로 뛰어넘  
어갔다.

《그 완구 말이요. 저기 2층전망실에 진렬해놓  
기로 했었지?》

《?…》

느닷없는 질문이었다. 강아지완구를 여기 연  
혁소개실에 진렬하자는 수연의 발기를 당비서와  
함께 제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위치까지도 함  
께 토론해준 지배인이 아니었던가.

《아니!》 하고 려성옥은 대답도 기다리지 않  
고 한손을 뻗 내리그었다. 《그 위친 아무래도 적  
합치 못해. 날 따라오라구!》

그가 수연을 이끌어간 곳은 《광산이 잊지 못해

하는 오랜 공로자들》이라는 표제아래 수십여상의  
사진들이 꼭 나붙어있는 사진소개판앞이었다.

수연의 눈길은 반사적으로 사진판가운데 붙어있  
는 자기 할아버지에게 날아갔다. 허연 수염발이  
드리운 얼굴에 온통 주름이 얹혀있으나 근엄하게  
굽어보는 총기있는 눈매로 하여 범접 못할 위엄과  
지혜가 동시에 내뿜기는듯 한 그리운 모습, 절로  
할아버지가 생시에 늘 곱씹던 말이 고막을 되울리  
기 시작했다.

《이걸 그저 놀이감으로만 여기지 말거라.  
그분께서 내게 남겨두신 정이니라. 혈연을 맺  
는 정, 그런 뜨거운 정은 세월이 지나가도 식  
지 않는단다.》

그 말이 뜻하던것, 할아버지가 마음속에 굳건히  
간직한 확신이 바로 이제 도래할 그 사변은 아닐가?

《함을 이리 주오.》

려성옥이 여전히 똑하게 수연의 손에서 유리함  
을 넘겨받아 사진소개판앞탁에 조심히 올려놓았  
다. 그리고는 몇걸음 뒤로 물러서서 눈을 가늘게  
쥔조였다. 순간 지금껏 엄하게 굳어져있던 그의  
불편에 경련같은 파문이 스치기 시작했다. 잠간사  
이 려성옥의 부리부리한 눈은 안개발같은 물기로  
뽀얗게 흐려졌다.

이윽해서야 려성옥이 울대를 꿈틀하며 툭 젖어  
든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수연동무, 내 밤새 눈을 치면서 이 자리가 어  
떨가 궁리해보았는데… 이제 우리 장군님께서 여  
기에 들리시여 저 사진속의 할아버지를 알아보시  
면… 그때엔 저 강아지완구가 그이의 추억을 더  
감명깊게 해드리지 않을까? 그이께서 더 기뻐하시  
지 않을까? 어쩔소, 응?》

수연은 대뜸 목이 메여올랐다. 우리 장군님께서  
여기에 들리신다!… 마치 눈앞의 현실로 박두한듯  
이, 이미 기정사실인듯이 입에 올린 그 말의 충격  
에 숨까지 꺾 막혔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실 그 시각을 위하여!》라  
는 표현은 려성옥지배인이 이 몇해어간에 매일같  
이 강조하곤 하던 말이였다. 광부들 또한 그리도  
열렬히 호응하여 심장을 불태워온 말이기도 했다.  
바로 꿈같은 환희의 그 시각을 고대하고 믿어마지  
않았더라면 화려한 도시와 같은 오늘의 저 광산마  
을풍경은 결코 펼쳐질수 없었을것이다.

왈칵 눈물이 솟구쳐올랐다. 다름아닌 행복의 순  
간이 드디어 오게 된것이였다. 그때… 그때에 자  
기는 엉엉 울게 될것이다. 수십년전 아득한 그 시  
절과 거의 흡사하게!

물론 수연은 그때를 기억에 새겨두고있지 못했  
다. 그럴 나이가 아니였었다. 다만 한없는 그리움  
에 잠겨 때없이 뇌이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하  
여 상상하고있을뿐이였다.

《…그때 넌 한창 발버둥치며 울던 참이었지.

그런데 그분께서 오시자 너는 울음을 딱 그치고 그이께 안기려고 벌렁벌렁 기여가는데 아니겠니. 그분께서는 너무 기특하시어 얼른 승용차안에서 바로 이 완구를 꺼내어 네 손에 쥐여주셨단다.

후에야 그분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이셨다는걸 알구 어찌나 죄스럽구 황공하던지. 그래서 우리 집안의 귀중한 가보로 여태 고이 전사해둔거니라!»

아버지장군님앞에서 바보같이 울어댔을 자기 꼴을 떠올리지만 해도 수연은 얼굴이 타들어 죽고싶을 지경이었다. 하면서도 울음을 딱 그친것은 강아지완구때문이 아니라 해님같이 환히 웃어주시는 장군님모습에 그만 넋이 온통 끌린때문일거라고 굳이 믿고싶은 그였다. 어찌 달리 될수 있으랴. 그저 수수께끼라면 그이께서 수천리 먼길의 행장속에 어떻게 이처럼 신통한 완구까지 꾸러가지고 오셨을가 하는 점이었다. 혹시 연하땅에서 자기같은 울보를 만나리라는것을 미리 내다보신것은 아닌지?

지배인이 툭 건드려서야 수연은 정신을 차렸다.

《이 자리로 정하기요. 내 당비서동무와도 합의를 보겠소. 현대 받침대는 틀렸어. 사람들을 붙여 줄테니 품들여 다시 만드오.》

렴성옥은 피곳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나서 무슨 말인가 더 할듯말듯 하더니 그대로 힝 방을 나섰다. 급해맞은 수연은 얼른 그의 팔소매를 붙잡았다.

《지배인동지, 당장 해체했다가 그... 그 시각까지 수습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한 여유가 있다는겁니까?》

《방송원!》

별안간 렴성옥이 짹 소리질렀다. 사납게 찌프러진 그의 얼굴에서 짙은 눈썹이 푸득푸득 뛰었다.

《술매령높이가 얼마지 알아? 해발 1 200이야! 굽인돌인 또 얼마나 되구? 거기에다 온통 얼어붙어서 발을 옮겨짚기도 힘들어! 우리 장군님께서 그 령을... 그 험한델 넘어오시기를 바라, 영?》

렴성옥은 그 몇마디로 온몸의 기력을 싹 연소시켜버린듯 했다. 컴컴해진 얼굴로 2층계단란간을 짹 움켜잡은 그는 몇번 괴롭게 기침을 낚더니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언제 터지기 시작했는지 창밖에서 아우성치는 눈보라소리가 어지럽게 고막을 긁어댔다. 어제 저녁에 알린 오늘의 날씨가 령하 34도까지 내려간다고 했으니 그럴만도 했다. 나라의 북방에서도 가장 막바지에 위치한 연하땅이었다.

고개를 수긋하고있던 렴성옥이 마침내 무거운 한숨끝에 울음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불충한 놈이었지. 이 엄동설한에 수천리 먼길을 헤치실 우리 장군님의 고생은 생각지도 았구... 그저 만나뵈을 욕심만 부렸으니... 불충한 놈이었어. 간밤 흑한속에서 눈을 칠 때에야 얼마나 위태로운 길에 장군님을 모시려 했는가를 깨닫구 억이 막혀...》

렴성옥은 타는 가슴을 헤치듯 솜옷앞섶을 와락 제끼며 움쭉 일어섰다. 그의 얼굴이 다시 엄엄하게 굳어졌다.

《그래. 우린 설사 장군님께서 떠나오신대도 앞길을 막아드려야 해. 꼭... 그래야만 해!》

렴성옥이 떠나간 다음 수연은 화들거리는 가슴을 두손으로 꼭 부여안은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오열같은것이 전신을 휘감았다. 아버지장군님을 다시 만나뵈을 타는듯 한 꿈으로만 이어져온 자기의 반생, 하지만...

눈보라소리는 가슴을 아프게 허비며 점점 더 높아갔다. 그 눈보라의 장막속에 완전히 파묻혔을 술매령... 전를을 불러오는 광경이었다. 너무 높고 깎아지른듯 하여 자유롭고 억센 술매마저도 날아넘으려다가 기진하여 돌맹이처럼 곤두박힌다고 불여진 령이름이었다.

《그래, 그래야만 해!》

수연은 저도 모르게 지배인의 말을 소리내어 되뇌었다.

...아침 일곱시보도를 통하여 수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에서 어느 한 외국대표단과의 중요한 회담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셨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장군님께서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가신것이였다.

비로소 수연은 지배인이 새벽보도로 이미 그 소식을 알고있었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 2

온밤 령차는 북방의 서리찬 추위와 짙은 어둠을 꿰지르며 내달렸다. 눈보라는 갈수록 더욱 기승스레 차창을 후려쳤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모든것을 의식하지 못하시며 집무탁우에 남아있는 마지막문건에 시선을 주고계시였다.

《최근 연하광산로동계급이 생산능력을 2배로 끌어올린 투쟁자료》

령차에 오르자 제일먼저 훑어보셨던 문건이였다. 그러나 당장 결론을 주셔야 할 긴급한 문건들이 너무 쌓여있어 마감에 다시 보려고 깔아두시였다. 거기에는 그곳 지배인 렴성옥이 광부들을 불러일으켜 70일동안에 이미 있던 생산계통을 배로 확장한 기적같은 공사진행과정이 상세히 언급되어있었다. 원래의 생산계통을 세울 때 전국의 한다하는 건설력량이 달라붙어서도 무려 6년만에 공사를 끝냈었다는 의미심장한 그 대비로 현재의 성과를 복돋구는 자료가 첨부된 문건이였다.

《연하!...》

김정일동지께서는 나직이 뇌여보시였다. 그러자 마음은 순간에 령차를 멀리 앞질러 연하땅을 밟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추위가 보다 흑심할것이다. 하지만 그이의 추억속에 깊이 새겨져있는 연하는

언제나 축축히 비뿌리는 벽지농촌의 가을풍경이었다. 그 가을비를 고스란히 맞으시며 먼 추억의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셨었다.

《벼락이라! 귀중한 단서요. … 이 연두봉주위에 묻혀있는 어떤 큰 광체가 벼락을 끌어당겼을거란 말이요. 이 가까이에 광맥은 꼭 있소!》

그때 수령님의 신발에 질적하니 달라붙었던 별건 진흙이 잊혀지지 않으시었다. 그리고… 《압니다. 잘 알다마다요!》 하며 흥미있는 연두봉전설을 구수하게 들려주던 채가성의 토배기농민, 벌써 수십년전의 오랜 일이었다.

지금 연하땅에는 우리 나라 굴지의 대유색금속광산이 수십년째 생산을 팡팡 내밀고있으며 광부들은 아주 특색있는 멋진 살림집들을 쓰고살며 보다 행복할 래일을 힘껏 당겨오고있을것이다. 그이께서 이미 록화물을 통하여 여러번 눈에 익히신데 의하면 여러가지 형태와 구조의 추녀며 2층 다락을 높이 띄이고 날아오를듯 우뚝우뚝 솟은 살림집들이 추억깊은 연두봉허리까지 짝 메우며 도시의 웅근 한구역만치 쭉 펼쳐져있었다. 일부 고장들을 보면 그 규모에서 연하광산의 10분의 1도 차지 못하지만 온군이 달라붙어 건설해주곤 하는 실례가 있었다. 그런데 연하의 로동계급은 쉽지 않은 설비현대화와 생산공정확대, 아름다운 생산과제의 초과수행을 보장하면서도 자체의 로력과 자재로 단 몇해사이에 그토록 황홀한 산간도시를 일떠세운것이였다.

평양에 돌아가셨다가 하루만에 또다시 북방에로의 길을 되짚으신 **김정일**동지께서였다. 자강도에 대한 현지도때 그이께서는 강계시와 장강군안의 수많은 대상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느라 다리쉽 한번 편히 못하시였고 몸조차 변변히 녹일 사이 없으시였었다. 그래도 기쁘기만 하시였다. 그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기 나라에서 선참 락원의 행군길에 오른 고장이어서 그리도 정드시였었는데 이번에도 그곳 인민들은 《강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우리 당의 인민생활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또다시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해놓았던것이다.

긴장한 일정을 보내시였지만 그이께서는 쉬실사이없이 평양으로 되돌아서시였다. 어느 한 나라 대표단과의 중요한 회담이 기다리고있어서였다.

그런데 정작 귀로에 오르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우시였다. 무엇인가를 놓쳐버리신듯 한 허전한 느낌, 줄것을 다 못 주고 나눌것을 다 못 나눈듯 한 아쉽고도 안타까운 심정 이시였다.

그 순간 그이의 마음에 괴롭게 얹힌것은 강계에서도 천여리나 더 멀리 떨어져있는 나라의 북방한끝, 오래전 차거운 가을비를 맞으시였던 그 연하땅이었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지 몇달 안되던 어느날 **김정일**동지께서는 먼 북방의 현지도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을 보좌하게 되시였다. 수령님께서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일떠세우는데 절실히 필요한 방대한 금속수요를 충족시키시려고 연하땅에서 진행되고있는 탐사사업을 현지도하러 떠나시였던것이다.

수천리 먼길을 쉬임없이 달려 연하에 도착하시니 탐사형편은 말이 아니였다. 그들은 압록강이웃 지경에서 철광석을 캔다고 하여 주먹구구식으로 같은 철을 찾아 이곳저곳 마구 뿌지고있었다. 우리 나라 지질형성의 오랜 력사와 그 특수성에 대한 완전한 물리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탐사대일군들과 담화하시다가 얼핏 들으시게 된, 연하땅을 떠이고 솟은 연두봉에 묘한 전설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였다. 어떤 번개치는듯 한 예감이 드시여서였다.

그런데 그들은 전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있었다.

《저, 채준보라고 토배기농민이 있는데 그라면 잘 알수 있을겁니다.》

그들이 죄송스럽게 아뢰는 말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체없이 채준보를 찾아가시였다. 원시림사이로 오불교불 난 달구지길이였다. 때없이 내리기 시작한 가을비로 길이 여간 질적거리지 않아 차는 힘겹게 굴러갔다.

마침 점심참이여서 채준보는 집에 있었다. 마누라와 함께 떼를 쓰며 울어대는 뒤살잡이 손녀에게 밥을 먹이느라고 찢찢 매는것을 보니 너무 고와하던 나머지 응석꾸러기로 만든듯 했다.

《압니다. 잘 알다마다요!》 하고 50초반쯤 나보이는 채준보는 산골농민을 정중히 동지라고 불러주는 젊으신 그이의 인품에 감동되고 저으기 흥도 난듯 손세까지 써가며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요새 사람들은 제 고장 전설두 통 귀에 새기려하지 않소만 그걸 모르구서야 제 고향을 사랑해낼수 있나요. 저 연두봉이란 문자그대루 머리꼭대기에 못을 떠인 봉우리란 뜻입니다. 먼 옛날 화산이 분출한 분화구에 물이 고여 생겼다는데 거기로부터 우리 고장두 못아래마을이라서 연하라구 불리운거라우.》

이렇게 긴 허두를 떼고서야 채준보는 전설이 생겼다는 먼 옛날에로 이야기를 끌어갔다.

그때 이 고장에는 북방국경을 공고히 할 어명을 받은 원이 새로 부임되어왔는데 그놈은 압록강기슭에 보루를 쌓는다는 명목으로 수자리군사들은 물론 당시 몇 안되는 주민들인 정배살이군들이며 화전민들, 지어 숲속깊이 들어가있는 숲쟁이들까지 모조리 끌어내어 원시림채벌에 내몰았다. 그들에게 정해진 하루 통나무채벌량은 눈이 뒤집힐 정도였다. 그것을 수행 못하면 밤에도 산에서 내

려울수 없었다. 그통에 매일같이 사람들이 허기져 쓰러지고 통나무에 치어 죽어갔다.

애초에 보루를 통나무로 쌓는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얼마후에야 사람들은 원놈이 그 통나무들을 때목으로 벌고던 의주에까지 끌고가서 팔아먹는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놈은 그 돈으로 연두봉꼭대기의 경치 수려한 못에 꽃배를 띄워놓고 기생들과 어울려 흥청망청 즐겨댔다.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에 사무치지 않을수 없었다. 하여 끝내는 옥황상제의 귀에까지 미쳤다.

《...옥황상제는 대노했다우. <자고로 군주나량반의 지위는 그자신의 부가 아니라 그네들이 거느리는 백성들의 생명과 재보로 옹위된다 했거늘 그 백성들이 헐벗고 생명을 잃어갈 때 제놈이 어떤 종말을 고하고마는지 지금 당장 벼락벌로 보여 줄지어다!> ... 령을 받은 벼락신이 즉시루 무서운 벼락불을 지상에 내리떨구었지요. 그러자 저 연두봉이 썩 갈라지면서 못이 땅속으로 쑥 잦아들고말았다우. 원놈도 꽃배와 함께 삼켜들구요!...》

벌써 김정일동지께서는 흥분으로 가슴이 사뭇 울렁이시였다. 벼락의 근원에 대한 과학적표상이 뇌리에 뚜렷이 자리잡힌것이었다. 그이께서는 성큼 채준보의 손을 잡으시였다.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수령님께서 가십시오. 그 전설을 들으시면 우리 수령님께서 몹시 기뻐하실겁니다!》

채준보는 화뜰 놀라면서 눈이 화등잔같이 커진채 딱 굳어져버렸다. 모름지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머나먼 북방오지에까지 오시리라고는, 더우기 벽지농사군을 직접 만나주기까지 하시리라고는 꿈도 꾀보지 못해서일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흥분과 격정에 겨워 떠듬떠듬 말씀올리는 채준보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다음 못내 만족하시여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벼락이라! 아주 귀중한 단서요. 전설이라는게 흔히 인민들이 자기들의 오랜 소원을 실재한 자연현상에다가 그럴듯 하게 갖다붙여 구전하는것이니 진짜 굉장한 벼락이 못을 없애게 분명하오. 이 연두봉주위에 묻혀있는 어떤 큰 광체가 벼락을 끌어당겼을거란 말이요. 이 가까이에 광맥은 꼭 있소!》

《웁습니다, 수령님!》 하고 김정일동지께서 말씀을 받으시였다. 《이젠 이곳을 깊이 파보아야 합니다. 여기는 중생대 중부유라기때의 심부파열대선상이므로 지각의 물동운동으로 강건너 이웃지경은 솟아오르고 우리쪽은 꺼져내렸습시다. 일반적으로 신기지층속에 광상이 형성되곤 하기때문에 이웃지정보다 더 깊은 곳에 광상이 있고 그 광체도 형성년대가 다른만큼 전혀 새로운 종류일것입니다!》

수령님께서도 기쁘게 수긍하시였다.

《바로 그거요. 깊이 묻혀있어 보배인것이지 쉽

게 손에 넣을수 있다면 그건 벌써 보배가 아니요!》

그리하여 몇년후 연하땅에서는 끝내 거대한 매장량을 가진 유색금속광체가 발견되었고 잇달아 광산개발의 발파소리도 드높이 울렸다. 그것은 인민들의 평범한 이야기속에서도 귀중한 가치를 가지는 보배를 찾아내어 빛을 뿌리도록 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예지의 산물이었다.

그 일로 하여 김정일동지의 심중에는 채준보라는 푸수한 토배기농민이 연하땅을 대표하듯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가 지금 살아있거나 하겠는지, 세월이 그토록 멀리 흐르지 않았는가!... 한편 어린 심혼의 본능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는줄 알고 더 응석을 부리며 기를 쓰고 울어대던 손녀애가 별안간 울음을 딱 그치고 자신께 안기려던 기억도 나시였다. 그것이 너무 기특하시여 차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여 쥐여주시었었는데?...

평양에 돌아오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외국대표단과의 회담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시였다.

일은 그것만이 아니였다. 공화국창건 60돐이 되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방대한 사업은 그이의 시간을 분초마저도 쪼개쓸것을 요구하고있었다. 문건만도 산더미같았다.

그럼에도 김정일동지께서는 하루전에 떠나오신 자강땅에 자꾸만 마음이 켜여지시였다. 수천리먼 북방땅이 계속 자신을 부르는것 같으시였다.

끝내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류기철부부장을 찾으시였다.

《나와 함께 연하로 떠납시다. 그렇게 준비해주소.》

이미 밝이였다. 무척 영민한 일군이였지만 그 순간 류기철은 잘못 듣기라도 한듯 어리둥절한 기색으로 푹 굳어졌다.

《연하... 말씀입니까? 언제?...》

《이제 당장!》

류기철의 두툼한 입술이 꼭 다물려졌다. 이마에 굵은 주름살이 쭉 건너가는것을 그이께서는 보시였다. 사람들속에서 몹시 고집스러운 일군이라는 평판을 받고있는 류기철이었다.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그이께 끝이끝대로 터놓곤 하는 일군들중의 한사람이었다.

드디어 류기철이 입술을 깨물며 괴롭게 말씀올렸다.

《장군님, 장군님께서선 방금 천여리길을 왕복 하셨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먼길을 쉬임없이 다녀온것은 사실이였다. 그런데 연하땅은 강계의 배가 넘는 수천리 먼먼 북방오지였고 길까지 몹시 험했다. 이런 겨울엔 특히 험할것이다. 이 순간 그이께서는 수행일군들의 건강이

무엇보다 넘겨주시었다.

《우리 일꾼들이 이번에 나를 따라다니느라고 몹시 지쳤을거요. 그들에겐 알리지 말고 우리끼리 슬그머니 갔다오자구.》

《장군님!》 류기철은 어느 사이 이마에 땀까지 와짝 내뿜어서 간청했다. 《이제 2월의 봄명절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연하광산이라면 록화자료도 있고 또 제가 상세한 문건을 만들어올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신의 건강을 넘려하는 류기철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시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저으기 엄하게 밀막으시었다.

《그러지 마오. 강계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선것이 가슴에 맺혀 난 아무 일도 못하겠소. 아무 일도! 알겠소? 떠납시다!》

류기철의 온몸이 즉시 활시위처럼 팽팽히 켜기였다.

《알았습시다, 장군님!》

군대식의 짧고도 다기찬 대답, 역시 류기철은 일단 임무가 주어지면 왕성한 정력으로 심신을 확 불태우는 결단성있고 주도세밀한 일꾼이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고 그에게 출발에 앞서 자강도산림과학연구소를 찾아 북방의 추운 날씨에 적응하도록 풍토순화시킨 과일나무모를 얼마나 확보하고있는지 잊지 말고 알아보라고 하시었다. 매우 요긴한 자료여서였다. …

연하광산에 대한 문건을 다시 마주하시니 **김정일**동지께서는 새삼스럽게 《2월의 봄명절》도 며칠 남지 않았단 류기철의 말이 되새겨지시었다. 모두들 2월은 봄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자신께서는 겨울과 류다른 인연을 맺고계시는 몸이었다. 백두의 2월로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저 차창밖에서 울부짖는 사나운 눈보라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자신이었었다. 아직도 우리 혁명이 준엄한 시련과 도전을 계속 뚫고나가지 않으면 안되기에, 우리 인민이 자신을 만나뵈오면 보다 큰 힘과 환희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의 진군길을 더 역세게 내닫군 하기에… 봄은 이 시련의 겨울을 이겨내며 찾아오는것이다!

### 3

차창을 짝 덮었던 어둠이 알릴듯말듯 설피여지기 시작할 때 렬차의 동음이 불쑥 커졌다가 즉시 잦아들었다. 누구인가 문을 열고 들어섰음을 감촉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고개를 드시었다. 문가에 류기철부부장이 서있었다. 이밤 그이께서 께박지새며 보고 비준해주신 문건들을 해당 단위들에 속속 보내느라 벌써 예닐곱번나마 나타났었던 그였다.

《마침이요. 수고스러운대로 이걸 마저 전송

해주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미 집무탁 한쪽에 간종그러 놓은 몇가지 문건을 내미시었다.

《알았습시다!》

류기철은 기다린듯 제격 문건을 받아든 다음 찾아온 용건을 아뢰었다.

《도산림과학연구소에서 소장동무가 연하가 속한 군소재지역에 와서 대기하고있다고 합니다. 부락하신 자료를 장군님께 직접 올리고싶다고 합니다.》

《그렇소?! 나이트분인데!…》

**김정일**동지께서는 미안한 어조로 뇌이시었다. 그러자 생각은 어버이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었던 그날의 비통함으로 거슬러올랐다. 그때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 남기신 약간 보풀이 인 수첩갈피속에서 《자강도—복숭아!》라고 큼직이 박아쓴 글발에 접하시였었다. 어찌 보면 암호문같아 해득이 난감할듯싶었으나 기실 너무도 명백한 의미였다. 언제나 우리 인민을 위할 생각에만 몰두하신 수령님이시였으니 과일이 잘되지 않는 자강도가 어찌 마음에 맺히지 않으셨으랴.

그이께서는 그 즉시 차판마다 그해 첫물복숭아를 가득가득 실은 특별렬차를 자강도로 떠나보내도록 지시하시었다.

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할수는 없었다. 그래서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강도산림과학연구소에 특별히 과업을 주어 북방의 찬 기후속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내도록 키낮은 사과나무며 복숭아, 배, 추리 등 과일나무들을 풍토순화시키게 하시였었다. 하루전 자강도현지지도때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은 그이이시었다. 이번에 연하로 가실 결심을 굳히고 보니 그 과일나무들을 그곳 로동계급에게 안겨주면 좋아할것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시었다. 나무 모확보량을 알아보시려 한것은 그때문이었다.

그 정형을 보고올리려고 먼길을 직접 달려와준 소장이 고마우시었다. 지금이 봄철이라면, 그러면 자신의 승용차에라도 그 과일나무모들을 기껏 실어다주련만!

아쉬움에 잠겨계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류기철이 그때까지 돌아가지 않고 어물거리는것을 띄여보고 던지시 물으시었다.

《왜, 또 밤을 샌다는 지청구요?》

《아닙니다. 이제야 뭐 연하도 다 오고 날도 밝기 시작했는데… 실은…》

류기철의 두툼한 입술이 좀 비뚜름히 다물려지는것으로 미루어 무엇인가 난감한 일이 생긴 눈치였다. 예측대로 그가 큰숨을 내쉬며 또박또박 말씀올리기 시작했다.

《연하날씨를 알아보니 새벽 한시부터 또 난데없는 폭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전날에 내린 눈까지 합치면 연하로 넘어가는 솔매령은 거의 한길되는 눈에 덮였을거랍니다.》

그이께서도 잘 아시는 령이었다. 수십년전에 한 번 넘어보셨던, 해발 1 200미터에 그 연장길이만 140리나 되는 천험의 령인데 그때문인지 북에서 흘러나오는 구름이란 구름은 죄다 거기에 걸려 때없이 눈이 쏟아지고 비가 퍼붓는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일기예보에도 없던 폭설이 내렸을 것이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절로 허거픈 웃음이 나가지었다. 류기철의 보고대로라면 수천리길을 힘들게 왔다가 주인집문턱도 못 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랑패스러운 정황이 조성된 셈인 것이었다.

그이의 웃음을 제나름으로 이해했는지 류기철이 얼른 말쑥올렸다.

《장군님, 제 광산일군들을 철도역으로 넘어 오도록 포치하겠습니다.》

벌써 류기철은 몸을 돌려 출입문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류동무!》

**김정일** 동지께서는 급히 그를 제지하시었다. 노여움에 가까운 부르심이였다. 따져보면 류기철의 말은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해 광산일군들을 고생시키겠다는 소리와 같았다. 결코 허용할 수 없었다. 그래 자신께서 무엇때문에 눈썹인 첼령이며 험준한 오성산, 파도사나운 초도에로의 길을 아무런 주저도 없이, 기꺼이 헤쳐가셨던가.

《간부들 몇몇의 말이나 들어주자면...》 하고 그이께서는 좀 격하게 말씀하시었다. 《그들을 평양에 편히 앉아 불렀을거요. 편히 앉아!... 동무도 지난해 최고인민회의때 연하광산지배인이 뭐라고 토론했는지 듣지 않았소!》

왜서인지 목이 메여오르시였다. 바로 지난해 최고인민회의때 **김정일** 동지께서는 처음으로 림성옥지배인과 낮을 익히시였는데 림름한 체격에 사내싸게 잘 생겼고 목청도 아주 좋았다. 보다는 그가 한 토론이 인상깊었다. 림성옥은 그날 자기 광산의 설비현대화와 생산능력확장, 많은 살림집건설 등 최근에 이룩한 성과의 비결을 두고 매우 소박하게 토론했었다.

《...정성옥영웅은 105리마라손주로를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달리고달려 1등했습니다. 우리 광산로동계급의 심정도 꼭 같았습니다. 오직 장군님만을 그리며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해왔을뿐입니다!...》

일군들의 과학적인 경제작전과 지휘요, 주도성과 창발성, 능동성이요 하는 성문화된 표현은 비록 없었지만 그이께서는 그 말속에서 자신만을 그리워하며 만나뵙기를 꿈에도 소원하는 광부들의 뜨거운 진정이 마쳐와 가슴이 뭉클하시였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신의 그리움 또한 갑절로 커지기 시작하는것을 의식하시였다. 그것은 벌써 정으로 엮힌 혈연적 그리움이였다.

《바로 그 귀중한 광부들이, 나의 동지들이 손꼽아 기다리고있는데 눈이 한길이면 어떻게 열길이면 어떻게 단 말이요. 감시다, 가야 하오!》

《장군님!...》

불같은 속삭임을 터뜨리며 류기철은 고개를 푹 떨구었다. 거의 동시에 목갈린듯 한 기적소리가 메아리를 일으켰다. 류기철의 마음속격정을 대신 하려 하듯이, 기관차 역시 온밤 힘겹게 달려온 의미를 새삼스럽게 절감하고 오열을 쏟듯이!...

연하가 속한 군소재지역홈에는 도산림과학연구소 소장과 함께 도당책임비서도 나와있었다. 밖에서 오래 기다린듯 그들의 입술은 얼어서 푸릿푸릿했다. 그만큼 날씨가 맵찔다. 눈은 뒤끝이라 눈보라는 좀 속어들었으나 대기중에는 역구내의 외등빛에 반짝거리는 무수한 눈가루들이 떠돌며 불을 바늘처럼 따끔따끔 찔러댔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들이 올리는 인사를 받으신 다음 산림과학연구소 소장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시였다.

《전화로 알려줘도 되겠는데 이 추운 날 고생스러 왜 예까지 나왔습니까?》

머리가 하얗게 센 소장은 그이의 녀려에 감격하여 황황히 말쑥올렸다.

《장군님께서 수천리 먼길을 불원천리하고 오시는데 어떻게 앉은 자리에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이께서는 소장의 어깨를 힘있게 잡으시였다. 《기왕 이렇게 온김에 연하광산까지 함께 가보는게 어떻습니까? 광산마을 매집마다 과일나무모를 얼마나 줄수 있겠는지, 어떤종의 과일나무가 더 좋겠는지 직접 파악해보게 말입니다. 나는 적어도 열그루, 가능하면 스무그루씩 심어주자는것입니다!》

모두 과일꽃에 온통 파묻힌 광산마을풍경을 떠올린듯 황홀한 눈빛으로 그이를 우르르는데 뒤미처 정신을 차렸는지 도당책임비서가 성큼 한발 나섰다.

《장군님, 술매령길의 눈을 광부들이 벌써 말끔히 치냈습니다. 길이 쪽 열렸습니다!》

《혹시 동무가 지시한게 아니요?》

**김정일** 동지께서는 저으기 엄하게 따지시였다. 자신때문에 광부들이 밤새껏 고생했으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언짢아지신 것이였다. 도당책임비서는 황급히 도리머리를 쳤다.

《아닙니다. 그들은 일년열두달 재밤중에도 눈이나 비가 오면 즉시 달려나와 길을 정리하군 합니다. 누가 시키는것도 아닌데 간밤도 그렇고 그 전날에도 그들은 평길에서 꼬박 새다싶이 했답니다!》

뜨거운것이 눈곱을 지지였다. 그이께서는 등뒤에 따라나선 류기철쪽을 절로 돌아보게 되시였다. 정광수송때문에 도로를 항상 잘 관리하는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일것이다. 그러한 책임성이야말로 쇠돌을 다루는 광부들의 기본자세가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밤을 지새면서까지 필수적으로 눈을 칠 리유란 무엇이겠는가. 자나깨나 자신께서 오시기만을, 아니 꼭 오시리라는 믿음만을 안고사는 광부들의 그 불같은 정이 백여리헛길의 눈을 모두 녹여버린것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는가!

《갑시다, 빨리!... 빨리 갑시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마음이 다급해져 성큼성큼 앞장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 걸음에 이끌린듯 새벽은 달음질쳐 밝아오기 시작했다.

#### 4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광산에 오셨다는 폭풍같은 소식이 전해졌을 때 채수연의 머리속에 제일먼저 번개친것은 《아아, 아버지장군님께서 나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셨구나!》 하는 숨막힐듯 한 환희였다.

그는 미처 끝신도 바뀌신지 못한채 연혁소개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대뜸 불그레한 아침노을빛에 물들어가는 솔매령의 아아한 메부리가 확 안겨왔다. 순간 심장을 무엇인가 짝 비트는듯 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부르르 진저리쳤다. 《우린 설사 장군님께서 떠나오신대도 앞길을 막아드려야 해!》 하고 울음처럼 부르짖던 지배인의 목소리가 고막에 쟁 되울려온것이었다. 이 얼마나 죄스러운것인가. 눈깔린 저 천힘의 아짜아짜한 평길로 그이를 모셔오게 만든 나의 철없는 눈물은!

온몸이 좋아들었다. 그럼에도 수연은 황황히 연혁소개실로 되짚어들어와 매 방들을 다시한번 간간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광산에 대한 현지도의 첫걸음으로 이곳부터 찾으실것은 명백했다. 광산의 력사며 현 생산실태 등에 대한 사전료해를 하실수 있는 곳이 바로 연혁소개실인것이다. 하물며 저 솔매령을 넘어오시느라 몹시 열었을 그이의 손발부터 녹여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콩마당질하듯 들뛰는 가슴을 부여안고 연혁소개실안팎을 다시 돌아보는 사이 난데없이 먼 채굴장어름에서 환호소리가 터져올랐다. 수연은 대바람 심장이 들썩했다. 장군님께서 어느 사이 연혁소개실을 그냥 지나쳐가신것이었다.

발을 동동 구르고싶은 안타까움에 몸이 좋아드는것 같았다. 따져보면 달릴필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근에만도 광산을 소개하는 록화자료를 두차례나 보아주셨다는것을 수연은 잘 알고있었다. 그러니 구래여 사전료해를 위한 해설을 들으실 필요가 어데 있으랴.

《수연아, 너 왜 그러고있니? 어서 채굴장에 달려가 장군님을 뵈옵지 않고, 응?》

마음속의 누군가가 초조한 속삭임으로 그를 끊임없이 보냈다. 그러나 수연은 입술만 피나게 짹 짹 물었울뿐 움직일념을 낼수 없었다. 수연이야말로 이름그대로 한마리의 고운 소리개가 되어 광산구내길에 계시는 아버지장군님의 길안내로 뿔뿔것을 치고싶은 타는듯 한 심정이였다. 방금 출근길에 오른 광부들의 열광적인 만세소리에 누구보다 아름답고 청고운 우짚음을 합쳐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리고싶었고 그이께서 지나가시는 앞길에 자그마한 돌멩이라도 있을세라 깃으로 정히 쓸어드리고싶었으며 누구보다 앞서 광산의 자랑을 또랑 또랑 아뢰여드리고싶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장군님께서 되돌아오신다면?!...

그의 애절한 기대가 가닿은듯 갑자기 대기실의 전화기가 자지러지게 울었다. 수연은 바람처럼 내달아가 송수화기를 덮쳐잡았다.

《예, 채수연이 전화받습니다.》

《교환입니다.》 수화기로는 야무진 여자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감도시험중인데 청상이구만요. 됐습니다!》

교환수가 통화를 끝내려 한다는것을 안 수연은 덤벼치며 말꼬리를 붙잡았다.

《가만, 가만! 무슨 새 소식 없어? 어서 대주렴. 응?》

《아이, 저도... 자리를 뜰수 없는 몸이니 그저 속상하기만 하합니다.》

수연은 아쉬운대로 송수화기를 놓지 않을수 없었다.

후에 들은데 의하면 그 시각 장군님께서서는 채굴장에 들리시여 수십년전 아버지수령님과 함께 오셨던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계셨다고 한다. 그리고는 굴진공들이며 굴착기, 자동차운전사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일일이 답례를 보내주셨는데 지배인은 뒤늦게야 소갱속에서 뛰쳐나와 막 어푸러질듯 장군님께로 달려갔다는것이였다. 그때 지배인이 장군님께 인사를 올리며 첫마디부터 터뜨렸다는 흐느낌이 수연의 가슴을 쳤다.

《장군님! 장군님께서 이렇게 오실줄은... 이 먼 험지에까지 끝내 와주실줄은...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꼭 이러시여야 합니까? 저 솔매령이 어떤데라고...》

장군님께서서는 돌가루물은 지배인의 어깨를 다정히 잡아주시며 고마운것은 자신이라고, 광산을 이렇게 새 세기의 요구대로 손색없이 꾸리느라 고생 많았을 동무들을 이렇게 와서 만나보지 못했다면 자신께서 그야말로 한이 되었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다는것이였다.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갔다. 벌써 연두봉마루에 고개를 내민 태양이 광산지구를 눈부신 해살로 뒤덮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쟁하니 얼어붙은 서리 찬 날씨는 전혀 풀릴념을 앓고있었다.

차츰 수연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옥죄여들기 시작했다. 장군님께서 채굴장에서 오래동안 광산의 생산전망을 구체적으로 의논해주셨는지 시간이 꽤 흐른 때에야 새로 일떠세운 1차파쇄장쪽에서 또 환호소리가 울려온 것이었다. 평하 30도 아래인 몹시 추운 박이었다. 틀림없이 그이께서는 그곳에서도 아름답는 거석들이 순간에 콩자갈로 부서져 장거리벨트콘베아에 실려가는 정경을 보시며 파쇄기성능을 하나하나 료해하실 것이다. 그렇게 장시간 한지에 계시자니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추우실가. 발은 또 얼마나 시리시고!...

광산에 대한 장군님의 현지도도는 여전히 끝날 줄을 몰랐다. 역시 후에야 알았지만 그때 장군님께서서는 편이어 선광장을 돌아보고계시었다. 그곳에서 그이께서는 광산의 모든 생산공정이 컴퓨터에 의한 감시 및 지령체제로 움직이는데 대하여 몹시 만족해하시면서 보다 큰 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해 한창 기대증설작업을 하는 어지러운 마광장도 허물치 않고 들리시어 지배인을 크게 칭찬해주시었다.

《뭘가 죄송스럽다는거요? 난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오. 바로 이런 부단한 갱신, 끊임없는 도약이 선군의 요구요. 난 한번 거둔 성과에 도취되어 만세나 부르는 일군은 믿지 않소. 동무같은 혁신적인 일군이 애국자요. 선군시대의 진짜배기 애국자!》

그 자리에 수연이도 있었더라면 분에 넘친 그 평가에 왈칵 눈물을 쏟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수연의 가슴은 뽕뽕 얼었을 장군님의 발에 대한 걱정으로 한줌만큼 졸아들어있었을 뿐이었다.

드디어 광산마을입구의 대도로에 승용차들이 나타났다. 무려 두시간만이였다. 승용차들은 곧추 연혁소개실이 자리잡은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수연은 심장이 터져나갈것 같았다. 마침내 때가 온 것이었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너무도 격동적인, 하여 극도의 환희에 숨마져 멎을것 같은!

아차, 인사말!... 편뜩 정신을 차린 수연은 급급히 자기의 옷차림을 훑어보는 한편 장군님께 올릴 인사말을 곱씹어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미 수백번은 더 외워보았던 문구들은 전혀 떠오르지 않고 승용차행렬뒤에서 타래쳐오르는 하얀 눈가루만 땅막을 짹 채우는 것이었다. 첫 출발부터 높은 속도를 내고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왜서인지 속이 찢찢 찢찢해났다.

갈길 바쁘고 할일 많은 장군님이시니 분초를 쪼개쓰지 않으실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이곳에 들려 잠시 발이야 녹이실수 있지 않을까. 이제 또 먼 먼 길을 가셔야 할텐데!

다음순간... 수연은 심장이 똑 멎는듯 했다. 어느 사이 코앞까지 미끄러져온 앞차가 솔매령쪽을

향하여 거침없이 휙 지나친 것이었다. 그다음 두번째 승용차, 세번째...

수연은 현판의 나들문손잡이를 짹 움켜잡은채 그만 눈을 감아버렸다. 격심한 어지럼증으로 금시 쓰러질것만 같았다. 아아, 얼마나 어리석고 무엄한 욕심을 부렸던 것이랴. 까마득한 옛시절의 쪼꼬만 강아지완구에 대한 추억을 우리 장군님의 막중한 사업부담속에 덧없어드리려고 한 자기는!

《장군님! 부디... 부디...》

수연의 인사말은 억누른 흐느낌속에 찾아들었다.

## 5

줄수 있는것은 다 주느라 하셨다. 광부들의 헌신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도, 그네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축복과 보다 휘황한 래일의 전망도, 지어 멋진 살림집들을 향기 진동하는 과일꽃들로 단장시켜줄 약속도!... 그럼에도 김정일동지께서는 웅이같이 뻗혀지는 허우룩한 기분을 종시 털어버릴수 없으시었다.

광산마을의 눈물겨운 환호를 뒤에 남기고 승용차는 살같이 달리고있었다. 이제 떠나면 언제 다시 찾으실지 알수 없는 광산, 하지만 앞길에 쌓여있는 일감들은 순간도 지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저 광부들을 위해 더 해줄수 있는 일들을 못하신타 한 아쉬움에 마음이 무거울뿐이었다.

갑자기 그이께서는 시창박을 피곳 스치는 한 건물을 띠여보시었다. 정갈한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 이마에 《연혁소개실》이라는 금빛간판이 빛나고있었다.

어떤 룽감이 그이의 뇌리에 번개쳤다. 그이께서는 얼른 한손을 쳐드시었다.

《가만, 차를 좀 세우오!》

김정일동지께서 차에서 내리시자 배웅해드리려고 뒤따르던 림성옥지배인의 차가 멎고 그가 다급히 달려왔다. 그이께서는 초조히 시계를 들여다보는 류기철쪽에 량해를 구하는 시선을 보내신 다음 림성옥에게 말씀하시었다.

《동무 욕심은 내가 여기에도 들러봤으면 하는 거겠지. 아까부터 몸을 녹이고 떠나라고 사정했으니까. 안내하오!》

《정말이십니까?!》

장골의 림성옥은 입이 귀밑까지 찢져 어린애처럼 경충경충 현판안에 뛰어들었다. 그러자 즉시 속눈썹이 축축히 젖은 한 녀인이 달려나와 허리 깊숙이 절을 올리며 목멘 속삭임을 터뜨렸다.

《장군님! 광산방송선전차 방송원 채수연...》

김정일동지께서는 답례를 하시다말고 유심히 녀인을 굽어보시었다. 처녀처럼 호리호리한 몸매에 쌍꺼풀이 깊은 큰눈을 가진 40대 녀인이었다. 그

용모나 목소리가 낮익어서는 아니었다. 채수연이라는 그 희성이 부지중 아득한 옛 추억속의 그 산골농민을 떠올리신때문이었다. 정말 그날의 손녀라면 이 나이쯤 되지 않았을까?

럼성옥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정면홀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은근한 조명속에서 환히 웃고계시는, 수십년전 연하파의 탐사현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대형영상사진앞에 마주서시었다. 이미 채굴장에 건립한 대형모자이크벽화를 통하여 만나보신 수령님의 모습이었었다.

그앞에 숨엄히 서계시느라니 수령님의 자애깊은 음성이 금시 들려오는듯싶으시었다.

《난 가을비를 좀 맞았을뿐인데 저 깊은 빙천설지를 고생스레 왔구만. 아무쪼록 건강에 주의해주오!》

《수령님!》 하고 그이께서는 마음속으로 뜨겁게 뇌이시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음이야 제겐 타고난것이 아닙니까. 넘려하지 말아주십시오!》

...

이윽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 광산의 연혁사를 보여주는 직관판들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살펴나가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 한 방에서 우뚝 멎어서시었다.

《광산이 잊지 못해하는 오랜 공로자들》

제목이 대뜸 눈을 끌었다. 그이의 시선이 재빨리 수많은 사진들을 더듬어나갔다.

마침내 허연 수염발을 드리우고 주글주글한 주름이 온 얼굴에 얹혀있으나 눈만은 총기있게, 근엄하게 빛나는 한 로인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어딘가 무척 낮익어보였다. 또다시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는 룡감, 급히 이름을 더듬으시니 아닐세라 《공훈광부 채준보동지》라고 써여있었다. 그러자 《압니다. 잘 알다마다요!》 하던 흥에 겨운 목소리가 수십년세월을 거슬러 귀전에 쟁쟁메아리쳐왔다.

결코 기대가 헛된것은 아니었다. 그렇다, 어찌 달리될수 있으랴. 북방의 저 토배기농민이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은 후 자기의 삶을 광산과 굳게 결부시킨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렇게 믿지 않으셨다면 지금껏 야릇한 초조감마저 느끼며 이 상봉을 고대하지도 않으셨을것이다.

《공훈광부라... 채로인은 이 광산개발에도 공로가 있는분ियो. 그를 만나본지가 이제 수십년이 넘었구만.》

김정일동지께서는 감회가 깊으시여 젖어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순간 등뒤에서 숨죽인 흐느낌이 터졌다.

놀래여 돌아서신 그이께서는 방송원녀인이 두손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세차게 들먹이는것을 보시었다. 한순간에 모든것이 깨달아지시었다.

《그러니 동무가... 그때의 그 손녀였던 말이지?》

목이 잡겨 겨우 말씀을 번지시는데 녀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온통 눈물범벅이었다.

《아버지장군님!》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이 뭉클해지시었다.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것인가. 예상밖의 이런 상봉으로 혈연의 한량없는 기쁨을 선물해주는 우리의 생활은!

녀인의 눈에서는 여전히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그이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때에도 몹시 울었었는데 자신을 보자 제격 울음을 그쳤지. 그것이 기특하여 무엇인가를 쥐여주었었는데... 그것만은 도무지 기억나지 않으시었다.

《허허... 알아볼리 없지.》 김정일동지께서는 녀인을 진정시키려고 짐짓 현현하게 웃으시었다.

《동무를 얼리느라고 할아버지랑 되게 땀빼던 모습이 기억나오. 도무지 얼려내지 못하더라니까.》

《아닙니다. 장군님!》

예상대로 이야기에 끌려든 녀인이 질게 흥조여린 얼굴을 빠끔히 쳐들었다. 그다음 사진소개판밑에 진렬된 크지 않은 유리함을 가리켜드리며 수집게 속삭였다.

《그때 전 장군님을 뵈옵자마자 울음을 딱 그쳤답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선 용타면서 저 강아지완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가 늘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무등 놀라시는 한편 저으기 호기심도 동하여 유리함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시었다. 아닌게아니라 귀박죽을 늘어뜨린 아주 귀여운 연밤빛강아지가 오탁하니 앉아 그이를 말끄러미 올려다보고있었다.

기억은 그 순간에 떠오르시었다. 그랬었다.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먼 북방으로 떠나시던 그날 아침, 승용차에 오르시니 앞시창밑에 난데없는 강아지완구가 당돌하게 올라앉아있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운전사가 차안을 좀 이채롭게 꾸며보려고 구해들인 장식품이려니 여기고 모르는체 해버리시었다. 젊은 운전사의 취미에까지 간섭할 생각은 없으시었다.

일은 랑림산줄기의 울퉁불퉁한 령길에 잡아들자 벌어졌다. 차속도가 눈에 띄게 죽기 시작한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아직도 갈길이 먼것을 고려하여 질책조로 속도를 높이라고 이르시었다. 그런데 운전사가 그날은 이상했다. 가속답판을 좀 밟는척 하다가는 몇분도 못되어 도루메기가 되곤 했던것이였다. 끝내 참으실수 없어 자신께서 운전하겠으니 자리를 내라고 하시자 운전사는 울먹해서 대답올렸다.

《자꾸 이러시면 전... 어찌해야 합니까? 오죽했

으면 일꾼들이 이 완구까지 구해주며 강아지가 고개를 까딱거리기 시작할 땐 길이 험하거나 파속한다는 경고이니 즉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오금박았겠습니까. **김정일** 동지의 신변 안전을 위해선 운전사로서 권리를 행사해도 무방하다면서 딸입니다!》

여거보시니 강아지완구는 정말 차의 약간한 진동에도 고개를 흔들거리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때 자신을 위해주는 동지들의 각별한 념려에 가슴이 후터워울랐지만 운전사를 엄하게 꾸중하시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어떤 험난한 길을 헤쳐가시는지 동문 모르오? 내 시간을 빼앗으려거든 당장 차에서 내리오!》

달리할수 없는 그이이시였다. 이미 수령님의 로고의 길을 자신께서 대신 떠맡아 힘껏, 쉬임없이 내달리기로 결심하신 이상 《편안히》라는 개념은 영영 머리속에서 추방하셔야 했다.

모름지기 그 결심때문에 어떤 안전을 호소하는 듯 한 이 강아지완구도 기억속에서 사라져버렸던 모양이였다.

《별치도 않은 놀이감을 여태 건사하다니, 동무 할아버지도 참...》

그이께서 갈리신 음성으로 나직이 뇌이자 녀인은 황황히 도리질해보였다.

《장군님, 저의 할아버진 생전에 늘 말씀했습니다. 이젠 그저 놀이감이 아니라 장군님께서 혈연을 맺어주신 정이라고 말합니다.》

《생전에》!... 이미 채로인이 사망하였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계셨으나 그이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시였다. 절로 피로운 질문이 나가시였다.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소?》

《장군님.》 하고 럽성옥지배인이 말씀올렸다.

《채로인은 지난해 가을 96살로... 로인님은 마지막까지 제손으로 돼지를 길러 광산의 생산능력확장공사장에 지원하였습니다.》

《음-》

**김정일** 동지께서는 두눈을 짝 감으시였다. 심장이 아픔으로 저려들었다. 자신께서 그리도 못 잊어 연하광산을 찾으신것은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소중히 새겨져있는 땅이었기때문이였다. 그 땅을 심장으로 받아들여올려 자신께서 강성대국의 그날에 펼쳐려 한 선군선경을 오늘에 벌써 안아온 귀중한 광부들의 위훈과 행복을 축복해주고싶으시였기때문이였다. 바로 그속에 오래전 잠간 인연을 맺으시였던 저 채준보로인과의 상봉도 포함되어있지 않았던가. 광산의 어제와 오늘의 증전자, 그래서 더더욱 친밀하게 새겨져있던 저 로인과의 뜻깊은 상봉도!

그러나 자신의 걸음이 그만 늦어졌다. 정을 나누고 조언을 듣고 사랑을 주셔야 할 이 나라 방

방곡곡의 수많은 못 잇을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께 아픔을 남기며 떠나가고있을지 모른다.

어찌 그뿐이라. 초소마다에는 자신을 아버지로 받들고 따르는 병사들이 까치만 울어도 가슴을 령이며 평양하늘을 우러르고있으며 소년궁전무대에서는 이 땅의 꼬마재간둥이들이 자신께 춤노래를 보여드리고싶어 이 시각도 발을 동동 구르고있다. 이틀전 장강군에서 새로 사귄 토끼기르기명수며 지난해의 《삼복철강행군》 길에서 통성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노동자들, 모범농장원들... 한번 정을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 자신께서는 더더욱 걸음을 재촉하지 않으면 안된다. 밤잠을 더 줄여 열흘, 백날일을 하루에, 한시간에 해제끼시면서 자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인민을 찾고 또 찾아 정을 더 두터이 하고 새 정도 맺으시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령도자로서의 자신의, 또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어쩔수 없는 고귀하고도 행복한 락인것이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강아지완구를 다시 바라보시였다. 지금껏 감감 잊고계셨던, 또 잊어야만 한다고 여기셨던 완구였다. 그러나 이제는 뇌리에 깊이 새겨두셔야 했다. 자신을 그리워하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마음의 상징이기에, 그것을 폐부에 새기고 그 인민을 끝없이 찾고찾으셔야 하기에!

《채수연이라고 했지.》 하고 그이께서는 녀인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였다. 《전에는 강아지완구라도 있었는데 오늘은 뭐 줄것이 아무것도 없구만. 우리 할아버지의 사진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이라도 찍는게 어떻소?》

녀인의 큰눈이 무한한 행복감으로 어글어글 불타올랐다. 그가 소녀같이 탄성을 울리며 부르짖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제겐 그이상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야 할아버지앞에 내 마음도 가벼워질것 같소.》

채수연을 친딸처럼 가까이 세우고 사진을 찍으신 그이께서는 마감으로 2층전망실에 오르시였다. 전망실의 넓고 시원한 창문을 통하여 한쪽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광산전경이 한눈에 안겨왔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윽히 그 전경을 부감하시다가 럽성옥지배인에게 말씀하시였다.

《얼마나 좋소. 오랜 조상때부터 나라의 한 북방보루였던 연하땅이 오늘은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의 굳건한 한 초소로 다져져 흥하고있소. 그럴수록 이 땅을 보배로 안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을 잊지 말고 채준보로인같은 전세대들의 뜻과 념원도 잊지 말아야 하오!》

떠나실 시간은 거듭거듭 지연되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이제 또 전연의 초소들과 공장지구며 농어촌, 과학도시... 조국의 무수한 고장들을 찾으셔야 했다. 그러나 발길은 쉬이 떼여지지 않았다.

## 한없이 고결한 전사의 자세

새 조국 건설의 나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산 모범을 보여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그중에는 김정숙동지께서 청진에서 새길신문사(당시) 기자들을 만나주시던 때의 이야기도 있다.

주체34(1945)년 11월 어느날이었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기자들과 다정히 인사를 나누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힘을 합쳐 일을 잘해보자고 그들을 고무격려해주시었다.

피어린 항일의 나날 강도 일제를 쳐물리치는 전장에서 백두산녀장군으로 명성을 떨치시던 김정숙동지를 뵈고싶어하던 소원이 성취된 기자들의 마음은 끝없이 설레이었다.

흥분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며 기자들은 첫순간부터 김정숙동지의 인품에 완전히 매혹되었다.

이때 한 기자가 그이께 자기들은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싸우신 녀사의 위훈담을 인민들에게 알려주고싶어 찾아왔다고 말씀드리었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나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고, 장군님께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신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이윽고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겨보시는듯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혁명사에 빛나는 수령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으로 일관된 이야기에 시간가는줄 모르고있던 한 기자가

김정숙녀사의 투쟁내용을 듣고싶다고 다시금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신문에는 마땅히 **김일성**장군님에 대하여 써야 한다고 하시며 전사의 일생은 수령의 력사속에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기자들은 그이의 말씀에 북받쳐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기자들은 김정숙동지께 언제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는가, 조선인민혁명군에는 언제 입대하셨는가, 어떤 전투에 참가하셨는가 하는것을 연방 문의하였다.

기자들의 질문에 짙막한 대답을 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의 나날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 건설위업을 높이 받들어나가실 자신의 결심을 더욱 굳히시었다.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기자들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앞으로 신문에 **김일성**장군님의 로선과 방침을 잘 해설하여 대중을 새 조국 건설으로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이날 기자들은 장군님에 대한 고결한 충정을 천품으로 지니신 김정숙동지의 위인적 품모에 깊이 머리를 숙이었다.

전사의 일생은 수령의 력사속에 있다!

새 조국 건설의 나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남기신 이 뜻깊은 말씀은 강성대국건설대전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혁명가의 한생은 오직 수령의 품속에서만 빛난다는 고귀한 철의 진리를 깊이 심어주며 그들을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애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림 정 호

이제 떠나시면 또 한이 되지 않을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더이상 지체할수 없어 럽성옥과 채수연에게 손을 들어보이시었다.

《잘 있소. 지배인동무, 채수연동무! 그러나...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꼭 다시 오겠소, 평산이 사과도시, 복숭아도시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울 때!》

그저 위안을 주는 말씀이 아니시었다. 멀리 떨어져있다가도 마음이 자꾸 끌려 다시 오지 않고는 못 배겨내시리라는것을 그이께서는 잘 알고계시었

다. 그때에는 나라의 북방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이 초소가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더 굳건히 변모되리라는것을 그이께서는 굳게 믿으시었다.

차에 오르실 때 **김정일**동지께서는 류기철이 럽성옥지배인에게 목매여 속삭이는 말을 들으시었다.

《누가 우리 장군님을 만류해낸단 말이요? 어떻게?... 그이께선 어디든 정에 끌려 가시는거요. 그리움에 못 견디시여! 그전... 너무도 큰 사랑이지!》

# 묘향산에 오신 날에 외 1편

한 원 희

백과 주렁진 과원과도 같이  
이른새벽 타오르는 금노을과도 같이  
봉이마다 붉게 타는 단풍을 안고  
우리 장군님 마중하였네  
묘향산 내 나라의 묘향산

하늘의 별무리 다 모아 쏟아내듯  
이 세상 고운 비단 다 풀어내리듯  
쉬임없이 황홀경을 펼치는  
이끌저끌 폭포를 다 안고  
우리 장군님을 마중하였네  
묘향산 내 조국의 묘향산

새로 닦은 관광도로  
반공중의 무지개 타고오시듯  
선녀들이 내리는 하늘길 걸으시듯  
희한히도 뻗어오른 등산길로  
우리 장군님 오시였네

이제는 우리 인민들이  
묘향산의 절경을 다 볼수 있게 되었다고  
한생의 소원을 다 푸시듯  
만가지 아름다움이 더더욱 눈부시도록  
햇빛같이, 해빛같이 뿌리시는 그 미소

그 미소 그 사랑 그지없는 그 은정  
이선남폭포의 옥구슬로 쏟아져내리는가  
향산천의 진주구슬로 흘러흘러  
못 잊어 못 잊을 추억을 불러내는가

떠오르네  
떠올라 눈앞에 어려오네  
이 땅에 명산중의 명산이 있다 해도

인민이 볼수 없다면 무엇하랴  
천험을 안고 지고 벼랑길을 넘고넘어  
등산길 열어가시던 장군님 모습

들려오네  
들려와 가슴을 치네  
앞을 막아서는 바위들, 가시덤불들  
한치한치 헤치시며 하시던 말씀  
우리가 열어놓은 이 길로  
우리 인민들이 오른다고  
일군들을 손잡아 이끌었던 그 음성

오늘은 그 길을 따라  
노래속에 웃음속에 차를 타고 오르는  
젊은이 늙은이 어린 아이 남녀로소들  
온 나라 인민이 선남선녀가 되어  
천하절경을 마음껏 즐기는 이 기쁨

그것이 보고싶으시여  
우리 장군님 오시였네  
자신의 천만고생이  
인민의 천만행복으로 높이 솟은 묘향산  
그것이 자신의 더없는 락이 되신듯  
머나먼 전선길을 이어오셨네

아, 묘향산!  
내 나라 내 조국의 묘향산!  
천가지만가지 인민을 위하시는 그 마음  
우리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에 만발하는  
그 억만가지 아름다움이 비껴  
그 억만가지 절경을 펼치누나  
천하제일 장군님을 모시여  
천하제일명산으로 온 세상에 빛나누나!

## 내 눈에도 눈물이

예로부터 천하절경앞에서  
너무나 놀라워 경탄을 금치 못해도  
뜨거운 눈물 흘렸다는이  
아직 보지도 듣지도 못했더니

내 오늘은 보누나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묘향산을 돌아보는 사람들  
그리고 내 눈에도 절로 솟는 눈물

보고보아도 또 보고싶은 절경마다에  
우리 장군님사랑이 어려있음이라

찾아왔다가 발걸음 차마 못 떼는  
황홀경마다에 신비경마다에  
가슴치는 은정이 깃들어있음이라

웅장하고도 기묘한 바위들  
아스라한 절벽들, 절묘한 바위들  
어서 오라 유람객들을 부르듯  
울림소리도 유정한 폭포들  
계곡마다 봉이마다 눈부신 단풍들

묘향산의 명승경을 다 보려고  
단숨을 몰아쉬며 하루길

바위아래 자고 깨며 사흘길  
힘이 진해 오르던 험한 등산길은  
그 어디

우리 인민이 흘러야 할 땀을  
자신의 한몸에 다 흘리시며  
장군님 열어가시던 그 로고  
꿈같이 뻗어오른 포장길에 어려있네  
신선처럼 선녀처럼 사람들 노니는

하늘중천 립체다리에 비껴있네

내 한없는 감격에 목메여 고백하네  
자연이 준 천하절경만이라면  
내 눈물이야 어이 보일가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그 은정  
우리 장군님의 인간미가 아름다워  
뜨거운 눈물이 저절로 솟음이라!

## 묘향산우에 묘향산

김 성 철

휘둘러 오른 새 등산도로 따라  
쳐너돌격대원 너와 함께 한굽이 또 한굽이...  
내 벌써 몇번 물어도 하냥 입만 방싯  
맨 몸으로도 올라가기 힘든 길  
어떻게 하루 스물세번 등집지고 올랐느냐

강선대, 삼경터 지나 이선남폭포 이르러  
반갑구나 가까스로 떼는 너의 한마디—  
한치 옆은 낭떠러지  
발끝만 보며 툭아오른 아찔한 벼랑길도  
너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  
천험의 숲 헤치며 개척의 길 열어가신  
우리 장군님 탐승의 그 자욱따라 올랐을뿐이라  
누나

피약별아래 최전연초소와 초소  
불길 뜨거운 구내와 구내  
그늘밑에 행복이 없다하시며  
무더위 헤쳐가시는 장군님 강행군 발자욱소리  
너를 손잡아 당겨주지 않으셨더라면  
그 혼석집 나를수 없었을거라니  
그날에 흘린 네 숨결담아 산향기 이리도 짙은가

모래와 자갈 세멘트만 짙어졌다면

단 한번도 오르기 힘든 길  
장군님께 드릴 기쁨 등에 젖기에  
인민위한 장군님소원 등에 없었기에  
나래단듯 펄펄 오르던 그날의 모습  
저 하비로암도 새겨안고 숨쉬는것 같구나  
기기묘묘 련봉들 뛰는것도 같고 나는것도 같구나

수고많은 정말 수고많은 너를 축복하는듯  
환희넘쳐 뿌려라 단풍잎 붉은 단풍잎  
비로봉 앞에 두고 우리 무릉폭포 오르는데  
아슬한 골짜기 벽계수는 쉬이 못 내려 여울  
치누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바위 하나 상할세라  
희한한 하늘길 심장으로 떠올린  
오, 애국충정 그 마음에 목메여 목메여...

내 이제는 마음의 벼삼은 너를 노래하고싶구나  
예로부터 일러오는 이 명산도 더 아름다워졌구나  
따로따로 보아오던 일만명소  
한눈에 한꺼번에 다 부감토록  
하늘가에 날아오른 등산도로—  
세상에 둘도 없는 새 절경 펼쳐올린  
너의 돌격대원들, 선군조국 선남선녀들 그 모습  
아 천하절승 묘향산우에 또 하나의 묘향산은 아  
니나

### 경구, 격언

- 진리는 각종 의견들의 충돌속에서 나온것이다
- 진리는 궤변들가운데 포위되어있어도 쓰레기속에 파묻혀있는 금강석처럼 빛을 뿌린다
- 진리는 시간의 산물이지 권세의 산물이 아니다
- 진리는 통행증이 없어도 국경을 넘나든다
- 진리는 횡방을 당할수 있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 진리는 언제나 사물의 가장 깊은 곳에 간직

되어있다

- 진리를 굳건히 지키는 사람은 단두대에 서서도 자기의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
-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가끔 공격을 당한다
- 진리는 입이 무겁고 거짓은 다사스럽다
- 모든것은 없어지나 진리만은 남는다
- 정당한 주장에는 앞길이 트인다
- 깊이 생각하는것은 결코 일을 지연시키는것이 아니다



# 회령의 불타는 아침은 강성대국의 찬란한 노을

—시초 《회령의 불타는 아침》에 대하여—

김 순 립

시초의 본래는 일정한 기간 하나의 시적대상에 침투하여 창작한 시들가운데서 뽑아서 묶은것이다.

보통 시초는 한 시인이 자기가 체험한 같은 대상의 생활속에서 쓴것을 뽑아서 묶는것이 상례이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여러 시인이 쓴 시를 묶어서 시초로 되어 나오는것이 많다.

이것은 위대한 현실로 들끓고있는 우리의 생활을 각이한 개성을 가진 시인들의 심장의 울림이 모아진것으로 하여 시적대상은 하나이지만 그 정서적감화력은 매우 다양하고 큰것이다.

시초 《회령의 불타는 아침》은 이러한 류형의 시초로서 매우 긍정적시사를 주는 성과작이다.

서시와 6편의 시로 묶은 시초 《회령의 불타는 아침》의 총적인 사상정서적주장은 회령의 불타는 아침은 강성대국의 찬란한 노을로 빛난다는것이다.

시초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 서거 60돐에 즈음하여 회령의 불타는 아침이라는 상징적인 화폭에서 발산하는 다채롭고 뜨거운 서정을 찾아 노래한것으로 하여 더 감동깊고 뜨거우면서도, 눈물겨운 정서로 일관되면서도 시형상전반이 밝고 량만적으로 채색되고있는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있다.

이 서정의 비결은 어머님의 숭고한 뜻이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이 땅우에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시대의 정서에서 사상을 펼쳤기 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상을 줄수 있는 개성적인 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 시대와 사회의 본질을 생동하고 감명깊게 드러내야 한다.》

시에서 시대와 생활의 본질을 나타내는 정서는 개성적인것을 통하여 드러난다.

시초 《회령의 불타는 아침》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늘도 산천도 어머님을 불러 목메이던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그리움의 세월이 흘러 장장 60년이라는 그 아침에, 우리 장군님 찾으신 회령길의 그 아침에 서정을 펼치고있다.

시초는 전반부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회령땅을 찾으신 그 력사의 자욱에 사색을 기울이는 시인들의 개성적인 목소리로 되어있다면 후반부에서는 어머님의 념원을 꽃피워 강성대국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의 로고와 주체101(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기어이 달고야말리라는 시대와 력사의 확신과 신념으로 더 뜨겁게 승화되어 조화로운 서정미를 구현하고있다.

시 《아침!》(리창식 작), 《력사의 프락》(문용철 작), 《빨찌산녀장군앞에》(한광춘 작)가 전자에 속한다면 시 《기나긴 세월속의 반나절》(정동찬 작), 《가자, 조선아!》(박현철 작)는 후자의 경우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서정의 화폭속에 《아, 그날의 눈송이》(렴형미 작)는 우리 어머님 것처럼 바라시던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신 우리 장군님의 회령길이여서 밝은 웃음 지으시며 그 자욱마다 하늘가득 뿌리신 어머님의 마음의 꽃잎으로 새겨져 시초의 감미로운 정서를 한껏 복돋아주고있다.

시초 《회령의 불타는 아침》에 대한 이러한 일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매 시편들을 음미해보기로 하자.

시 《아침!》은 강성번영의 찬란한 아침을 안으시고 회령땅에 들어서신 우리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을 노래하였다. 시는 어머님과 장군님의 사이를 혈연적관계로 관통시켜 시를 소박하고 깨끗한 진심의 노래로, 친근하고 뜨거운 심장의 노래로 울려오게 하고있다.

산천이 기다리고 해와 달이 기다려온 력사의 그 시각은 동트는 아침이었다. 흘러간 예순해 쌓이고 쌓여온 어머님생각, 얼마나 그림고 찾고싶은 고향집이런가. 어머님에 대한 뜨거운 추억을 회령길 굽이굽이에 엮으시며, 추억의 침묵을 넘고넘으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타신 열차는 목이 메어 기적소리를 올린다. 시는 추억을 더듬으며 감각적이고 표상적인 생활세부로 노래함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하고 자애로운 모습을 목메이게 체험하게 하고있다.

우리 어머님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에 종지부를 찍고 아름다운 삼천리강산, 사랑하는 고향땅에 행복의 새봄을 기어이 안아와야 하겠기에 종달바구니를 총대로 바꾸어 잡으시고 빨찌산투사가 되시였다.

어머님께서 고향을 위해, 조국을 위해 혁명을 해야 한다는 **김일성**장군님의 고귀한 가르치심에서 고향과 혁명, 조국과 총대의 필연적관계를 빼에 사무치게 새겨안으시고 설한풍이 휩쓰는 험한 산

중에 결심품고 싸워가는 우리 혁명군이라는 결사의 노래를 부르시며 헤쳐오신 눈보라길은 그 얼마이던가, 오산덕에 백살구꽃 만발할적에 장군님을 모시고서 우리 가리라고 백번, 천번 다잡하시며 헤쳐오신 혈전의 그 길은 몇천몇만리이던가. 그처럼 가보고 싶으셨던 고향이었다. 허나 어머니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에서조차 고향길에 오르지 못하시었다. 총대로 찾은 조국이 너무도 소중하시었기에, 그 조국땅우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수천수만의 고향땅들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하겠기에 그리운 고향 회령을 지척에 두고도 들리지 못하신 어머니이다.

시는 조국을 우뚝 일떠세우는 그 길이 사랑하는 고향으로 가는 길이기에 김정숙어머니 발이 붓도록 조국땅 방방곡곡을 찾으시며 꿈속에서도 조용히 밟아보시던 이 길, 이 길을 가슴에 안고 세월의 언덕을 넘어오신 우리 장군님의 내면심리세계를 잘 파고들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회령땅의 크나큰 경사를 노래하며 시인은 이렇게 흠뻑 서정을 더친다.

《강성대국을 향해/네굽을 안고 달리는 통마마냥/그이 타신 렬차는/어머님의 념원 누리에 불타는/새날의 아침을 이끌고/질풍같이 달려왔》다고

번영의 새아침을 가슴벅차게 맞이한 회령, 강선의 붉은 노을이 회령하늘을 뒤덮고 기적의 만년언제들에 사품치며 일어번지던 장쾌한 물안개가 회령산천을 휩싸안았다고 시인은 뜨겁게 노래하였다.

참으로 시는 소박하고 진실한 생활적인 언어로 선군시대의 사상감정을 뜨겁게 노래한 우리 시대의 찬가이다.

시는 시인의 개성적인 체험세계를 뜨겁게 노래하여야 한다. 시의 서정은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을 직접 개방한 주장이므로 시인의 체험에 의하여 개성화된다. 시인의 개성적체험을 뚜렷이 살리는 여기에 시대정신을 서정화하는 방도가 있다.

시 《력사의 프락》은 어머니앞에, 고향집앞에 위대한 장군의 모습으로 나서신 민족의 영웅을 노래하였다.

시인은 《세월의 그리움을 푼 그날은》 《온 나라가 회령집프락》이고 《감격에 울며 웃던 이 땅의 천만식솔들은/장군의 그 품에 얼싸안긴/회령집혈육이었다》는 시적발견을 하였다.

해방의 기쁨 넘치던 그 아침 나라를 찾아안고 돌아온 위대한 아들을 맞던 만경대고향집의 그 감격, 그 기쁨인듯 환희의 물결은 이 프락너머 온 나라 강산에 파도쳐흘렀다.

해빛넘친 고향집 주너너머 만복이 꽃피어 무르익는 땅, 어머니께서 유년시절 자주 오르시여 고향땅을 굽어보곤 하시던 오산덕마루에 서면 회한하게 전번된 회령시의 전경이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온다. 그 옛날 오막살이촌이었던 여기에 몇들어진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공장의 현대

적인 설비들에서는 제품이 짹짹 쏟아져나온다. 푸른 추녀를 번듯하게 처든 국수집은 인민들로 흥성이고 근로자들과 아이들은 학교와 도서관들에서 마음껏 배움의 노래를 펼쳐가고있다. 어머니의 그 념원이 비긴 회령산원이 여기에 있고 어머니의 숭고한 뜻을 전하며 온정어린 컴퓨터들로 최첨단시대의 령마루를 설계해나가는 앞날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믿음직하게 자라고있다. ...

인민의 공장, 인민의 문화생활기지, 인민의 집들에서 끝없이 울려나오는 인민의 웃음소리, 인민의 행복이 커가는 소리가 들려온다. 푸른 하늘 아득히 위성이 날고 자주의 총대에 섬팡이 빛발치는 무적의 나라, 장군의 나라를 궁지롭게 노래하며 반만년민족의 숙원, 력사의 위업을 펼치시고 어머니앞에, 고향집앞에 나서신 우리 장군님을 노래하였다.

...

오, 력사의 그날

푸른 하늘 저 멀리 울리는

강성대국의 장쾌한 봄우뢰소리

어머님의 평생념원이 실린 그 우뢰소리는

고향집추녀를 조용히 흔들었다

시는 사색의 힘과 여운을 가진 시로 되었으며 사상정서적내용에서도 매우 심오하고 웅심깊고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시 《빨찌산녀장군앞에》는 어머니의 한생의 자욱자욱을 밟아보시며 어머니의 숨결소리, 그 미소를 더듬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내적심리체험세계를 노래하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어머니의 한생의 자욱자욱을 밟아보시고 또 밟아보신다. 그이 심중에 우렷이 솟아오르던 오산덕, 백살구나루아래에 뽕족뽕족 돌아나오는 산나물을 보니 종달바구니를 안고 해종일 오산덕을 오르내리시던 어머니의 자그마한 짚신자욱이 눈앞에 선히 밟혀온다. 작은 종달바구니조차 채워주지 못하던 그때 우리 어머니의 가슴속에서만은 박달처럼 뿌리내린 오늘이 간직되어있었다. 이것은 이 시의 시적세부이다.

백살구꽃처럼 아름다운 세계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떨기떨기 백살구꽃이 그대로 행복의 웃음꽃이 될 그날을 바라보시었다. 망양나루터 배머리는 타향으로 향했어도 어머니의 눈빛에 가까이 비껴들던 래일, 그 래일을 위해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우리 어머니, 최후를 각오한 철창속에서도 밝은 앞날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티없이 지으시던 어머니의 웃음, 벅차게 흐르던 어머니의 삶의 시간을 우리는 잊지 못한다. 모진 아픔과 모든 희열, 자신의 온 생애를 래일에 엮고 사셨기에 해방후 부령의 갈림길에서 어머니 남기신 말씀, 회령에는 이다음

꽃들이 활짝 필 때 가보자요라고 하시던 그날의 음성이 가슴미여지게 울려온다. 꿈결에도 백살구꽃 만발한 고향산천을 사무치게 그려보시면서도 어머니는 끝끝내 그 아름다움을 다시 보지 못하시었고 래일만을 안고사신 그 자옥앞엔 단 하나의 갈림길도 없으셨다.

참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이 눈앞에 바라보이는 이 아침도 어머니께서 세월을 두고 그려오신 것이다.

시인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시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래일로의 줄기찬 행군길에 어머니의 그 념원 활짝 꽃피우시려 언제나 어머니 함께 계신다고 우리 장군님의 의지를 서정화하여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시 《아, 그날의 눈송이》는 어머니의 념원을 꽃피워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자옥에 어머니 밝은 웃음 지으시며 하늘가득 뿌리신 마음의 꽃잎을 눈송이로 서정화하여 노래하였다.

그이 떠나시자 창창히도 맑았던 하늘에서 때아닌 눈송이가 신비하게도 내린다. 눈이야 오는것인데, 계절맞아 오는것인데 것처럼 마음버려 다녀가신 자옥우에 만가슴 적시며 내리던 그날의 눈송이, 그 눈송이에서 시인은 시적감흥을 받아안고 시를 썼으며 눈송이의 의미를 깊이 노래하였다.

행복의 오탁백과가 날마다 주렁져가는 오늘, 우리 조국이 강성대국의 화창한 봄계절을 맞이한 력사적시기에 수십년세월 고이 간직해온 간절한 소원을 드디어 성취한 영광의 땅 회령, 기다려가다려 세월이 맞이한 소중한 그 자옥을 고이 어루쓰다듬으며 끝없이 내리던 하얀 눈송이...

시인은 우리 장군님을 그리는 절절한 감정의 세계를 개방하여 보여주었다.

시 《기나긴 세월속의 반나절》은 혁명의 수만리 길에 마음버려오신 어머니의 고향집에서 보내신 그이의 하루는 반나절이었다는것을 노래하고있다.

해를 두고 그리움만을 넘기고 넘겨오는 회령땅이었던만 가셔야 할 길 그리도 서두르신 생각깊으신 반나절이었다. 것처럼 기나긴 해와 달속에 마음 그려오신 고장이건만 오시여 반나절밖에 품을 내지 못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꿈만같이 오셨다가 꿈만 같이 웃으시며 떠나가신 장군님.

시인은 이 가슴뜨거운 사연을 목매여 터친다.

《아, 우리 장군님 회령땅에 오시여/단 하루밤도 쉬여가지 못하셨으니/오로지 인민위해 분분초초 아끼시며 떠나가신 길/이리도 가슴젖는 길이다/나/목메이는 회령땅아!》. 이처럼 시에서는 우리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전선시찰과 인민경제부문의 현지도의 길에 다양한 시적제기와 정서적충동을 가지고 시대의 서정을 한껏 터치고있다.

시 《가자, 조선아!》는 조선의 미래에 대한 확

고한 신심, 위대한 장군님의 뒤를 따라 승리와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는 조선의 미래락관적인 지향을 보여주고있다.

시는 예까지 오신 길에 겪으신 만단사연 어머니께 아뢰이시고 서둘러 신들메를 조이시며 떠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중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한없이 숭고한 위인의 세계를 생동한 화폭으로 노래하고있다.

실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서신 이 길은 어머니의 바래움을 받으며 나서신 길이 아니다. 이 길은 주체101(2012)년에 인민이 바라는 숙망의 문을 열어제끼고 어머니의 한평생 그 념원, 반만년민족사의 그 숙원을 이룩하리라 어머니와 함께 나서신 길이다.

시인은 여기에서 랑만적정서를 한껏 돋구어 이렇게 노래한다.

...

오, 이 나라

강철의 사단과 군단들이여

일심의 충직한 인민이여

심장의 피를 백배로 끓이며 나아가자

빨찌산의 장군을 따라

...

그렇다, 어머니의 한평생의 념원을 안고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진두에 서신 선군령장을 따라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이 도도한 흐름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

우리는 시적환상과 여운이 안겨주는 정서로 세계를 딛고 올라서는 선군조선이 우리 어머니의 숭고한 뜻을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겨 주체101(2012)년의 대문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최첨단으로 돌진해나가는 장엄하고 만만장쾌한 모습을 감수한다.

이것이 시초 《회령의 불타는 아침》의 기본문제성이고 그 서정이 발휘하는 감화력이다.

## 상 식

### 장미밭 1~2ha에서 얼마만한 장미기름을 얻을수 있는가?

장미밭 1~2ha에서 2~3t의 장미꽃송이를 얻을수 있는데 여기서 질 좋은 향료(장미기름) 약 1kg을 얻을수 있다고 한다.

해마다 5월이면 장미꽃따기를 벌리는데 장미꽃따기는 새벽닭이 울 때부터 해뜨기 전까지 한다. 그것은 이때의 꽃들이 향내와 기름을 뿜지 않고 제일 많이 가지고있기때문이다.

# 회령의 녀인들

엄성영

예로부터 일러오는 회령의 3미중에서도 첫손가락에 꼽는것이 녀미이다.

아마도 회령의 녀인들이 그토록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마음씨 곱고 폐절 또한 바르기때문이라. 소박하고 근면하면서도 지조를 굽힐줄 모르는 외유내강한 조선녀성의 성품을 훌륭히 갖춘 때문이라.

세기를 두고 전해내려오는 이 회령녀미는 새 세기에 와서 더더욱 자랑할만 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한자옥한자옥 따라서 받들어나가며 꽃피우는 우리의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회령녀인들이 발휘하는 아름다움은 실로 엄지손가락을 내두를 정도로 오늘날 절정에 달하고있다.

회령의 녀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것을 나는 작가로서 직접 체험하였으니 이것도 행중의 다행이라 어찌 생각지 않을수 있으랴.

지난해 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현지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회령시에 경제선동차로 다녀온 일이 있다.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의 대화가 끊임없이 물결쳐오는 회령,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탄생하신 회령시는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을 모신 오산덕앞으로 넓은 도로가 길게 뻗어있고 그 양옆에는 회령의 유명한 백살구나무가 주권이 늘어섰다. 길 좌우쪽으로 그리 높지 않은 다층주택의 창문들이 해빛을 향해 마주 웃고있는 회령시는 첫눈에도 정이 끌리고 무척 마음이 당겨 한번 살아보고싶은 충동이 일 정도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난 2월, 북방의 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회령시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시였습니다. 이날 지나께나 뵈고싶던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혁명사적지에 모실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이께 어떻게 인사를 올리고 어떻게 해설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꿈같기만 합니다.》

오산덕에 모신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에 인사를 드리고난 우리 일행에게 혁명사적지의 처녀강사가 들려주는 이야기였다. 말하자면 우리를 맞아준 회령녀인들중의 첫 사람이였다.

키가 쭉 빠진 강사의 동그스름한 얼굴에 노상

웃음이 방실거린다. 불우물패인 얼굴은 능금알처럼 빨갛게 물들었다. 더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표정이다.

이 행복넘친 표정은 우리가 만나본 회령땅의 어느 녀인들에게서나 볼수 있었다.

회령기초식품공장에서 만난 녀성작업반장 박동무는 몸이 실하고 뚱뚱한편이였는데 목소리는 여간 사근사근하지 않았다.

자체의 힘으로 개간한 땅에 콩을 심어 풍작을 이룩했고 험한 산밭을 툭아오르내리면서 뜯어온 산나물과 열매를 듬뿍 쌓아놓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시안의 식료상점 매대들을 풍성하게 장식하였다는 자랑이 가득한 그의 목소리에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볼수 없는 긍지감이 다분했다.

남한테 손을 내밀지 않고 오직 제힘을 믿고 제손으로 공장살림을 알뜰히 꾸려가는 이들이야말로 얼마나 대견하고 미더운 녀인들인가 하는 감탄이 저절로 나왔다.

이들만이 아니다. 회령대성담배공장 녀성직장장의 말을 들어봐도, 김기송회령제1중학교 녀성교장을 만나봐도 하나같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보람, 희열에 넘쳐있었다.

그 불같은 열정, 무궁한 힘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인가.

나는 그에 대한 대답을 회령각건설장에서 더욱 가슴뜨겁게 들을수 있었다.

회령각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이후 새롭게 일떠서는 현대적인 봉사망들중의 하나이다.

이 봉사망 건설을 자진하여 맡아나선것이 회령의 녀인들이였다. 처음에 한 일군이 이 엄청난 건설공사를 녀인들의 힘만으로 감당할수 있겠는지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평양의 옥류관을 생각해 하는 현대적인 건축물을 순수 녀인들의 힘만으로 건설한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기때문이다.

《옥망뿐이라구요?... 명심하세요. 우린 회령의 녀인들이예요.》

총알같이 야무진 말대답에 일군은 서두를 뺀 말마디의 본전도 못 찾고 코만 때웠다.

이들은 녀맹돌격대를 뚝고 건설에 착수했다. 막상 일손을 잡고보니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기초공사에 쓸 굴착기가 제때에 현장에 와닿지 못해 속상할 때에도 맥놓고 기다린것이 아니라 우등불

로 어둠을 불사르며 기초과기에 달라붙었다. 이렇게 시작한 회령각이 불과 몇달사이에 자기의 운자를 드러냈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녀맹돌격대의 힘으로 이렇게 덩지 큰 봉사망을 일떠세웠다는것 말입니다.》

나는 돌격대장 김동무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더놓고보니 어딘가 싱거운 생각이 들었다. 현실적으로 눈앞에서 몰탈을 나르고 축조작업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는것이 녀맹돌격대원들이 아닌가.

김동무는 내 맘속을 엿본듯 조용히 눈웃음을 지었다. 50대에 갓 올라섰을가. 가름한 얼굴, 리지적으로 반짝이는 두눈,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수 있는 보통키의 보통녀인이었다. 지나온 나날에 이들이 폭발시킨 정신력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

회령시를 돌아보면서 만나게 되는 녀인들에게 장군님의 현지도후 일어난 전변에 대해 묻고싶고 알고싶던 물음을 나는 김동무에게 하였다.

김동무는 대답대신 다소곳이 숙였던 고개를 들고 천천히 오산덕쪽으로 몸을 향했다. 그를 따라시선을 옮겨가던 나는 오산덕에 모셔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앞에서 눈길을 멈추게 되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해방직후 우리모두에게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을 어떻게 모시고 받들어야 하는가를 실천행동으로 가르쳐주시였습니다.》

나는 인차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다. 어리둥절한 나에게 김동무가 회령시를 찾아 무산령을 넘기 전에 무엇을 봤는가고 물었다. 나는 범상히 부령의 갈림길표식비를 지나왔다고 대답하는 그 순간 김정숙어머님께서 이들에게 실천으로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나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부령의 갈림길.

해방직후 청진지구에서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 **김일성** 장군님의 새 조국 건설로선을 받드시고 이 갈림길을 지나시여 부령의 로동계급부터 찾아주시었다.

동행한 항일투사들이 여기에서 지척인 회령의 고향집부터 다녀오시자고 거둬 간청을 올렸지만 어머님께서 갈림길에서 무산령너머 고향의 하늘가를 바라보시며 잠시 깊은 감회에 잠기셨다.

장군님 모시고 산에서 투쟁하실 때 기쁜 일이 생겨도, 슬픈 일이 생겨도 가슴속에 사무치게 떠올리던 고향, 밀림속 숙영지에서 유난히 밝은 달을 바라볼 때마다 고향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조약돌 하나하나가 삼삼하시여 잠 못 이루신 밤이 그 몇밤이었던가.

밀영의 봄날이면 대원들에게 내 고향은 백살구꽃 만발하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것처럼 추억도 감회도 깊으시였고 조국진군의 그날에는 되골령의 높은령마루에 오르시여 회령은 어느쪽인가고 물으시며 장군님의 손길따라 백두산너머 저 멀리 한없는 그리움에 차 바라보시던 어머님이시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서는 나라가 해방되었어도 아직 우리 인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할 일이 많은데 어찌 고향부터 찾겠는가고 하시며 꿈결에도 그리던 고향 회령을 지척에 두시고 부령의 로동계급부터 찾아주시었던것이다.

김동무가 뜨거움에 젖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오늘은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우리 장군님께서 어머님의 고향을 찾으시여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었는데 이제는 누가 김정숙어머님을 대신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맨 앞장에서 받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 녀인들의 심장의 의무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목이 확 메었다. 눈곱이 확 달아오르고 가슴은 금시 불덩이를 안은듯 했다. 툭툭 심장의 박동이 빨라졌다.

나는 새로운 눈으로 건설장의 녀인들을 둘러보았다. 정말 하나같은 미인들이었다.

아름다운 녀인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자기의 녀으로, 생활로, 전부로 받아들이는 이들의 정신세계로 하여 더욱 돋보이고 아름다와보이는 회령의 녀인들!

옛적에 운운해온 범속한 아름다움의 세계를 벗어난 현대회령녀인들의 아름다움은 수령과 한마음 한뜻으로 내 나라를 가꾸고 부흥시켜가는 창조자의 아름다움이었다.

세상에 다시없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회령의 녀인들 아니, 이 나라의 가는 곳마다에서 가정과 조국을 믿음직하게 지켜서있는 녀인들모두가 더없이 아름다운 인간대군으로 안겨온다.

아름다운 녀인들에 대한 후더운 생각을 안고 떠나 나는 나에게 돌격대 대장녀인의 말이 쟁쟁한 여운을 남기며 다시금 되새겨진다.

《우리 녀인들의 앞에는 언제나 김정숙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수령을 받들어모시는 자세에서나, 그이의 뜻을 관철해나가는 립장과 태도에서나, 녀성의 언행에서나, 일숨씨에서나 우리 녀성들의 아름다움의 본보기라고 할수 있는 유일한분이신 김정숙어머님을 닮고싶은 하나의 녀원이 우리 회령의 녀인들을 오늘날에 이렇게 시대의 아름다운 녀인들로 자라나게 하였습니다.》

시 초

## 강성대국의 가을을 여기서 보라!

류 명 호, 최 주 원

### 미곡벌전망대에서

그림같은 마을에 그리움 짓들고  
바다같은 논벌에 그리움 파도쳐  
아, 마을이 벌이 가슴가슴들이  
온통 기다림에 설레이는 10월!

오신다는 소식도 없이  
미곡벌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  
여기 전망대에 오르시니  
금시 해쏜는 바다런듯  
춤추며 환호하는 나락의 물결이어

장군님 환히 웃으시니  
벌이 금빛으로 웃는다  
쏟아져내리는 해빛아래  
온 미곡벌이 통채로 와와 설레이며  
그이께로 파도쳐 달려간다

아, 미곡벌 미곡벌  
수령님 한평생 가꿔오신 이 벌을  
온 나라 농사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려  
천리방선 전호를 밟던 그 자욱자욱을  
여기 논두렁길에 찍으시며  
우리 장군님 얼마나 마음 쓰셨던가

눈오는 날에도 비오는 날에도 오시고  
여기에선 전선길에서 무르익히신  
농사법 그 하나하나  
혁명적군인정신, 선군시대의 일본새  
그 하나하나를 일일이 가르쳐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어버이장군님!

강성대국의 리상촌을 이 땅에 펼치시려  
우리 장군님 온갖 로고를 다 바쳐  
선군으로 떠올리신 이 가을  
선군의 해빛으로 무르익히신  
미곡벌의 풍년가을이어!

볼수록 흐뭇한 이 풍경을 보시며  
벼농사에서 통장훈을 부른  
그것이 기쁘시여 그리도 통쾌하시여  
우리 장군님 터치신 호탕한 웃음소리  
온 벌에 찌렁찌렁 메아리친다

—미곡벌의 가을은 선군의 상징이야!

아, 선군령도의 길에서 안아오신  
인민의 행복이 무르익는 벌  
그림같이 아름답게 펼쳐진  
살구동네 추리동네를 보시며  
미곡벌의 가을은 선군10경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는 우리 장군님

나날이 좋아지는 이 땅에  
나날이 흥해가는 이 땅에  
나날이 들어가는 선군9경 선군10경...  
나는 지금 미곡벌전망대에서 보노라  
선군만경으로 펼쳐질 사회주의무릉도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풍요하고 잘사는 나라  
강성대국의 풍년가을을 여기서 보노라!

### 벼단을 안고

제 땀 흘려 거두어낸 열매이건만  
난생처음 보는 진귀한 보물인듯  
장군님 만져보신 벼단을  
나는 소중히 안아보네

난알은 해빛으로만 익는게 아님을  
난알은 가을에만 영그는게 아님을  
풍요한 대지여, 네가 말해다오  
스치는 바람아, 네가 속삭여다오

씨뿌리는 계절에는 계절에 앞서  
김매는 계절에는 계절에 앞서  
종자도 비료도 다 보내주시며  
온 한해 마음쓰신 장군님

이 벌에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은정이  
일년열두달 익힌 가을이어서  
알알이 그저는 셀수 없어  
아름아름 그냘은 안을수 없나니

자신의 행복이 여기에 다 있는듯  
탐스런 풍년이삭 손수 드시고  
오히려 우리의 수고를 치하해주신  
아, 어버이 우리 장군님!

한아름 벼단우에 방울방울  
쌀알같은 눈물을 정히 떨구며  
이삭처럼 고개숙여지는

감사의 이 마음

눈비에 젖고 땀에 젖은  
그이의 헌신의 자욱자욱 더듬으며  
나는 안아보네 벼단에서  
장군님로고를 뜨겁게 안아보네

## 살구동네에 오신 날

그 무슨 기쁨을 알리는듯  
살구동네 새 마을에 날아온 금나비  
코스모스꽃잎우에 뿔다 앉았다  
고운 날개 살랑이던 날

저 멀리 평양에선  
우리 당 력사에 새겨진  
뜻깊은 날을 맞는  
그 환희, 그 기쁨을 안고  
장군님을 기다리는데

오직 한분 그이만은  
이날을 잊으신듯  
그림같은 미곡리의 선경마을  
새집들이한 문화주택을 찾으셨네

해빛이 밝게 드는 아래웃방이며  
그릇가지 그릇한 부엌까지 다 보시며  
도시사람도 부러워할 궁궐같다고  
기쁘시여 환한 웃음 지으신 장군님

우리 당의 선봉투사답게  
일을 잘하라고  
해년농사에서도 장훈을 부르라고  
그리도 아끼던 시간을 아낌없이 바쳐  
자신의 곁에 한 당원을 세우시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셨나니

아, 10월 8일!  
력사에 아로새겨진  
바로 이날  
위대한 당의 총비서이신 그이는  
농장의 평범한 세포비서의 집에 계셨네

## 가을바람아

산넘어 불어온 바람일가  
계절이 안아온 바람일가  
감돌며 굽니며 흥치는  
미곡벌의 바람아 가을바람아

날알향기 흐뭇한  
미곡벌의 가을바람아  
너는 전선길의 눈보라에서 시작되었기에

그리도 목메이는구나

불어라 불어 풍년바람아  
인민의 식탁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려  
장군님 바쳐오신 그 사랑을 싣고  
불어라 불어 쌀바람아

아, 우리 장군님  
황금물결 파도치는 전야에  
인민의 행복을 실어보시며  
환하게 지으시던  
그 미소가 실려있는 가을바람

변이 나는 해 흥하는 해  
이해에 미곡벌에도 변이 났거니  
소리치며 불어라 풍요한 가을바람아  
강성대국으로 달리는 내 조국에  
기쁨의 노래가 되여다오!  
행복의 노래가 되여다오!

## 무제에 대한 단상

누구도 몰랐네  
미곡상점을 잘 꾸렸다고  
도시의 상점보다 낫다고  
과분한 치하를 주신 장군님  
문득 농민들이 신을 장화를 찾으실줄

누구도 몰랐네  
색깔 고와 눈맛도 좋고  
질이 높아 손맛도 좋은 장화  
그 장화의 무제를 가늠해보시며  
장군님 안색을 흐리실줄

온 한해 들에서 눈비를 맞으며  
사계절 장화를 벗을새 없는  
농민들의 그 걸음을 다 헤아려보시는듯  
장화가 좀 무겁다고  
더 가볍게 만들어주자 이르시는 그이

생활의 그 어느 한순간에조차  
작은 그늘이 비껴세라  
농민들도 미처 느끼지 못하는  
그 불편을 크게 보시며  
오직 한분 우리 장군님만이  
누구나 쉽게 드는 장화를  
그리도 무겁게 드셨거니

천만가지 크고작은 나라일에  
그토록 마음쓰시는  
장군님의 그 로고에 받들려  
아, 가벼워진 장화!  
아, 무거워진 인민의 행복!



## 분배장의 담시

농민에게 있어서  
분배날은 명절인 듯  
흥그러운 농악에 웅해야 어깨춤  
동네방네 집집을 다 불러낸  
뽕파리도 징소리도 잦아들고...

한사람 한사람  
농장원명부책을 번치며  
분배봉투 나눠주던  
녀성관리위원장의 호명도 끝나고...

이때  
모여선 군중을 비집고 나서는 로인  
웬일일까?  
놀란 눈빛들이 마주치는데  
고요를 휘잡아흔드는 목소리

—우리 농장 분배명부에  
장군님존함은 왜 없습니까!

순간  
분배장은 흥분으로 끓어라  
누구나 가슴에 품고온 말이어서  
누구나 터치고싶던 그 말이어서

세상에 우리 장군님처럼  
미곡벌의 농사 위해 마음쓰신분  
농사군과 나란히 땅을 갈구어오신분  
그이의 손길에 이끌려  
가을에로 달려온 미곡사람들

미라산기슭 여기저기  
덩실덩실 솟아난 선경마을에도  
고생 많던 농민들이 허리 펴고 올라앉은  
번쩍이는 농기계 한대 한대에도  
하늘같은 그이의 은덕이 어려있거니

이 가을을 안아오신분도  
이 가을의 주인도  
아, 우리 장군님이신데!...

농민들의 심장속에 뜨겁게 간직된  
위대한 그 이름  
미곡벌 하늘땅에 터쳐 올렸네  
—**김정일**장군 만세!

## 미곡벌의 가을은 끝나지 않았다

오, 가을앞엔 또 가을  
미곡벌의 가을은 끝나지 않았다  
이 땅의 가을은

강성대국의 대문이 활짝 열릴  
2012년 그날에 있다

농사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라고  
우리 장군님 안겨주신 경쟁의 불  
그 불을 안고  
오늘도 미곡리는 선두에서 달린다

묻지 말자 묻지 말자  
미곡리사람들이 이 벌에  
무엇을 심는지  
무엇을 가꾸고  
무엇을 익히는지

꽃이 피고 눈이 오는  
이 땅의 오는 계절 가는 계절을  
가슴가슴에 다 불안고  
장군님의 뜻을 이랑이랑에 심으며  
미곡리사람들은  
결사관철의 큰 자욱을 짚어간다

장군님 지퍼주신 그 뜻 그 불로  
어둠을 태우고  
아침을 불러오며  
뛰고 달리는 그 마음에 받들려  
미곡리의 날과 달이 흐르거니

보아라  
뜨락또르들이 드넓은 대지에 깊숙이  
보습을 박는다  
무드기 쌓여지는 거름더미들  
앞서거니뒤편거니 달음치며  
작업반과 분조마다  
쭉쭉 뻗어오르는 경쟁도표의 붉은 줄들

애국의 그 마음  
불타는 그 맹세가 열매로 무르익는  
가을과 가을을 넘어  
쌓아올리고 또 쌓아올리는  
대풍작의 쌀산, 그 쌀산우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길 그 마음이  
논두렁에 줄지어선 붉은기에 어려 펄펄 날린다

쌀! 쌀을 위해  
낮과 밤이 있는 땅  
쌀! 더 많은 쌀을 위해  
심장을 내댄 미곡리는  
승리에서 승리로 돌진하는 최전선

오, 선군으로 들끓는 전야에  
세세년년 풍년을 안아올 미곡리  
수령님탄생 100돛이 되는 그 가을을 향해  
온 나라를 부르며 폭풍쳐달린다  
가을앞엔 또 가을  
이 땅의 가을은 2012년 그날에 있다!

# 조국은 어디서 제일 잘 보이는가

김 춘 호

이 땅은 하얗어  
가고싶은 곳도 많고  
보고싶은 곳도 많던 어린시절

나는 생각했네 그 시절  
아득히 구름우에 솟은 산  
그 봉이에 오르면  
이 땅을 다 볼수 있을가고  
새가 되어 훨훨 하늘에 오르면  
이 땅을 끝까지 다 볼수 있을가고

하지만 그 봉우리도 아니고  
그 하늘도 아닌  
나지막한 언덕의 작은 초소  
인적없는 여기 전호에서  
내 조국을 그려보거니

내 마음엔 보이누나 저 산너머  
나서자란 고향집의 하얀 울담  
그아래 내 심은 앵두나무가

여기 전호에서  
천리로 멀고먼 곳  
어쩌면 이리도 잘 보이는가  
바다가야영소의 푸른 솔밭  
내 그리도 즐겨 뛰놀던  
눈같이 하얀 백사장이  
군모의 채양아래 다 비껴오누나

어려오누나

가 사

그립고 정다운 모든것  
새 거리의 밝은 창을 열고  
흰구름을 잡아보는 아기의 작은 손도  
새집들이기쁨에 웃음꽃 피는  
선경마을 새 모습도

조국은 하얗어  
한눈에 담기엔 끝이 없건만  
여기서는 지척인듯 다 보이누나  
장군님 가시는 사랑의 그 길우에  
기적같이 솟아난 공장들과 발전소들...

정녕 내 어린시절  
그렇게도 가보고싶고  
다 보고싶었던 크나큰 조국땅을  
내 여기 전호에서  
다 그려보고 다 안아보거니

조국을 안고사는 마음이  
어데서보다 더 뜨거운 곳  
조국을 사랑하는 심장이  
어데서보다 더 불타는 곳  
나의 전호여

진정 조국은  
어디서 제일 잘 보이는가  
오, 나는 말하고싶구나  
나지막한 언덕의 작은 초소  
조국의 수호자들이 사는 이 전호라고

## 달 마 중 가 씨

최 혜 경

정월이라 대보름날 휘영청 대보름달  
무릉도원 내 고향에 등실 솟아 올랐으니  
감나무집할아버지 농장의 젊은이들  
달맞이 흥에 겨워 큰 마을이 덩실덩실  
어서어서야 마중가세 마중가  
등실이 두둥실 대보름달 마중가세

정월명절 흥이로다 앞내벌의 등근달  
대보름달 먼저 보며 천만소원 담아보세  
올해에도 풍년나락 저 달빛에 실어보며

줄당기기 북장단에 웃놀이도 성수로다  
어서어서야 마중가세 마중가  
등실이 두둥실 대보름달 마중가세

정월이라 대보름날 태양민족 우리 명절  
너랑나랑 품은 소원 저 달빛에 담아볼가  
선군해님 대를 이어 높이높이 모시고서  
7천만이 두리둥둥 통일춤을 추어보세  
어서어서야 마중가세 마중가  
등실이 두둥실 대보름달 마중가세

## 칠보의 새 풍경을 찾아

김 홍 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참된 혁명가가 되자면 자기 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조국의 북단의 명승 칠보산에 바쳐진 시와 노래, 기사는 많고도 많다.

장쾌하면서도 웅건하고 기이하면서도 묘한 풍치를 자랑하는 칠보산은 선군시대에 와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여러차례에 걸친 사랑의 손길과 자옥에 의하여 더더욱 아름다운 산, 세계적인 명산으로 떠올랐다.

칠보산의 풍경이 여러가지라 널리 소문이 났지만 오늘날 또다시 새로운 풍경이 창조되었다는 소식에 우리는 서둘러 취재의 길을 떠났다.

풍치가 늘어나니 그에 바쳐지는 노래도 글도 더더욱 늘어나야 할것이 아닌가.

명천읍을 떠난 뺨스가 칠보산의 관문인 박달령을 넘은것은 중낮때였다. 취재결음인 우리를 내놓고는 모두 황진온천으로 가는 료양생들이었다.

예로부터 7가지 보물이 있어 칠보산이라 일러온 명산이건만 하도 높고 험한 박달령때문에 이 고장 사람들마저도 나들기 저어하더니 오늘에 와서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흐름이 그칠새 없다. 거기에 새로 꾸려진 온천료양소가 문을 열어 탐승객으로 인종이 끊는 칠보산행길이 더 분주해졌다.

동서로, 남북으로 백수십리 드넓은 면적에 온갖 신비한 자연의 조화를 품어안고 세월의 풍운에 싸여있는 칠보산의 단풍 타는 계곡을 바라보며 옆자리의 로인이 자못 흡족한 어조로 《종구나!》했다.

앞에 앉은 젊은이가 일깨웠다.

《진짜 칠보산경치를 보자면 좀더 가야 합니다.》

로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지, 내 이래봬두 칠보산의 고객이라우. 내가 좋다는건 이 자연을 즐기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요. 옛날같으면 우리같은 일반백성들이 이런 자연을 즐길 엄두나 냈겠소?》

의미심장한 말이였다.

《세월이 하 좋으니 나이 70에 료양을 다 다니오. 젊은 사람들이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연다구 전투에 전투를 이어가며 법석 끊는데 어찌 한가하게 료양을 가라 해서 주저했는데 병원선생들이 무작정 떠밀두만.》

어느덧 뺨스가 외칠보구역에 들어섰다. 멀고 가까운데서 기암괴석들이 신비한 모습을 나타내며

불쑥불쑥 다가들었다.

《야!》 하는 감탄이 여기저기서 터져올랐다.

이때 옆에 앉은 로인이 느릿한 억양에 감정을 실어 무어라 읊조렸다.

칠보산

이 바위 저 바위  
어찌면 하나같이  
깎은듯 해라 빛은듯 해라

선바윈

선 모양이 기묘하고  
앉은바윈  
앉은 땀시 신통하고

먼데놈은 제 자랑 못해  
목 빼들고 발돋움인데  
가까운놈은 저만 보라  
욕심부려 길가에 나앉았네...

《아바이, 그게 누구 십니까?》

《누구 시라니, 내 머리에서 절로 터지는 글인데.》

모두가 신기해했다.

《내 이래봬두 소시적엔 좀 끄적거렸다우, 국가출판물에 시두 몇편 발표하구...》

《아바이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로인이 으쓱해 외웠다.

《창운이요, 리창운...》

?!... 출판물지면에서 이름을 보았던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좋다! 옛날 량반사대부들이나 갓 쓰고 하늘소 타고 음풍영월하며 읊조리던 자연을 오늘은 인민이 즐기며 시흥을 돋구는데야!

50대후반의 중로배인 운전사가 피곳 이쪽을 보더니 누구에게라없이 말했다.

《칠보산의 명소도 좋지만 우리가 가는 황진온천마을을 보지 못하고는 칠보산을 말할수 없답니다.》

얼마를 달렸을가.

잠간 바다가를 끼고 달리는듯싶던 뺨스가 산굽이를 안고 돌더니 조각한 두마리의 꿈이 친절히 안내하는 길로 잡아들었다. 차창으로 운동복차림의 어미곰과 새끼곰이 힘자랑하듯 버쩍 쳐든 껍질 벗긴 통나무에 《황진온천》이라는 글이 보였다.

뺨스는 곧 《종합치료장》이라고 써붙인 푸른

이영의 덩지 크고 땀시있는 건물마당에 들어섰다.  
우리의 눈앞에 황진마을일경이 펼쳐졌다.  
약속한듯 《야!》 하는 감탄이 일시에 터졌다.  
꼭 그림속의 동화세계에 온것 같았다.

《이게 황진이 맞긴 맞소?》

한번 와본적이 있노라 자랑하던 리창운로인이  
옛 흔적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마을을 둘러보며  
허를 내들렸다. 관리위원회 뒤산봉우리에 곱게 앉  
은 단지뚜껑의 꼭지같은 바위만 아니라면 황진마  
울이라고 알아볼 사람이 없을거라고 했다.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이룰 때 흔히 그림같다  
고 하는데 여긴 정말 그림보다 더 아름답구려!》

이 땅 어데 가나 그러하듯 황진마을 복판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를 새긴 석탑이 웅건히 세워져있  
었다.

종합치료장과 팔 벌려 손잡은듯 오른쪽엔 살림  
집들이 산기슭에 줄을 맞춰 앉았고 왼쪽엔 도로너  
머로 관리위원회, 리문화회관을 비롯한 건물들  
이 규모있게 서있었다. 마을길에는 복숭아나무  
와 살구나무가 줄지어섰는데 아마 꽃피고 열매익  
는 계절의 풍경은 정말 볼만 할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리일군인 최창선동무가 말했다.

《우리 황진마을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  
100%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이 100%란 의미를 귀  
담아 들어주십시오. 살림집과 공공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 공원과 크고작은 도로에 이 앞벌의 토  
지까지도 다 새로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 새로 건설한 건물들의 내부까지 보시면 깜짝  
놀랄것입니다. 이런걸 두고 천지개벽이라고 하  
지요.》

시아에 비끼 마을 전체가 그대로 하나의 완성된  
예술작품이었다.

점심식사후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로정을 따라 황진마을을 돌아보았다.

잊을수 없는 그날 마을복판에 아담하게 꾸러진  
소공원에서 황진마을건설정형을 료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어 공원을 마주한 종합  
편의건물의 상점을 돌아보시였다.

매대에서 만난 판매원녀인이 그날의 감격을 되  
새기며 울먹거렸다.

《점심시간이 펍 지나도록 아버지장군님께서  
우리 상점에서 시간을 지체하시며 상품공급정형을  
하나하나 료해해주셨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상점에 차려놓고 공급하는 상품들  
이 기본적으로 도에서 생산한것이라는것을 아시고  
는 매우 기뻐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군의  
특산물인 송이버섯술과 돌버섯술, 도토리술을 보  
시고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이런 술을 많이 만들  
어 주민들에게 공급해주라고 하시였어요.》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바쁜 시간임에도  
편의봉사실들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고 농민들의  
신발수리까지 해주는데 대하여 치하해주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29호동  
살림집에도 둘러보았다. 세대주 원기철동무가 제  
대군인이였는데 어느덧 그 아들이 커서 조선인민  
군대에 가있는 후방가족이였다.

흙할데 없이 꾸러진 부엌과 전실, 널직한 아래  
옷방에 따로 부엌을 형성해준 환자방 그리고 세면  
장과 치료욕실, 건물뒤에 달린 창고에는 칸칸이  
막아 토끼우리, 닭우리, 염소우리, 돼지우리, 위  
생실까지 꾸려져있었다.

치료욕탕의 커다란 욕조에는 언제든지 치료욕을  
할수 있게 온천이 흘러넘치여 후더운 김을 풍기고  
있었다.

어느 세대나 빠짐없이 수도화된 세면장과 치료  
욕탕에 찬물과 더운물이 흘러넘친다니 이런 호화  
주택에서 평범한 농민들이 산다는게 우리에게  
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꿈 아닌  
눈앞의 현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살림방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시고 환자방의 수용능력도 물어주시고 방이  
큼직해서 그보다 더 늘어도 되겠다고 만족해하시  
였다. 집을 나서시면서는 창문의 크기도 좋다고,  
울담을 따라세운 줄당콩넉출을 보시고는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며 좋은 집을 잘 관리하라고  
친어버이심정으로 당부도 하시였다.

그날 주인부부의 간절한 청도 너그럽게 받아주  
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면서  
사진사에게는 배경으로 집이 다 나오게 하라고 일  
러도 주시는 등 자심한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정녕 복받은 세대, 복받은 황진마을이였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총공격전을  
진두지휘하시느라 순간의 휴식도 없이 빨찌산식  
강행군길을 즐기치게 이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날 약수터에도 사랑의 자욱을 남  
기시였다.

약수터는 마을에서 1km정도 떨어진 체평골초입  
에 있었다. 달리기에 맞춘한 거리여서 료양생들이  
아침마다 산보 겸 운동삼아 이곳에 와서 약수를  
마신다고 했다.

그날 일군들이 점심시간이 너무 늦어지는게 안  
타까와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아버지장군님께서  
는 그에 아랑곳 않으시고 시종 만족해하시며 이곳 약  
수터를 돌아보시였다고 한다.

우리는 약수터에서 초간히 떨어진 야외치료욕탕  
으로 올라갔다.

웁푼 패운 청바위밑에 자연미를 살려 꾸린 욕탕  
에 한쪽구석의 용출구에서 솟아난 온천이 가득차  
서 출렁거리고있었다.

《료양생들은 집집마다에 꾸러진 치료욕탕과 중

합치료장에서도 온탕치료를 할수 있는데도 여기 야외욕탕을 리용하는것을 더 멋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뒤 내려가는 길에 약수터의 시원한 약수로 몸을 식힙니다.》

료양소 소장 리광웅동무가 하는 말이였다.

리창운로인이 욕탕옆의 해설판을 들여다보며 소리내어 읽었다.

《주요성분에 단순규토, 강알카리성 고온천이라... 적응증에 고혈압병(1~2기), 류마치스성관절염, 신경통, 신경염, 만성부속기염, 습진, 건선, 과산성만성위염, 만성대장염, 만성신우방광염, 뇨도결석증, 동맥경화증(경증형), 만성기관지염 및 인후두염... 이거 만병에 다 좋은것 같구만.》

우리가 약수터에서 본 적응증과 온천의 작용상 특성이 비슷했다.

료양소장동무가 자랑했다.

《아마 이렇게 한마당에서 약수와 온천이 함께 나오는것두 흔치 않을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황진온천이 더 유명하다고 할수 있었다.

물론 우리도 야외치료욕탕을 리용해보았다. 용출구에서 솟아나는 온수를 마셔도 보고 동그란 조약돌이 자그라자그라 발에 기분 좋게 밟히는 욕탕에 몸을 잠그려니 후더운것이 가슴에 흘러들었다.

온천의 더운 열기만이 아니였다.

좋은것은 모두 인민에게 주시고 자신께서는 찬눈비에 몸을 적시시며 겹쳐드는 온갖 고생을 락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장정을 끊임없이 이어오신 우리 장군님께서 잠시나마 이런 희한한 치료욕탕을 리용해보시며 겹쌓인 피로를 푸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는 오직 인민, 인민을 위한 락만이 존재하고계신다.

이런 간절함은 종합치료장을 돌아보면서도 찾을 줄 몰랐다.

종합치료장은 전문치료설비를 그췌히 갖춘 위세척실, 장관류세척실, 장세척실, 견인치료실, 회복치료실, 산부인과처치실, 약국 등 모든 온천치료와 회복치료에 필요한 치료실들이 빠짐없이 꾸려진데다 보철실까지 다 있었다.

보철사는 이곳 보철실의 모든 설비는 전문병원에서나 볼수 있는거라고 했다.

종합치료장을 돌아보면서도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말 병이 절로 나올것 같구만.》

누군가 하는 말이였다.

어찌 황진마을에 건설된 건물들만이라.

공원의 나무 한그루, 돌의자 하나하나에도 이곳에 사는 농민들과 료양소에 찾아올 우리 인민모두에 대한 아버지장군님의 친아버이사람이 뜨겁게

깃들어있었다.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의 나날에 찾아오시여 칠보산을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려주시고 오늘은 또다시 온천마을을 새 세기의 선경으로 꾸려주신 선군령장의 불면불휴의 로고가 다시금 가슴에 되새겨졌다.

그러시기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는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로에는 돌포장을 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라는 가르치심도 주시고 료양생들을 위해 식당도 하나 지어주고 메기양어장도 건설해 주도록 뜨거운 사랑을 돌려주시였다. 이곳을 다녀가신 뒤 그이께서는 농민들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모든 살림집에 빠짐없이 차레지도록 사랑의 천연색텔레비존수상기도 보내주시였다.

정녕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점심시간도 뒤로 미루시며 여기 황진마을에 남기신 사랑의 발자취는 칠보산의 새 전설로 길이 전해질것이였다.

우리와 만난 유연탄채굴공학연구소의 로연구사는 목메여 말했다.

《장군님께서 오셨던 그날 우리는 종합치료장에서 치료를 마치고난 뒤 도래굴이에 나가 해칠보의 전경도 구경하고 쉼도 따고 낚시질도 하면서 즐겼습시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점심식사도 미루시며 황진마을을 돌아보고계실줄이야...》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인민의 행복한 실상이였다. 우리 장군님은 맑은 날, 흐린 날 가림없이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고 그이의 자식들인 우리 인민은 그이께서 가꿔주시고 창조해주신 행복을 누리기만 하고...

있는 날은 며칠 되지 않는데 그간에 얼마나 정이 폭 들었는지 떠나려고 생각하니 정말 떠나고싶지 않은 고장이였다.

빠스에 오르는 우리의 눈에 약수터로 가는 산굽이에 붙인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글발이 안겨왔다.

정말 이 땅 그 어데가나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탄성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우리 조국.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발자취따라 태어나는 내 나라의 아름다운 선경들가운데 여기 칠보산의 황진마을도 오늘날엔 당당히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칠보산의 자랑이 칠보가 아니라 팔보라고 어찌 말하지 않을수 있으랴.

황진마을전경이 칠보산이라는 아름다운 한쪽의 수채화에 한점의 풍치를 더해주게 되었으니 선군시대의 작가된 궁지가 가슴가득히 차오른다.

떠나기 아쉬운 우리 마음을 실은 빠스의 차창밖으로 칠보산의 새 풍경인 황진마을은 멀어져갔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한껏 아름다와질 래일의 내 조국의 선경, 강성대국의 커다란 웅자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있었다.



## 강성일

### 1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모든 정경들이 다 처음 보는 것처럼 생신하게 안겨왔다. 썩썩 다가왔다가 확 뒤로 물러서는 가로수들과 춤추듯 흘러가는 덩지 큰 고층살림집들, 종소리도 경쾌하게 질주하는 궤도전차... 저 멀리 건설장에 높이 세운 구호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보름간의 입원치료를 하고 나와 첫 출근을 하는 박수현원사는 늘 보아오던 거리요 사람들이었지만 새삼스러운 눈으로 내다보았다.

**김일성** 종합대학교정에 들어선 승용차는 룡남산마루의 대학본관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올라갔다. 날듯이 지붕을 높이 추켜든 대학체육관의 대형창유리에 부딪쳐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해살도 어느새 눈아래로 사라졌다. 장갑을 바싹 당겨 낀 로인은 지팡이를 짚은 오른손에 단단히 힘을 주며 차에서 내리었다.

등교길을 바삐 오가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차에서 내리는 원사를 보자 먼발치에서부터 걸음을 멈추고 깎듯이 인사를 했다.

원사는 지팡이를 옮겨짚으며 고층의 2호교사창문들을 유정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선생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반기면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력사학부장 허명호교수였다.

《엇그제 면회갔을 땐 담당의사가 열흘은 더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원사는 옛 제자인 그의 인사를 받으면서 할 일이 많은데 병원에 더 있을수 없었노라고 말했다.

《여기 일은 걱정마시라고 그만큼 말씀올렸는데 참... 아직도 병색이 짙어보이는데...》

《일을 해야지. 로환으로 온 병 침대에 오래 붙어있는다고 낫는건 아니지.》

나날이 굵어드는 원사의 어깨와 입원하기 전보다 더 후렁후렁해진듯 한 봄가을외투자락을 근심

스레 보며 허명호는 《오늘부터 기온이 더 내려간다고 했는데...》 하고 허아래소리로 중얼거렸다.

걸음을 옮기던 원사는 다시 멈춰섰다.

《거, 이름이 뭐라 했더라? 교수연구실의 젊은 연구사...》

허명호는 정색하여 원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인석선생 말입니까?》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고 했지? 그가 완성했다는 박사론문을 볼수 있을가. ...》

첫 출근길에 왜 그 논문부터 찾는지 영문을 알수 없어 허명호는 좀 어리둥절했다. 병원에 면회갔을 때 대학소식을 두루 전하며 자랑삼아 말했던 그 논문때문에 원사가 서둘러 퇴원하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 그 논문을 인차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가겠습니다.》

허명호와 헤어져 본관 2층의 자기 방으로 들어온 원사는 책상우의 신문부터 펼쳐들었다. 1면상단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선시찰소식이 실렸다. 그는 군인들의 전투후편을 보아주시는 그이의 근엄하신 영상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지난해 대학을 찾아주시었을 때에도 엄동설한에 전선시찰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길이였지. ...

따뜻한 봄날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온 대학이 가슴에 새기고 기다려왔다. 따뜻한 봄날에 오신다!

그래서인지 올해의 봄은 류달리 아름다웠고 새들의 지저귐소리도 유난히 청아했다. 룡남산에 활짝 어우러진 진달래며 개나리, 함박꽃이 다 피었다 지고... 짧은 여름도 한철, 국화가 다 지고 무성하던 감나무잎, 은행나무잎이 다 떨어져도 오늘은 오실가, 매일은 오실가 손꼽아 기다리는 그이께서는 오시지 못하시였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안다. 이해의 봄과 여름엔 꽃들만 웃고 새들만 지저귐것이 아니었다. 그 나날 숨죽은 공장들엔 피피한 정적이 깃들었고 수십년

래의 열과가 근면한 농민들의 진한 땀이 배인 알뜰한 포전들에서 춤추는 아지 푸른 곡식들을 뿌리채 태워버릴듯 기승을 부렸고... 중부지대의 철도와 교량들을 허리 끊어버리며 갈궂질하는 폐년에 없는 폭우와 대홍수... 서해안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제방을 차던지고 항구와 방파제들을 파뒤집으며 날뛰던 서슬 푸른 해일... 민족의 아버이를 천만뜻밖에 잃은 엄청난 상실의 아픔을 가슴에 안은 이 나라 사람들이 당하는 엄청난 재난과 날로 우심해지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 자나깨나 꿈결에도 그리는 그이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오늘도 전선에 계시는것이다.

원사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시 신문을 펼쳐들었다.

2면을 펼치니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소식이 실렸다. 앞가슴에 가득한 혼장들을 번쩍이며 평양역에 내리는 전국의 수백명 교육일군들의 사진까지 받쳐 실은 기사였다.

홀려간 반세기의 나날 **김일성**종합대학 개교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나라에서 진행된 교육, 과학부문의 모든 중요회의의 앞자리나 주석단에 앉곤 했던 원사였다. 오늘은 원사의 그 자리에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젊은 세대들, 전도양양한 젊은 교육자들이 당당히 서있는것이다.

그 사진을 이속도록 들여다보는 원사의 가슴은 후터워올랐다. 오늘처럼 조국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교육사업발전을 위해 이렇게 큰 회의가 열리다니. 언제나 교육사업을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시고 선차적관심을 돌려오신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정에 목이 짝 메여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니 그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늙기 전에 일을 더 많이 해야 할텐데. ...)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라도 놓친것은 없는가.) 원사는 생각에 잠겨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꼽아보았다.

력사학부문에서 받은 과업인 단군관계연구는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단군관계연구논문집과 새로 나온 전공과용 조선사교과서의 개정판에 대한 심사평정만 해당 부서에 통보하면 올해 자신이 맡은 과업도 모두 수행한셈이다. ...

원사는 사회과학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과학론문과 개정판교과서에 대한 심사평정서를 제출하겠으니 과학서기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인석이가 오겠는데...)

이번에 병원에 면회왔던 교수들의 이야기중에 원사를 가장 흥분시킨것은 박사원을 졸업하고 고구려연구실에 새로 배치되어온 김인석의 논문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가 력사학박사론문을 다 썼는데 잘 썼더라는것과 출판사에서도 욕심을 내고있다는것, 그런데 그가 꼭 원사에게 론문을 보이고지도받고싶어한다는것이였다.

원사는 그가 누군지 알고있었다.

허명호교수를 비롯한 대학의 관록있는 학자들이 룡으로 《신동》이라고 칭찬하는 학구적이고 리지적인 청년이다. 그와는 류다른 연고도 있다.

2년전에 그는 원사를 찾아와 자기가 박사원에 가게 되었는데 자기의 론문지도교원이 되어달라고 간청했던적이 있었다. 그때까지 원사가 키워낸 박사는 수두룩했지만 이렇게 새파란 청년이 박사론문을 쓰겠으니 지도해달라고 찾아온적은 없었다. 원사는 그를 기특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유능한 교수를 소개해줄테니 그의 지도를 받으라고 듣기 좋게 권유했다. 현대 뜻밖에도 막무가내였다.

《허허, 내 동무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구 밀어버리는건 아니요. 나도 젊은 동무의 론문을 맡아 지도해주고싶소. 하지만... 내 나이와 건강이 그걸 허락하지를 앓는구만.

박사론문집필은 전투라고 할수 있소. 지휘관이건 병사건 신체검사에 합격한 전투원만이 그 전투에 참가할수 있지.》

로인은 두려운 돋보기너머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할뿐 더 말이 없었다.

기가 질린 인석의 얼굴에 떠오르던 경악과 좌절감, 절망과 락심의 착잡한 표정이 고지식한 로학자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였다. 원사는 그의 마음을 능쳐주느라고 허물없는 동료에게 이야기하듯 나는 이제 너무 늙었다고, 인생총화작으로 력작을 하나 쓰려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포기했노라고 안해도 될 말까지 했다. 그 말에 뜻밖에도 인석이 머리를 쳐들며 소리치다싶이 부르짖었다.

《선생님은 쓰셔야 합니다. 그것도 꼭 력작을 쓰셔야 합니다. 쓰실수 있습니다.》

원사는 젊음과 패기가 넘쳐나는 인석을 부러운 눈길로 한동안 바라보았다.

《젊은 사람들에게겐 내 말이 잘 리해 안될거요. 자기 마음대로 안되고 장담할수 없는게 늙은이의 건강이거던.

박사론문을 쓰려면 적어도 3~4년은 걸려야 할텐데. ... 난 너무 늙었거던. 벌써 여든을 썩 넘겼단 말이요.》

아무말없이 머리를 수그리고있던 인석은 자기가 2년내로 론문을 완성해가지고 찾아오겠으니 그땐 꼭 론문을 보아주십시오 하고 다짐을 두는것이였다. 원사는 허거프게 웃으며 그렇게 하자고, 허나 우선 공부를 많이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때 어깨를 떨어뜨리고 돌아서던 그 청년이 정말 2년만에 박사론문을 써냈다는 사실은 로인에게 있



어서 큰 충격이었다. 교육자로서의 원사에 대한 평판은 일단 배우겠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가장 친절하고 훌륭한 지도를 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교단에 선이래 처음으로 그냥 돌려보냈던 제자가 놀랍게 약속을 지켰던 것이다. 로인은 력사학계의 원로로서 젊은 학자의 신의와 결단에 저으기 감심되어 어지간히 자신을 후회까지 하였다.

그러면서도 가슴 한구석에 이름할수 없는 우려와 위구가 갈마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사료가 풍부한 근현대사가 아니라 사료도 부족하고 고증도 어려운 고대중세사(인석은 고구려사를 취급했다.)를 선택한것에서 나이 젊은 학자의 연구자세와 기백을 엿볼수 있었지만 좀처럼 믿음이 가지 않았다. 지어 그 문문을 우수한것으로 평가하는 허명호교수나 출판사측의 립장도 잘 납득이 되지 않았다. 허명호교수는 학부장으로서 학부의 실적을 생각하여 흥떠있을것이고 출판사측은 강국고구려와 관계된 논문이니 환영하겠지만 력사학계를 대표하는 원로로서 원사는 어디까지나 심사숙고해야지 경솔하게 그들과 맞장단칠수는 없었다.

고대중세사는 력사학에서도 어려운 령역이다. 허명호교수만 놓고보더라도 50대에 들어와서야 박사가 된 사람인데 그것은 물론 학부장사업과 기타 교무행정사업으로 연구에서 시간상제약을 많이 받은데도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그가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첫 통일국가에 대한 연구 즉 중세사를 대상으로 한 어방없이 중량이 큰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이었다.

하물며 이제야 30살이라는 젊은 연구사가 고구려시대를 주제로, 그것도 2년만에 연구론문을 냈다는데 아무리 사전준비가 원만하고 본인의 자질이 뛰어났다고 한들 어설픈 구석이 허다할것이다. 그런데도 벌써 출판문제까지 거론된다니 아이에게 어른을 업혀놓고 다들 용하다고 칭찬하는것 같아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그 어느 학문이 그렇지 않으랴만 력사학이야말로 량심과 진실로써 후세앞에 책임져야 할 무거운 학문중의 학문이라고 원사는 확신하고있는것이다.

## 2

묵직해보이는 지함을 들고들어온 허명호에게 원사는 물었다.

《그게 그 논문이요?》

《아닙니다. 어제 외국에서 선생님앞으로 온 우편물입니다.》

로인은 흥심없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도서들이라고 대답하자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묻고나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인석의 논문부터 보

치고 하는것이였다.

인석은 원고를 한아름이나 안고 허명호교수의 뒤에 서있었다.

로인의 줄어든 체구앞에서 송구스러운듯 자기의 키를 낮추려고 애쓰는 인석의 온몸이 그대로 조심스레 원사의 안부를 묻고있었다. 추운 날씨인데도 머리를 짧게 깎고 엷은 봄가을외투를 입은 그는 원사가 의자를 가리키는데도 그냥 선자리에서 입을 열었다.

《저, 그래도 이 우편물부터 보시지 않겠습니까? 외국에서 보내온것인데...》

우편물은 이웃나라들의 대학과 연구소들에서 보내온 고구려와 발해력사관계 도서들이였다.

호화장정을 한 도서들마다에는 박수현원사가 꼭 읽고 귀중한 조언을 주기 바란다는 글이 정중히 적혀있었다.

도서들을 펼쳐보던 원사는 한 대학교수가 보내온 도서의 표지의 동명왕릉전경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책갈피를 번져 집안의 장군무덤과 안악고분사진들을 보던 원사는 청암리 고구려토성유적사진에 이르자 거기에 눈길을 준채 한동안 움직일줄 몰랐다. 《주체사상탑우에서 내려다본 청암리 고구려성터》라는 해설문까지 달려있는 그 사진은 대동강과 5월1일경기장을 앞에 두고 청암리 토성의 옛터를 중경으로 당겨찍은것이였다. 청암리 토성!

깊은 감회에 잠겨있던 원사는 다른 책들을 보고있는 허명호와 인석을 곁으로 불렀다. 토성사진을 가리키자 인석이가 대뜸 《우리 대학 뒤쪽에 있는 토성자리가 아닙니까?》하고 눈을 깜빡거렸다.

허명호도 기억을 더듬으며 《그 교수일행이 이 토성을 돌아보았을 때 저도 동행했었습니다.》라고 얼떠름히 웅대했다. 원사는 그들에게 똑똑히 보아두라는듯 토성사진이 있는 폐지를 번져지지 않게 꺾꺾 눌러놓았다. 그리고 인석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다.

《수천년력사의 풍운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번 했던 이 희귀한 고구려토성의 옛터가 지금까지 남아 후세에 전해지게 되고... 오늘은 또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선조들의 슬기가 깃든 귀중한 유산이 우리 시대에 빛나게 된것은 전적으로...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요.》

로인은 책에서 눈을 떼더니 안경을 벗어내렸다.

... 50년전 종합대학 본청사 건설착공식을 시작하던 날 뜻밖에도 기초굴착현장에서 고구려토성의 흔적을 발견한 그는 (당시 그는 조선사 강좌장이였다.)작업을 중지할것을 상급기관에 제기하였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그를 비롯한 몇명의 학자들을

북조선인민위원회 집무실에 부르시여 교사건설 착공현장에서 발견된것이 고구려토성이 확실한가, 그렇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고 그들의 의견을 진중하게 물으시였다.

애놈들의 민족문화말살책동으로 유적유물들이 많이 파괴도굴되고 고구려토성도 남아있는것이 얼마 안되는 조건에서 토성자리를 보존하였으면 좋겠다는 원사의 소박한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해주신 수령님께서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중요한 회의를 뒤로 미루시고 대학터전을 다시 잡아주시기 위해 몸소 모란봉과 청암리일대를 답사하시였다. 밤새 내린 비에 폭 젖은 잡관목을 헤치시며 이 등성이, 저 등성이 뚫아보시는 그이의 바지가랭이가 이슬에 화락하니 젖어들고 옷자락에는 도꼬마리들이 수없이 달라붙었건만 위대하신 그이의 걸음을 대신할수 없는 수현과 학자들의 가슴은 송구스러움으로 조여들었다.

청암리토성의 옛터는 이렇게 하여 보존되었던것이다. 민족의 력사에 길이 전해갈 그날의 그 사연을 심장에 새긴 증견자들중에서 생존자는 지금 원사밖에 없다. ...

뜻깊은 청암리토성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는 세사람의 얼굴에는 숙연한 감개가 어려있었다. 각이한 연령차이로 갈라지는 서로 판이한 세대들이였지만 그들의 가슴가슴은 모두 하나의 숭엄한 감정으로 뻗차오르고있었다.

《자, 이젠 인식선생의 논문을 좀 봅시다.》

그러자 인식은 갑자르더니 《저, 선생님말씀을 듣고보니 력사학자로서 아니, 아직은 감히 력사학자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민족사를 대하는 책임감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다시 검토해보고 가져오겠습니다.》

허명호학부장도 그 말에 공감해나섰다. 더우기 그는 출근하자마자 담당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원사가 병원의 권고를 뿌리치고 열흘이나 앞당겨 퇴원한 사실을 알고있느터였다.

《선생님, 안색을 보니 몹시 힘드신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아니, 이왕 가져온것인데 봅시다. 쓴 사람이 어쨌든 2년간이나 고심해서 쓴것인데 보아주는 사람이 한 이틀이야 못 바치겠소.》

원사는 인식의 얼굴을 이윽도록 대견하게 바라보다가 책상우의 논문을 끄당겨놓았다. 제목을 보니 《고구려국가의 군사제도와 고구려인민의 상무기풍》이였다.

(주제는 좋아. 시대적요구에도 맞고.)

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 칭찬했다.

《글을 참 잘 썼다.》

홍분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써 노력해도 인식의 온 얼굴에 긴장이 풀리며 감출수 없는 기쁨이 활

짝 피여났다. 글씨를 잘 썼다는 소리인지 내용이 좋다는 소리인지 알수 없었으나 허명호의 눈은 글씨나 내용보다 원사가 심혈을 기울여 다루어야 할 원고의 부피와 무게를 가늠해보고있었다. 허명호의 기색을 재빨리 눈치챈 인식은 원고를 첫페이지부터 꼼꼼히 뜯어보는 원사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는 천리길을 달려온 사람이 마침내 돌집을 벗어놓았을 때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선생님의 부담이... 전번에 면회갔을 때 제가 공연히 톤문소리를 해서 병원침대에 누워있어야 할 선생님이...》

허명호는 원사의 건강을 우려하며 진정으로 송구스러워했다.

《그러지 마오. 내가 교수인데 설사 관속에 누웠다가라두 배우겠다고 찾아온 제자가 있으면 널을 차고 나와야지.》

나어린 제자의 고심이 깃든 원고를 들여다보는 원사의 가슴에서는 한생을 교단에 바친 교육자의 피가 웅건한 진폭으로 다시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 3

뒤운동장에서는 1학년학생들이 옷동을 벗어제끼고 축구를 하느라 와와 야단법석이다. 체육수업을 하는 모양이다. 찬바람이 썰썰 부는데도 속내의바람으로 내달리는 학생도 있다. 그러다 갑자기 누가 땀다 지른 공이 운동장을 벗어나 과학도서관 쪽으로 뻗은 길에 날아가 떨어졌다.

그러자 공을 쫓아가던 대학생청년이 마침 그쪽에서 내려오는 애돼보이는 녀학생에게 이쪽으로 공을 차던지라고 고함치는데 아뿔싸, 무슨 장난인지 그 녀학생이 정말로 땀다 찬 땀이 아무생각없이 마주오던 청년의 코등을 호되게 답새졌다.

운동장이 떠나갈듯 한 폭소, 설마하니 하다가 줄경을 치른 남학생, 부끄러워 얼굴을 싸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녀학생...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주름 많은 입가에 미소를 그리던 원사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방금 다 읽은 인식의 논문을 다시 펼쳐놓았다.

웅근 이를동안 다 읽은것이다.

원고의 접어놓은 페이지들의 여백에는 《기발하다》, 《분석 더 정확히!》, 《뛰어쓰기》, 《원전출처 확인》, 《고중요!》 같은 글들이 연필로 씌여져있었다.

원사는 원고를 번지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앞으로 다가갔다. 책을 보려는게 아니였다. 그는 지금 착잡한 상념에 잠겨있다. 인식의 논문이 그의 내심에 이처럼 큰 파문을 던질줄은 몰랐다.

난해한 력대 고문헌들과 수천년래의 각종 금석문, 서지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여 외곡되고 인멸된

력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두터운 이끼밀에 가리워진 반만년민족사의 참모습을 복원해내는 역사연구사업은 애국심과 비상한 두뇌, 창조적인 상상력과 정확한 판단력, 고대 중세사와 그 시대 언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지칠줄 모르는 정열을 총발동해야 하는 고도로 긴장하고 힘겨운 작업이었다. 이 작업을 맡아나설 능력을 갖추는데는 장기간의 꾸준한 노력과 목직한 체험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역사학자라고 하면 의례히 남자만, 그것도 머리흰 로인들만 련상하는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원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놓은 논문이었다.

인석이 대학도서관 수만 장서를 다 뒤지는 독서광이라는 이야기는 들은적이 있다. 논문을 보니 젊은 연구사의 학식과 재능, 높은 안목과 어학력, 역사적인 사건과 사변들에 대한 분석력이 놀라웠다. 물론 논문에는 간과할수 없는 허점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믿기 어려운 정도의 원숙한 품격이 틀지게 자리잡고있었다.

온갖 위구와 우려가 봄눈 녹듯 사라지자 안도감과 함께 행복감을 느꼈다. 50년간의 교육자로서의 생애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과 함께 늙은이의 로파심은 어쩔수 없다는 서글픈 생각도 들었다. 그가 박사론문을 지도해달라고 간청할 때 그 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리유를 그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철부지어린애와 대사를 론하는것 같은 허망한 일로 생각하지 않았던가.

병원에서 서둘러 퇴원한 리유도 그렇다. 다른 리유도 있었지만 모두가 칭찬하는 인석의 논문을 두고 젊은 그가 역사학계에서는 아직 어리다고도 할수 있는 그가 그토록 짧은 기간에 어떻게 논문을 쓸수 있었으랴 하는 로파심이 작용한것은 사실이었다. 옛말에 자기가 늙는것만 알고 아이들이 크는것은 모른다더니...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 세대 학자들이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다.

대는 굳건히 이어진다! 이제는 학계에서 자기 자리를 당당히 차지한 중진학자들도 그렇지만 새로 자라나는 20대, 30대의 젊은 학자들의 실력은 더욱 쟁쟁하다.

내가 조금만 더 젊었다면 그들과 손을 맞잡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건데... 허명호교수의 나이가 부럽거던.

원사는 문득 자기가 부러워하는 허명호교수의 나이가 60을 넘었다는 사실이 떠올라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이제라도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 젊은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더 해야 할텐데. ... 참 인석이 나를 얼마나 원망했으랴. 그가 저 논문을 붙잡고 씨름했을 고심참담한 탐구의 나날이 그려졌다. 내가

제때에 도와주었다면 그가 더 잘, 더 빨리 썼을런지도 모른다. 나는 애당초 그가 쓸수 있다고 믿지 않았으며 2년동안에 써내리라고는 더욱 믿지 않았다. 그를 이제 어떻게 더 도와줄수 없을가.

로인은 전화를 들어 허명호학부장을 찾았다. 그리고 담담하나 힘있는 소리로 말했다.

《학부장선생, 논문을 보았습니다. 뼈가 있고 피줄이 뛰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이랑 수고 많았겠습니다. 이제 중견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새 세대들도 바통을 넘겨받을수 있게 준비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저쪽에서도 기쁨에 젖은 목소리로 응수하여왔다. 로인은 평온한 기분으로 벽의 세면에 꼭 들어찬 서가와 벽장들을 둘러보았다. 그 책들은 원사가 개별적으로 구입했거나 외국의 학회들에서 기증받은것이 태반이었다.

《내 이제 내 방 서재의 책들중에서 귀중한 책들을 모두 고구려연구실에 인계하겠으니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러자 펄쩍 놀란다.

《선생님, 인제라니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같은 분들은 우리결에 앉아만 계셔도 힘이 됩니다.》

《나는 일을 인계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다 보았지만 젊은 세대들이 아직 못 보았거나 학술연구에 꼭 필요한것들을 넘겨주자는것입니다. 인석선생같은 젊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구해 보기도 어렵겠는데...》

《그래도 그것들은 다 선생님 개인장서이구 개인재산이나 같은데...》

《아니, 오늘부터 다 학부장서, 대학의 장서로 등록합시다.》

전화를 놓은 원사는 마음이 후련해지는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더 넘겨줄것이 없나 하여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래, 인석선생네 세대들을 믿고 마음놓고 물려줄수 있어. 있구말구... 내 나이 이제 여든일곱...)

원사의 눈길은 책상 맞은편 벽에 모신 수령님과 함께 찍은 사진에 가뒀었다.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주 백상루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다. 불현듯 로인의 귀가에 그날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그대로 들려온다.

《박선생이 벌써 예순일곱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아주 정정합니다. 앞으로 우리 조국의 역사연구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여주시시오.》

산에 들에 봄의 정취가 가득하고 따스한 해빛이 온 누리에 차넘치던 그날은 잊을수 없는 20년 전 4월 14일이였다.

(그날도 나는 탄생 예순다섯鬚을 맞으시는 그이께 미처 인사를 올리지도 못했는데 그이께서 먼저 나의 건강을 축복해주시였지.)

그날 수령님께서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고구려의 역사를 비롯하여 외곡된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으시기 위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천수백년 동안 잘못 인식되었던 살수의 위치도 바로 그날 명철한 과학적론리로 해명해주시였던것이다. ...

원사는 지금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가슴저미는 아픔으로 그리고있는것이다.

(나뿐만이 아니지. 온 대학이, 온 나라 인민의 심장이 한없이 파사로왔던 그 품을 그리워하지.)

그렇다. 꽃피는 봄, 록음방초 우거진 여름에는 미처 다 모르던 태양의 은혜로움을 락엽이 날리고 눈바람이 세찰 땀 누구나 절감하는 법이다.

#### 4

오전내내 부딪하니 흐렸던 하늘 한쪽 귀퉁이가 트이더니 겨울치고는 제법 짹짹한 햇빛이 쏟아졌다. 본청사 뒤마당은 안침한 곳인지라 바람 한점 없어 제법 따스했다. 오래간만에 점심산보를 나온 원사는 명상에 잠겨 본청사를 두바퀴째 돌고있다. 사실 본청사둘레를 도는 이 산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잡아주신 명당자리터전에 평양시민들의 건국열의에 떠받들려 우쭐우쭐 일어서던 교사를 매일 매 시각 황홀하게 바라보던 나날에 생겨난 습관이였었다.

지팡이를 짚고 쉬엄쉬엄 걸음을 옮기던 원사는 문득 멈춰섰다.

락엽 밟히는 바스락소리가 나더니 탐스런 꼬리를 잔등우에 말아올린 밤빛 다람쥐 한마리가 앞에 나타났던것이다. 풀숲과 나무우에서만 살다가 콩크리트포장도로에 나서니 발이 저린듯 연석을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하더니 두 앞발을 동시에 쳐들고 재롱스럽게 되뚱하니 선다. 팔알같은 눈알을 굴리며 사위를 둘러보다가 자기가 다니라고 닦은 길이 아닌줄 알았는지 조심스레 도로에 발을 내디디고는 뽀뽀 뛰어 길 건너편 덩굴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로인의 얼굴에 한가닥의 미소가 떠올랐다. 청신하고 발랄한 생명력이 풍겨준 한줄금의 훈향이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선명한 여운을 남긴것이였다.

로인이 다시 본청사 뒤마당에 들어섰을 때 높이 자란 잣나무에서 꽤 큼직한 잣 한송이가 철썩하고 땅바닥에 떨어졌다. 로인이 다소 놀라 잣송이가 떨어진 잣나무우듬지를 쳐다보는데 그 나무의 가지에서 줄기를 타고 바람같이 미끄러져내린 청서 한마리가 어느새 잣송이앞으로 달려왔다. 몸집이 아이들 팔뚝같은게 아까 본 다람쥐보다 세곱은 될듯싶었다. 반질반질한 흑청색털옷을 빼기듯 펼쳐입은 그놈은 제잡담 잣송이 꼬트머리를 물었다가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도로 땀구더니 몇걸

음 뒤로 물러섰다.

《흠, 그게 네거냐?》

로인이 흥미있는 눈길로 청서를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자 로인의 아량을 오판한 그놈이 노는 꼴이 가판이였다. 경고신호라도 하듯 꿈궁거리며 회친회친한 몸집을 긴장하게 웅크려 제법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는가 하면 발칙하게도 예리한 발톱이 달린 앞발로 아스팔트바닥을 구르기까지 한다.

《조런 놈 봤나.》

로인이 지팡이를 한걸음 내짚자 그만에야 어리석음을 깨달은듯 그놈은 책돌따서 쫓지를 빼더니 제가 타고 내려온 잣나무우로 재주를 부려 내달아오른다.

가느다란 나무가지를 잡고 춤추듯 내닫는 청서를 쳐다보는 원사의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원사는 허리를 굽혀 청서가 떨어진 잣송이를 집어들었다. 잣알들이 충실하게 들었는지 소담하고도 묵직했다. 이발자리가 력연한 그 잣송이를 보니 큰 떡을 만났다 하고 잣송이가 달린 나무가지를 옥물어뜯고 쏘고 했을 청서가 그려졌다. 청서가 서둘러 가버린것이 저으기 아쉬웠다. 그는 잣송이를 들고 청서가 타고 올라간 나무밑에 슬며시 가져다놓고는 서운한 눈빛으로 한참동안 잣나무우를 쳐다보았다.

원사의 명상을 방해할세라 아까부터 멀찌감치에 떨어져서 지켜보던 인식은 이러한 정경을 보자 왜서인지 가슴 한끝이 알알해왔다.

불현듯 대학 2학년 조선사시간에 원사의 강의를 받던 때의 잊을수 없는 일이 떠올랐다.

어느날 고대와 중세기 우리 나라 병제사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원사는 《고진금퇴》에 대하여 묻는 한 학생의 질문에 백목을 뉘어잡고 칠판에 자기가 좋아하는 박력있고 강건한 추사체로 《고진금퇴》 네글자를 쓰고 덧쓰더니 북을 울리면 진군하고 징을 울리면 퇴각하는 옛 싸움법을 생동하게 설명해주었다. 고구려군사들의 무적의 용맹과 불굴의 기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어느덧 흥분한 원사가 두손을 번갈아 교탁을 두드려 형용해보이던 북소리가 어찌나 신통하던지 천군만마가 들뛰고 창검이 번뜩이는 옛 전장의 광경이 모두의 눈앞에 생동하게 그려졌다.

북소리... 북소리...

진군의 북소리, 승리의 북소리에 대한 강의로 술한 대학생들의 심장에 피가 끓게 하던 원사. 언제나 학계의 선두에 서있던 원사... 그때의 그 모습을 다시 볼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정녕 흐르는 세월을 타고 찾아오는 늙음은 막을 길이 없단 말인가.

원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본관 뒤마당 등나무 밑에 놓인 긴의자에 가앉았다.

(선생님이 힘드셨구나. 저 찬 긴의자에 앉으  
신걸 보니...)

대학구내전반이 록화가 잘되어있지만 본청사  
주변은 특별히 풍치 좋은 교재림이다. 그중에서도  
저 등나무밑은 점심휴식시간에 원사가 즐겨찾곤  
하던 곳이다. 봄이 오면 즐기며 넉넉하며 서리서  
리 얹혀 락하산모양을 이루고있는 등나무는 촘촘  
히 내돋은 잎새들이 빛 한점 들어오지 않게 겹쳐  
져 시원한 그늘로도 되고 큼직한 우산으로도 되  
는 《정자》이다. 그 잎새들사이로 드문드문 연보  
라빛 꽃송이들이 새각시의 머리에 달린 꽃장식마  
냥 수태를 머금고 드리우는데 그 자름자름한 꽃  
송이들은 마치 동화속에 나오는 꼬마각시가 빚어  
낸듯 꺾꼬만 만두모양을 하고있어 볼수록 귀엽고  
감쩍스럽다. 로인은 꽃피는 봄이면 꽃향기를 맡으  
려 이곳을 찾았고 삼복절에는 그늘을 찾아왔으며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도 이 나무밑 의자  
에 앉아 푸르청청 높아가는 금수산쪽 하늘을 바  
라보곤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봄이 오면 등나무가 다시 무성한 잎새를 펼치  
련만... 선생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걸가.)  
인석은 원사의 곁에 앉으며 자기의 장갑을 벗어  
내밀었다.

《의자가 찬데 이거라도 깔고 앉으십시오.》

그러나 힘들어서 앉은게 아니라며 한사코 거절  
한다. 그리고 인석에게 옆자리를 가리켰다.

《론문을 쓰느라 정말 수고했소.》

인석은 그 자리에 선채로 어쩔줄 몰라했다.

《내 한가지 물졌는데... 2년전에 왜 나더러 론  
문지도교원이 되어달라고 했됐소.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잘 지도해줄 사람이 많은데... 하필이면  
늙어서 말하기도 힘들어하는령감을...》

인석은 뜻밖의 질문인듯 얼떠름해있다가 대답  
했다.

《제 론문이 고구려사를 취급했고 선생님이 우  
리 나라의 고구려사연구에서 개척자이시고, 학술  
적권위로 보나...》

《그러면 론문이 다 완성된 오늘에 나더러 보아  
달라는건 뭐요? 내가 지도한것도 아니고 내가 아  
니라도 이미 다 된 론문인데.》

인석은 자기의 론문으로 하여 원사가 마음쓰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였다. 그는 원  
사의 물음에 당황해하더니 선생님께 꼭 보여드려  
야 할 사연이 있었다고 얼버무렸다.

《사연?》

인석은 이내 자신을 수습하더니 가슴을 펴고 당  
당하게 말했다.

《전 12년전 선생님과 한 첫 약속을 지켰음  
을 보여드리고싶었습니다.》

《12년전의 약속이라니?》

원사는 눈을 들어 청년의 얼굴을 바로 쳐다  
보았다.

《선생님,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체험하는바이지만 대학에 입학해서 받은 첫 강의  
는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그는 정중한 자세로 서서 이야기를 하였다.

자기가 종합대학입학통지서를 받고 통남산에 오  
를 때의 환희는 이룰데 없었다는것, 더우기 개학 첫  
날 첫 강의가 저명한 원사선생님의 강의였다는것...

《그때는 대학창립 40돐을 높은 혁신적성과  
로 맞기 위해 들끓던 때였는데 선생님은 그날 강  
의에서 반만년민족의 궁지와 로동당시대에 우리  
력사학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요약하여 가르치  
시면서 <내가 수령님품에서 력사학을 연구한지  
40년이 되어온다. 부단히 달려왔으나 할 일은 아  
직 끝없고 벌써 늙어 강의도 얼마 더 할것 같지  
못하다. 이제 동무들의 차례이다.> 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동무들은 수령님과  
우리 당이 바라는대로 20대, 30대에 박사가 되어  
조국력사연구에서 애국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땀땀히 듣고만 있던 로인의 눈에 정기가 돌더니  
민감한 반응이 나타났다.

《가만, 가만. 그때 그 교실이 2호교사 10층에  
있었더라?》

《선생님, 맞습니다! 10층 6호실 조선사 전  
공과교실이였습니다.》

로인이 기억해내자 인석의 목소리가 대번에 높  
아졌다.

원사는 생각났다. 그때 그는 학생들에게 이제는  
오래 서있기도 힘들다고 말했던것 같다.

《선생님은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그때는 학  
급에서 제 키가 제일 작았습니다.) 저를 지명하시  
며 <꼬마대학생, 그래 약속할수 있소?> 라고 물  
으시였습니다.》

로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인석의 말을  
주의깊게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출판사에서는 이미 저의 론문을 단행  
본으로 출판할 가치가 있는것으로 결론하였습니  
다. 하지만 저는 출판에 앞서 선생님께 꼭 이 론  
문을 보여드리고싶었습니다. 선생님, 전 그때 선  
생님과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흥분하여 단숨에 말을 다한 인석은 입을 꼭 다  
물었다. 대신 로인의 입이 크게 벌려졌다. 그는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다시 물었다.

《지금 몇살이요?》

《서른살입니다.》

《장가를 갔소?》

원사의 눈빛에 파스한 온정이 비껴있었다.

《아직은...》

박수현원사는 장갑을 벗더니 살이 다 빠진 그 손으로 인석의 등을 두드려주었다.

《용타, 동무의 말을 들으니 나도 힘이 솟는것 같소.》

원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질과 실력으로 보나 의지와 품성으로 보나 얼마나 미더운 새 세대인가. 젊은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손자별이라고 해서 다 제 손자처럼 대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뇌리에 지긋게 갈마들었다.

원사는 그의 손을 다시 꼭 잡아주고 자기의 방으로 데리고갔다.

《내 오늘 선생에게 넘겨줄것이 있소.》

로인은 열쇠뭉음을 손에 꼭 그러쥐며 그루박듯이 말했다. 허나 목소리에는 더없는 정이 어려있었다.

원사는 책장을 열고 큼직한 서류함을 하나 꺼내더니 그안에서 포장지로 여러겹 싸 종이꾸레미 하나를 해쳤다. 낡고 좀 퇴색하긴 했으나 그런대로 품위와 가치가 느껴지는 옛 지도 한장이 나왔다. 조선참치 여러장을 무어 만든 지도였는데 한쪽 귀퉁이가 닳아 없어지고 누런 얼룩이 마치 범가죽처럼 어른어른 줄건너간 꽤 오래된 지도였다. 인석은 지도 윗머리에 예서체로 《청구도》라고 쓴것을 보았다. 근대적인 지리표기부호대신 산줄기나 강하천을 간략적이고 통속적인 형상으로 나타낸 옛 지도였는데 이 방에 수없이 드나들면서도 처음으로 보게 된다.

《해외동포가 나에게 기념으로 준것인데 박물관에 가져다놓을만 한 귀물은 아니요. 이본아류들이 더러 있을테니까. 허나 앞으로는 이런것도 귀할테니 잘 건사해서...》

10년전 외국에서 열린 조선관계국제토론회에 참가한 원사는 조선고대사의 진상을 외곡하는 배타적인 사이비학설을 빈틈없는 논리와 설득력있는 언변으로 납작하게 눌러놓아 그 회의에 참가한 북과 남, 해외동포학자들의 폭풍같은 환호를 받았다.

그때 원사를 찾아온 한 해외동포가 외국인의 수중에서 목돈을 주고 뽑아낸 이 지도를 펼쳐보이며 하는 말이 나라를 잃으며 같이 잃었던 나라의 지도를 민족사를 찾으며 되찾는다면서 민족사를 다시 찾는데 공헌한 선생이 이 지도를 맡아달라고, 초보적인 등고선도 없는 옛 지도이지만 눈물겹도록 고맙게도 《분렬선이 없는 통일지도》라며 대를 물려온 보물처럼 무릎꿇고 두손으로 정중히 올리는것이였다. 나라를 빼앗은 강도들의 손과 손에서, 치부와 횡재를 꿈꾸는 시정배들과 수전노들의 손과 손에 들락날락하는 동안 많이 닳고 못쓰게 되였지만 선조들의 지성과 의기가 뚜렷이 엿보이는 귀중한 유물이였다.

《선생님, 이 귀한걸 왜 저에게...》

원사의 칭찬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하늘을 날듯

싹던 인석의 마음은 이 유물을 보는 순간부터 심중해지다가 지어 두렵기까지 했다.

《이제는 새 세대들에게 믿음이 가오. 내가 미처 다 몰랐댔지. ...나도 생각하는것이 있소. 젊었을 때처럼은 못해도 뒤에서 힘껏 밀어주겠소.》

고령에도 다부진 체구와 쇠불이같은 강기로 못사람들을 놀라게 하던 로인이 이 근년에는 자주 앓으면서 몸도 마음도 다 약해진것이다. 인석은 원사의 병의 근원을 잘 안다.

바로 3년전 7월 망극지통의 슬픔을 겪고난 그때부터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신임속에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조선사연구에서 큼직큼직한 자욱을 남기던 원사는 그때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연구과제를 완성한 기쁨을 안고 그이께 보고를 올릴 준비를 하느라 몹시 흥분되어있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수령님의 서거를 알리는 부고... 텔레비죤방송원이 비분에 젖은 목소리로 발표하는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명부의 자기 이름... 억센 심장을 가진 로인이였건만 그 자리에서 졸도해버렸다. 그이의 믿음과 사랑은 생의 무한대한 원동력이였고 그이의 높으신 애국의 뜻은 닫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하는 그의 생애 힘을 주고 활기를 주는 근원이였다.

목새길바없는 애통함과 날이 갈수록 사무쳐오는 그리움...

하지만 결코 슬픔에 잠겨 주저앉아있을수만 없는 원사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에 다 하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 원사는 사무실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대학에서도 가족들도 건강을 돌보라고 만류했지만 도무지 들을념을 하지 않았다.

그러느라니 원사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였고 끝내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인석은 무슨 말로 원사를 위로하고 신심을 줄수 있겠는지 도무지 알수 없었다. 원사는 지금 새 세대들의 성장한 모습에서 위안을 얻으며 조용히 후위에 물려서려 하고있다. 그런데 학식과 견문에 있어서나 저술능력과 논리적인 추상력에 있어서 원사를 대신할만 한 학자는 아직 학계에 없다. 어떻게 하면 그에게 새힘을 줄수 있을까. 인석은 고함이라도 치고싶었다.

## 5

너렁청한 교원열람실에서는 정숙이 깃들어있었다. 수십명의 교원, 연구사들이 독서와 자료연구에 골몰하고있는데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인석은 귀에 익은 지팡이소리에 머리를 들었다.

아닌게아니라 서류가방과 원고를 옆에 낀 원사가 열람실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인석은 반갑기에 앞서 저으기 근심되었다. 원사는 인석의 문문을 보다가 인용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서》와 《신당서》의 원전을 보러 왔다는 것이다.

《야, 선생님. 전화를 하시면 제가 가는 건데...》

인석은 원사가 무리하다가 쓰러질까봐 두려웠다.

사서가 얼른 서고에 들어가 목직한 고문헌을 들고 나오자 원사는 빈자리를 찾아앉더니 확대경을 꺼내 들고 원문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원사는 세시간째 앉은 자리에 뿌리내린 듯 줄곧 한자세로 인석의 문문을 뜯어보고 있다. 머리에 섰던 은발과 이마의 검버섯, 불편하게 수그린 목, 그러나 완강한 시선에는 불꽃이 튀고 있었다. ...인석은 좀 휴식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몇 번씩 그결에 발끝걸음으로 다가갔다가는 말없이 돌아서곤 하였다. 얼마나 힘드실까.

...긴장한 문헌조사로 눈이 잘 안 보이는지 안경을 벗어 들고 손등으로 눈을 비비는 로인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죄스러움에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이던 인석은 끝내 용기를 내어 원사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오늘은 그만 좀 쉬십시오. 그리고 대학병원이라도 좀...》

손이 시린지 로인은 원고에서 눈을 떼더니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주무르는 것이었다.

《걱정마오. 옛사람들이 말하던 안심립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매일에 대한 락관으로 죽음을 범상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할까, 내 오늘 마음이 가볍소.》

인석의 꼭진한 당부에 몽클해진 원사는 안경을 추슬러 끼고 나서 그의 얼굴을 다정히 바라보았다.

《고맙소. 내 나이가 있으니... 시간을 아껴야 해.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것은 것처럼 어려운 시기 인석선생이 2년간이나 문문을 붙잡고 씨름할 때 돌아보지 않은 거야. 잘 썼어. 누가 그 문문을 서른살에 쓴 것이라고 생각하겠나. 문문을 보니 정말 사생을 걸고 썼다는 게 알려.》

인석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왜 그랬겠나. 나와 의 약속때문에 그랬겠나. 절대 아니야.》

원사는 가슴아픈 회오에 잠겨 손수건으로 안경을 닦아 끼고는 결연한 어조로 말했다.

《그때 아마 수령님령전에서 맹세 다졌을 거야. 기어이 해내겠다고. 그래서 아직 장가도 안 가고... 그 맹세를 조금이라도 지켜주고 빛내어 주고 싶어 내 그러는 거야.》

《선생님!》

인석은 뜨거운 것을 삼켰다. 목구멍이 매워 오고 눈곱은 지지는 듯 뜨겁다. ...

광개토왕릉비 신묘년 기사를 취급한 폐지를 펼치던 원사는 잠시 사색에 잠기었다. 신묘년 기사 해석에서 나름의 주장을 편 것이 석연치 않은 데가 있었던 것이다. 원사는 책상 위에 놓았던 확대경을 집어들었다. 순간 번쩍하고 확대경렌즈에 반사된 섬광이 눈을 찔렀다. 그는 왼손으로 안경을 추슬리며 섬광을 뿜은 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책상 너댓개 건너편에 서있는 사람들이 원사에게 향해를 구하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숙여 보았다. 몸가짐과 차림새가 점잖은데 그중에는 사진기를 든 사람도 있다.

(기자들인가? 날 신문에 내려구?)

로인은 확대경을 든 손을 어깨 높이로 쳐 들고 만류하는 뜻에서 여러 번 가로저었다. 그리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거들 고개를 내저었다.

사진기를 든 사람이 다가오자 원사가 입을 열었다.

《기자동무들 같은데... 나를 찍지 마시오.》

《저 선생님, 노여워 마십시오. 선생님을 방해했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여기 도서관에 술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나같은 늙은이를... 구부러진 나무는 그림자도 구부러져 보이는 법이요. 늙은이를 존대한다는 것이겠는데 나같이 초라한 늙은이를 신문에 내기보다 젊고 정력에 넘친 씩씩한 모습들을 찍어 내야 사람들에게 힘도 주고... 매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데도 더 좋을 겁니다.》

원사는 인석이네가 있는 쪽을 가리켰다.

《선생님, 저... 저희들은 기자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고 선생님의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

그들이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며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시여 왔다는 소리에 로인은 놀라며 그들을 한참이나 쳐다보았다. 그제야 그는 좀 떨어진 곳에 서있는 거방진 체구의 인민군장령과 허명호학부장을 알아보았다.

《그이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장군님께서는 지금 전선시찰의 길에 계십니다.》

로인은 마른침을 삼키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이께서... 왜 저의 사진을...》

《얼마전 저희들은 교육부문의 성과를 반영한 사진첩을 만들어 장군님께 올렸습니다. 그이께서는 그날밤 전선동부로부터 나가시는 길에 저희들이 올린 사진첩을 보아주셨답니다. ...》

원사의 주위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어 숨을 죽이고 있다.

원사의 곁에 다가와 까딱않고 서서 이야기를 듣

는 인석이와 허명호의 얼굴에도 감동의 세찬 파도가 물결쳐왔다.

...

깊은 밤... 철령...

칼버랑이 막아서는 철령의 고개길을 야전차가 달리고있다.

차내등을 밝히시고 두툼한 문건을 읽으시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문건더미우에 놓인 사진첩을 집어 드시고 처음부터 한장한장 펼쳐시였다. 마지막 한장까지 다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다시 처음부터 펼쳐나가시였다.

등대섬분교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으로부터 새로 나온 각 도 1중학교 학생들의 교육준비정형, 각급 대학들에서의 과학연구성과와 국제과학기술전시회에서 금메달을 받은 젊은 연구사들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간고한 시기이지만 하루도 중단함이 없이 진행되는 교육사업의 성과들을 반영한 사진첩이였다.

하지만 룡남산마루에 서서 활짝 웃고있는 졸업생들의 광만에 넘친 모습을 담은 마지막장까지 다 보신 다음에도 그이의 안색은 저으기 서운한 기색이였다.

《룡남산...》

그이께서는 조용히 뇌이시였다.

수도를 멀리 떠난 야전차는 눈보라를 뚫고 최전연으로 달리고있었으나 이 시각 그이의 눈앞에는 룡남산의 푸른 교정이 깊은 정회를 안겨주며 어려오는것이였다. 룡남산의 교정길을 그리실 때마다 해방직후 그 어렵고 곤란하던 시기 민족간부 양성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만년대계로 내세우시고 온 나라에 흩어져있던 학자들을 한사람한사람 찾아 내시여 인민의 첫 대학을 세우신 어버이수령님의 기록하신 영상을 가슴뜨겁게 우러르게 되시는 그이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문득 차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어두운 밤 휘몰아치는 광풍에 하늘땅이 맞붙어 아우성치고있었다.

드디어 평마루우에 올라선 야전차는 천천히 멎어섰다. 차에서 내리신 그이께서는 바람에 숨웃자락을 날리시며 멀리 북쪽하늘을 바라보시였다.

차에서 내린 수행원들이 그이의 곁으로 다가와 웅위하듯 둘러섰다.

《...나는 교육부문의 성과들을 보여주는 이 사진첩에서 꼭 보고싶었던 모습들을 볼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했었습니다.》

수행일군들은 그이의 말씀의 뜻을 인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비록 서거하셨으나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김일성**종합대학은 굳건히 서

있으며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골간들을 계속 육성해내고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 반세기전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위촉장을 가슴에 품고 달려와 주체교육의 제1세대를 이루었던 로학자들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곁을 떠나갔으나 아직도 교단을 지켜서 변함없는 교육자의 한생을 빛내고있는 선생들이 계십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것처럼 아끼시던 학자들이였다. 창립정주년때마다 대학에 나가시여 그들이 높은 국가표창을 받으면 남먼저 축하도 해주시고 수척해진것을 보시면 룡양소와 병원에도 보내주시였으며 지어 이발이 좋지 못한것까지 헤아리시고 새로 금이를 해넣도록 배려를 돌려주시던 수령님이시였다.

《날씨가 더 차지는데 그들의 건강이 녀려됩니다.》

그이의 눈앞에는 작년 12월 대학에 나가 기념촬영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부르던 로교수들의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종합대학 로교수들은 영원히 잊을수 없는 고마운 스승들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지 못하고 창립 50돐을 맞이하는 그들의 아픈 가슴을 조금이라도 풀어줄수 있을가 해서 몹시 바쁜 때였지만 전선시찰을 마치자바람으로 대학에 나가 보았했습니다. 그때 올해봄엔 대학에 꼭 다시 나가 로교수들과 젊은 교원들이 강의하는 모습도 보아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정세가 긴장하고 시간이 바빠서 가지 못했습니다. ... 이 사진첩에서라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싶었는데... 주체교육의 원로들인 그들의 사진이 없는것이 몹시 섭섭합니다. ...

지난해 대학에서 기념촬영을 할 때 바로 내 뒤에 서있던 박수현원사의 모습이 선합니다. ...》

어버이수령님의 각별한 신임과 사랑속에 민족사 연구에서 큰 자욱을 남긴 박수현원사.

자신께서는 우리 나라의 첫 **《김일성상》** 계관인들의 대렬에 서있는 원사를 더 내세워주고 표창하고싶으시여 지난해 대학창립 50돐을 맞으며 로력 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시였던것이다.

《력사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했던 이 로교수들이 있어 세상사람들이 우러르던 주체교육의 어제가 있었고 자랑스러운 오늘이 있으며 더욱 번영할 래일이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우리당을 따라 천만리 역세게 한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새힘을 얻곤 합니다.》

그이께서는 수행원들을 둘러보시며 결연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 사진첩을 다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교육부문의 그 어떤 성과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로학자들의 정정한 모습을 더 보고



싶습니다.》

야전차는 최전선을 향하여 다시 달리기 시작하였다. 아득한 전선길에 폭풍이 휘몰아치고있었다. …

원사의 두눈은 고요히 빛나고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속에서 종심을 다 알수 없는 거세찬 격량이 숨쉬고있었다. 원사는 아무말없이 그 일군의 손을 잡으며 힘주어 흔들었다.

《그럼 사진을 찍읍시다.》

로인은 약간 말을 더듬었다.

《선생님, 사진은 이미 찍었습니다.》

그 말에 로인은 미타한듯 자기가 앉았던 자리와 자기의 옷매무시를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 찍읍시다. 다시, 내가 앉은 이 책상에… 지팽이를 세워놓은것이 사진에 들어갔을가봐 그렇니다.》

로인은 지팽이를 집어 인식에게 주며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우라고 이르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눈굽을 닦았다.

그리고 젖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난 신문을 보고 텔레비존보도를 들을 때 장군님소식부터 찾소. … 보도에 며칠만 그분의 소식이 나오지 않으면 불안하고… 마음 무겁고… 그러다가도 그분의 영상을 한번 봐오면 시름이 다 없어지오. 그런데 그분께서도 늘 우리를 생각하신다니… 나같은 늙은이의 모습에서 힘을 얻으신다니… 지금 내 귀엔… 그분의 음성이 막 들리오. 아버지수령님그대로이신 그이의 음성이…》

로인의 귀에 정정히 울리는 그이의 음성.

《로학자들의 정정한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백번 죽는다해도 잊을수 없는 우리 수령님의 친근하신 목소리가 함께 울려온다.

《박선생이 벌써 예순일곱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아직 정정합니다. 우리 조국 역사연구를 위해 많은 일을 하여주십시오.》

온 우주에 가득차 끝없는 메아리로 울려퍼지는 민족의 아버지의 인자하신 목소리, 로인은 재생의 환희와 사무치는 격정으로 몸을 떨었다. 허명호도 인식이도 주위에 모여선 사람들모두가 뜨거운 것을 삼키며 어깨숨을 쉬었다.

…로인은 퍼그나 읽은 원고의 페이지수를 확인하고는 원고를 덮었다. 그리고는 자기 방에 가서 더 읽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결에서 공연히 서성거리는 인식의 표정은 좋아하는지 송구스러워하는지 알수 없다. 원사는 읽던 원고들을 바른손에 들고 인식이에게 눈인사를 하고나서 문가로 걸어갔다. 인식은 로인이 두고가는 지팽이를 띄여보자 얼른 집어들고 총총히 다가가 그에게 들려주었다. 원사는 지팽이를 받더니 오른손에 든 원고우에 덧붙여 그냥 겹쳐들고가는것이였다.

(선생님께서 지팽이를 짚지 않으시다니…)

인식이 힘있게 걸어가는 원사의 모습을 놀라운 눈길로 지켜보는데 원사의 걸음이 푹 몇더니 천천히 돌아서서 인식에게로 다가왔다. 그리고 한참이나 인식의 얼굴을 들여다보는것이였다.

《저… 선생님, 당부하실것이 있으시다면…》

인식은 울렁이는 가슴을 자제하며 로인의 자신에 넘친 얼굴을 쳐다보았다.

《난 이제… 일을 더 해야겠소. 후비양성이나 하고 론문심사나 할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무게있는 책을 하나 쓸테요. 인생의 총화작을 말이요.》

로인은 간난신고하여 얻은 보배를 자기 친자손들에게만 내보이는 아버지처럼 정을 담아 자랑스레 말했다.

《바로 오늘 내 마지막저술의 주제를 잡았소.》

인식의 얼굴에 감동이 물결쳐나간다. 그는 마른침을 삼키며 조심스레 물었다.

《단군조선령역입니까?》

로인은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고구려문제입니까?》

또 고개를 젓는다. 이어 나직하나 확신에 넘친 대답이 터져나왔다.

《반만년민족사와 강성대국이요!》

《!》

《오늘의 고난과 강행군은 단지 시련과 고통이 기반 한것이 아니요. 그것은 또한 우리 인민의 정신력을 시험하고 또 단련시켜주는 력사의 대학으로 될거요. 이 대학의 졸업증을 언제 받는가 하는것은 날자까지는 확언할수 없소만 오늘은 내가 일어서고… 애국의 위대한 선군길 따라 온 나라 인민이 한사람같이 일떠서고… 그래서 반만년의 숙원 강성대국은 장군님시대에 반드시 이룩된다는 주장을 유구한 반만년홍망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론증하려오.》

인식의 두눈에 물기가 번져갔다.

인식의 눈앞에는 못 잊을 그 강의, 원사가 열정에 넘쳐 힘있는 목소리로 강의하던 그날이 다시 떠올랐다.

…복소리… 복소리…

어글어글하고 획이 굳으면서도 천만금의 무게가 굵이치는 네글자 《고진금퇴》가 눈에 확 날아든다. 수풀같은 기치창검… 천지를 진감하는 합성…

비호처럼 내닫는 철갑기병 대군단의 무쇠발굽소리…

인식은 그날의 원사의 모습을 다시 보는듯 했고 그날에 원사가 울리던 복소리가 다시 들려오는듯 했다.

인식은 힘있게 걸음떼는 원사의 뒤를 따라섰다.

## 작가의 사색과 발견

정 기 중

조선도 세계속에 있다. 세계속에 조선이 있고 조선은 세계를 향해 돌진하고있다는것을 우리 작가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작가들에게 《세계를 향해 돌진하는》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창작할것을 바라시기때문이다.

우리 작가들에게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안겨 주시며 작가다운 작가로서 문학다운 문학을 써내라고, 하여 세계를 딛고 올라서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곡히 당부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로록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을 못한다면 우리 어찌 감히 그이의 붓대제자들, 선군조선의 문필전사들이라고 할수 있으랴!...

크나큰 죄책감을 안고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총서 《불멸의 력사》장편소설 《운명》(가제)을 창작하고있는데 그것이 매우 더디게, 힘들게 진척되고있기때문이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사뭇 졸아들군 한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어언 문학에 대한 열정도 갈망도 차차로 식어가고있는것은 아닌지. ...

사실 장편소설 《운명》(가제)은 우리 인민과 인류의 자주화위업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형상하는 작품이다.

취재와 자료작업은 벌써 몇해전에 해놓았었다.

카리브해위기로부터 바크보만사건, 우리 당의 경제국방병진로선, 웰남전쟁과 우리 인민군비행사들의 영웅적투쟁, 쎄브문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건설을 둘러싼 이야기 등... 작중인물들속에는 내각제1부수상인 김일을 비롯한 당과 군대,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노동자, 농민, 교원, 예술가 등 각계층 인물들은 물론 모택동, 주은래, 호지명, 피델 카스트로, 체 게바라, 흐루쇼브, 브레즈네브와 같은 1960년대 중엽에 세계를 풍미하던 각국의 정계인물들까지 다 나오고있다.

정해진 그릇에 비하면 요리감들이 너무 많이, 넘치게 쌓여있는것인지도 모른다. 그때문에 요리도 하기 전에 정신적소화불량증에 걸린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것만은 사실이다. 오늘 의 격동적인 시대정신에 비추어 전혀 새롭게, 즉 이전에 쓴 작품들과 또 다른, 《높은 속도와 즐기

찬 감정의 극, 무게있는 생활철학으로 특징지어지는》 작품을 쓰고싶었었다. 우정 팔호안에 넣은 우의 표현만 보아도 누구나 혀를 내두를것이다.

《만사가 다 욕심대로라면 하늘에다 집도 짓겠다.》

이 속담이 뜻하는것처럼 욕심이 하늘에 닿아있으니 발밑의 농사가 제대로 될리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품전반을 놓고 말하든 어느 한 세부나 대사에 대하여 말하든 철학성이 있다고 하는것은 거기에 작가의 새로운 발견이 깃들어있다는 의미와 작가가 발견한 생활의 진리가 매우 심오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발견! 그렇다. 이로부터 시작했어야 했다. 종자를 발견하고 작중인물들의 성격을 발견하고 생활의 진리를 발견한 후에 시작했어야 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기에도 나는 작품을 시작할 때마다 매번 이 《발견》때문에 심각한 고민과 좌절감을 맛보곤 했었다.

## 추 역

내가 4.15문학창작단 작가로서 첫 총서작품 《조선의 힘》을 맡아안고 씨름할 때의 일이다.

애써 짜놓은 구성안을 발표하던 날 여러 선배작가들이 창작단의 새로운 일원이 되어 처음 줄거리토론에 참가하는 나를 격려하기 위해 우정 《좋은 장면들》과 《잘된 인물성격》들을 많이 찾아주고 어설픈데 얹어진 구성과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긍정해주고 잘될수 있다는 희망을 표시해주었다.

그런데 그날 밤이 깊어 내 방에 불쑥 찾아온 한 창작지도일군은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난 오늘 정말 실망했소. 솔직히 말해서 난 동무가 그 작품을 피나낼수 있겠는지 의심스럽단 말이요.》

실로 예기치 못했던 날벼락이였다. 그것은 내가 4.15문학창작단 작가로서 제구실을 할것 같지 못하다고 단정한것이냐 다름없었다. 하지만 어제까지 군복을 입고 규률과 질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데 습관되어있던 나로서는 그저 차렷자세로 그의 다음말을 기다리는수밖에 없었다.

그는 계속했다.

《동문 왜 전쟁을 자꾸 번두리에서만 그리려 하는가? 내가 처음부터 기본전투병종인 보병으로 둘러싸고 있었는데 왜 공병만 불안고 고집인가? 왜 피어린 락동강전투를 그 한복판에서 보려 하지 않는가? 게다가 적땅크들이 돌입하는 도하장장면에 무슨 간호원들이요, 검찰일군이요 하는건 또 뭐요? 이렇게 번두리가 아니구 둘러리가 아니란 말이지요?》

나는 끝까지 입을 열지 못했다. 다음날부터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다. 그의 지적이 정당하긴 했지만 론박하고싶은것이 너무도 많았다. 그러나 그는 말하는 사람이고 나는 듣는 사람이다. 전자는 엄하게 훈계하고 후자는 공손히 받아들이어야 하는 처지이다.

하여 나는 피로움에 모대기며 내가 새롭게 탐구하고 설정한것이라고 흥분했던 문제의 그 도하장장면(소설의 첫 장면들중의 하나)을 다시 따져보아야 했다.

1950년 9월의 락동강전선, 최고사령부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명령이 내리던 때 우리 인민군대의 맹렬한 도하작전이 몇자 적땅크들이 돌입해오는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배떼다리를 폭파하라는 전선사령부의 명령을 받는 공병들, 그들에게 좀더 기다려달라고, 강진너에서 부상병들이 오고있다고 떼질하며 매달리는 간호원들, 그 부상병들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결국은 적땅크들이 배떼다리로 돌입하여 전선에 조성된 엄중한 위기로 하여 격노하는 무정장령, 당장 공병중대장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총살하라는 무정의 명령을 받고 내려오는 검찰일군, 극한정황에 처하는 공병중대장, 그러나 중대장을 검토하던 검찰일군이 돌연 적기의 폭격에 중상당하자 이번엔 자기를 군법에 넘기려고 왔던 그 검찰일군을 죽기내기로 사단장 지휘감시소까지 업고 가지 않으면 안되는 공병중대장의 기막힌 처지와 쓰라린 심리...

그래 이런것들이 전쟁이 아니란 말인가. 전쟁이 눈에 보이면 그만이지 번두리는 뭐고 둘러리는 또 뭐란 말인가? 하고 막 고함이라도 치고싶은 심정이였다.

며칠후 출장지에서 병치료때문에 돌아온 석윤기 단장이 나를 불러 작품진행정형을 료해했다. 내가 줄거리토론정형을 대충 주려서 (다 알고있는것이 분명하였으므로) 보고하자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가 힘주어 말했다.

《중요한건 발견이요. 어떤 정황에 어떤 인물들이 있어야 하는가 없어야 하는가를 론하기보다 소여의 정황과 인물들에서 어떤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를 발견했는가 하는게 더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는 길게 말할수 없는 몸이었다.

고맙다고, 명심하겠다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그

가 또 나를 불러세웠다.

《발견이 중요해. 이걸 절대 잊지 마요. 그리구... 전쟁물주제 총서작품을 쓰자면 세계의 전쟁사와 군사리론도 환히 꿰들고있어야 하는데... 클라우제위치의 <전쟁론>은 읽어봤소?》

나는 읽지 못했다고, 제목만 들어보았을뿐이라고 조금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음... 그 책이 지금 엄단웅선생한테 있는데 한번 보라구. 현대... 외국어로 된 책이지요.》

후에 나는 그가 무엇때문에 우정 외국어로 된 그 책을 보라고 강조했을까 하고 줄곧 생각해보곤 했다.

여기서 한가지 언급하고 넘어갈것이 있다.

언젠가 우리 4.15문학창작단을 현지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창작단 자료실에 구비된 갖가지 외국어원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의 자료들도 다 보아야 한다고, 그래서 자신께서 보시던 책들도 보내주시겠다고 뜨거운 사랑의 말씀을 하시였다.

사실 현세기는 세상사람들이 그 어디든 몇시간 혹은 하루이틀만에 가고오고 할 정도로 세계각지에서 거리감을 잊고 살고있는 고도로 발전된 세기이다. 그런데 《이웃》의 말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계를 향해 돌진하는 시대의 작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겠는가... 그렇게 놓고 볼 때 외국어는 생활을 위한 투쟁의 무기라고 한 맑스의 말도 우연치 않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석윤기선생이 외국어로 된 클라우제위치의 《전쟁론》(사실은 그 《전쟁론》을 해설한 《클라우제위치의 병법》이라는 책이였다.)을 꼭 읽어보라고 나에게 권유한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 시절 우리 4.15문학창작단에는 항시 외국어를 창작과 생활의 뿔수 없는 길동무로 삼고 깊이 파고드는 작가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외국어 그자체에만 집착한것이 아니였다. 그를 통해 미지의 세계에로 한걸음 또 한걸음 걸어들어갔고 장구한 세월 인류가 파놓은 지성의 깊은 우물에 드레박을 던지고 새로운 지식의 물을 퍼올리기 시작했던것이다. 그러한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말해주는 실례는 수없이 많다. (지면상 관계로 그에 대해서는 략하기로 하자.)

항시 시간을 쪼개여 살며 일하는 작가들로서 그들이 실로 엄청난 시간을 요하는 외국어를 결연히 선택하고 오랜 세월 꾸준히, 변함없이 끈질기게 노력해온데 대하여 나는 진정 존경과 선망의 감정을 품지 않을수 없다.

생활은 나에게 선택할줄 아는자가 가장 지혜로운자라면 끝까지 노력하는자는 자신의 힘을 믿는 강자들이라는것을 깨우쳐주었다. 물론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레외 없이 다 무서운 노력가들이었다.

《발견이 중요해!》

석윤기선생은 내가 한생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이 귀중한 조언을 내 마음속 족자에 진하게 써주었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작품형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진실성과 철학성에 있으며 철학성이 있다는것은 거기에 작가의 새로운 발견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하신 말씀의 진수를 다시한번 되새겨주었던것이다.

발견!... 모든 새롭고 흥미있고 감동적인것은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 특이한 사건이나 정황, 인상깊은 세부, 매력있는 성격, 무게있는 종자와 의의있는 생활철학, 새로운 문체, 새로운 형상기법까지 다 그 밑바탕엔 작가의 고심어린 탐구가 찾아낸 형상의 샘, 《발견》이 숨어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체험한바이지만 작가의 발견은 때로 동료들이나 신인들과 나누는 문학담에서, 정기적인 작품토론에서 얻어지는 경우도 수없이 많다.

## 체 중

우에서 말한 장편소설 《조선의 힘》 줄거리를 두고 《실망》을 표했던 그 창작지도일군의 우려는 사실 부당한것이 아니었다. 웅당 있을수 있는 그리고 있어야 하는것이였다.

솔직히 말하여 내가 준비한 작품줄거리에는 작가적인 발견이 없었다. 배땀다리장면 그자체는 나무랄데 없는듯 했으나 그를 위한 격렬한 감정의 극이 조직되지 않았었다.

후에 나는 작품의 맨 처음에 있던 그 장면을 썬 뒤로 옮겨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대신 전선형편을 분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과 락동강전선에서 후퇴명령을 받는 전선사령부의 장령들과 사단장들인 최현, 박정덕은 물론 보통 병사들과 지휘관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심리와 격렬한 감정극이 여러개의 절로 새로 첨부되였다.

그리고 이 모든것들이 락동강전선에 들이닥친 강한 태풍의 광란속에서 벌어지게 하였다. 태풍이 《발견》된것이다. 두툼한 자료무지속에 묻혀있던 태풍에 대한 단 한줄의 기록이 작가의 눈에 비쳐들자 모든 극적정황, 인물들의 내면세계와 격렬한 충돌이 전혀 새롭게 형상되기 시작했다. ...

그때부터 발견이 없으면 고민하는것이 상례로 되였다. 발견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미 품들여 써놓은 원고들도 죄다 철회될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 커다란 교훈을 찾게 되였다. 무엇보다 먼저 종자를 발견해야 한다는것, 그러되 그 종자는 한마디로 말할수 있어야 한다는것, 길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은 감히 종자라고 할수 없

다는 그것이였다.

속담에도 《종자는 새각시 고르듯 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속담에서 말하는 종자와 우리가 지금 논하는 문학적, 철학적종자를 어느 한 농가의 추녀밑에 걸려있는 한 뒤통박속의 꼭같은 씨앗들로 볼수는 없다. 허나 자연적이든 철학적이든 그 씨앗(종자)들이 품고있는 래일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약속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의미깊은것인가.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의 종자를 상기해보자.

이 작품의 종자를 작가(석윤기)는 사람의 자주정신 대 동물의 자연본능과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중심의 주체철학 대 부르조아인생철학의 대결이라고 할수도 있다.)

하여 작가는 100여일간이나 눈속에서 적아가 꼬리를 물고 전투와 행군을 계속하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는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은 나날이 억세여지나 추격하는 왜놈들은 너무도 가혹한 혈투와 자연의 횡포에 견딜수 없어 차츰 짐승의 무리로 화해가던중 마침내 유격대의 타격에 만신창이 된데다가 굶주린 이리떼에까지 물어뜯기우게 되는 과정을 처절한 장면들로 펼쳐보일수 있었다.

나도 한때 것처럼 무게있는 종자, 철학적인 종자를 발견하고싶었다. 하여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를 쓰면서 미제와의 핵대결을 승리로 령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여러가지 철학적의미속에 담아보려고 애썼다.

선배작가들인 권정웅, 리종렬선생들과 거의 매일같이 문학담을 펼치던 과정에 장군님의 공격정신을 작품의 종자로 정하게 되였다. 이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창작수기를 통해 언급한바 있다. 그때 어떤 작가는 내가 쓴 수기를 읽고 다른 작가들과의 일상적인 문학토론중에 찾아진것을 가지고 무슨 큰 덕이나 입은것처럼 지내 강조하는 리유가 무엇인가? 하고 불만을 표했었다. 지나친 겸손이 일종의 교만으로 보일수도 있다는 의미심장한 경고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작가들은 언제나 마주앉을 때마다 그리고 공식적인 여러 작품토론때마다 서로 커다란 도움을 호상 주고받지 않는가. 그런즉 비록 자신의 문학적키가 남보다 낮고 도량도 크지 못할 지언정 마음까지 가난해질수야 없지 않는가. ...

작품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보다먼저 론하는것이 종자에 대한 문제이다. 최근에도 나는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의 종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우리 집에 자주 다니는 한 대학생이 요즘 자기네 대학에서 이 작품 분석에 들어갔는데 실지 작가가 작품에 심은 종자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내가 반문했다. 대학에선 어떻게 분석하던가고...

그는 즉각 대답했다. 마치 뜬금으로 외워둔 문장을 읽는 듯 했다.

《예, 우리 선생님은 이 작품의 종자를 세계인류자주화위업의 력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담력과 의지대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너무 길게 설명한다고, 작품의 주제와 사상까지 다 한데 묶어 말한다고 은근히 걱정했었는데 그의 말 속에 《장군님의 담력과 의지》라는 표현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장군님의 공격정신》과 본질상에서는 같은 것이라고 인정했던 것이다.

《종구만. 그 선생님 분석이 옳소.》

《아, 그렇습니까!》

그도 웃고 나도 웃었다.

이번엔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태양찬가》에서 작가(남대현)가 어떤 종자를 발견하였는가를 보기로 하자.

이 세상에 태양을 노래한 작품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면 작가는 왜 작품의 제목을 굳이 《태양찬가》라고 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술한 사람들이 노래한 태양을 어떻게 남들과는 또 다르게, 새롭게 형상하려고 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때마다 작가는 《구름우의 태양》이라는 단 한마디 대답을 주었다.

작품에 펼쳐지는 생활무대가 대부분 일본땅이므로 단번에 이해가 오는 말이다. 재일조선인공민들과 총련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악착스럽고 검질긴 탄압말살책동으로 하늘을 덮은 먹구름... 하지만 구름우엔 언제나 태양이 있다. 아무리 두터운 구름장들도 태양의 빛을 가리우지는 못한다. 태양은 기어이 구름장을 찢어발기고 찬란한 해살을 비쳐주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오래 설명해야 하는 것은 종자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종자가 명백치 못하다고 증언부언하는 쑥스러운 고백이며 어정쩡한 변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제목이 그대로 종자를 암시해주는 작품들도 많다. 기억나는대로 그 예를 들어보면 먼저 단편소설들인 《백일홍》(권정웅), 《고기떼는 강으로 간다》(진재환), 《정보로 걸어라》(정창윤), 《사나운 겨울》(리병수), 《고요》(리종렬), 《제1의 생명》(한웅빈)과 중편소설들인 《락동강》(엄단웅), 《향토》(김삼복), 《벗》(백남룡), 장편소설들인 《대하는 흐른다》(천세봉), 《계명산 천은 밝아오느냐》(박태원), 《시대의 탄생》(석윤기), 《평양시간》(최학수), 총서 《불멸의 력사》 《푸른 산악》(안동춘) 그리고 최근에

나온 작품 《인생의 악보》(김정) 등 수많은 찾아볼 수 있다.

## 노 력

발견은 피나는 노력없이 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질없이 공상만 하지 말고 매일매일을 사랑해야 한다. 헛되이 보낸 시간들로 하여 오늘을 시들게 해서는 안된다.

훌륭한 작품을 써낸 작가들은 폐외없이 모두가 완강한 노력가들이었다. 순간도 사색을 멈추지 않았고 자연과 인간, 생활의 사소한 현상도 무심히 스치지 않았다.

완강한 노력가, 사색가로 널리 알려진 한 작가는 언젠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장군님식술〉이라는 말 한마디를 찾지 못해 무려 세시간동안이나 우산장창작실에서 다리까지를 오간 일이 있었소. 그 작품의 절정대목에 인상깊은 그런 말 한마디가 꼭 필요했던 말이요.》

작가의 노력이란 또한 끊임없는 관찰이며 사색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가 작가라면 자기의 인생무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지어 갓난애기들에게서도 배울 줄 알아야 한다.

그 순수한 애기들이야말로 아직 자연과 너무 가까워서 그 뜻 모를 중얼거림을 듣느라 마치고 자연이 우리에게 속삭이고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때 작가라면 마땅히 그 자연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며 그 신비한 음향의 의미를 꼼꼼히 해석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무엇인가 또 발견되지 않겠는가?!...

연암 박지원의 책에는 중세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철학자 화담 서경덕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다.

《...서화담이 길에 나갔다가 길을 잃고 우는 젊은이를 만나서 〈너 왜 우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다섯살적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이 지금 20년째입니다. 아침나절에 집을 나왔다가 갑자기 눈이 떠져서 천치만물을 환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뻐라고 집으로 돌아가려 한즉 골목은 여러 갈래요 대문도 비슷비슷해서 우리 집이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문에 읍니다.〉

선생이 말하였습니다.

〈야야, 너의 집을 잘 찾아가도록 내 네게 일러 주마. 도로 네 눈을 감으면 너의 집으로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눈을 감고 지팡이를 두들겨서 걸음을 걷는대로 곧 저의 집에 찾아갔답니다.》

실화인지 창작품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오랜 세월 앞을 못 보고 다니던 소경이 별안간 눈을 뜨자 길을 잃어버렸다는 설정도 기발하고 그에

게 즉각 방도를 가르친 서화담의 명철함도 놀랍다. 짧은 일화속에 두가지 놀라움이 들어있는것이다.

《놀라움은 곧 철학의 시초》라는 말이 있다.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사람은 왜 사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그것도 물질인가? 등등...

결국 모든 학문과 예술이 철학과 마찬가지로 이 경이의 감정 즉 놀라움에서 시작되고 발전해 왔다.

하지만 이 경이의 감정, 순간의 놀라움을 느끼는것으로 그친다면 그는 작가가 아니다. 어떤 놀라움도 그것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면서 생활철학을 끄집어내는것, 이것이 곧 작가적발견의 출발점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발견은 사색과 탐구가 생활의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어쩔수 없는 습관으로 될 때에라야 가능해진다.

하기에 동서고금의 많은 작가들은 세계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눈, 남들이 다 무심히 스쳐가는 것도 새롭게 의미있게 볼줄 아는것이 바로 작가의 눈이라고 했었다.

언젠가 한 철학가가 산보길에서 어미제비가 새끼 두마리를 등지밀로 밀어떨구는것을 보고 먹이가 부족할 때 부득이 약간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제 새끼들에게 가르치는 그 《총명한 자연본능》을 발견하고 자기의 철학을 보다 새로이 심화시켰던것처럼 자연과 사회의 사소한 현상도 자기식으로 새롭게 보며 그 의미를 연구하게 될 때 비로소 발견이라는 창조적지혜의 섬광이 우리의 머리속에서 번쩍일것이라고 나는 믿고있다. 그러한 발견으로 우리는 자기의 작품을 보다 새롭고 보다 풍부하게 해야 할것이다.

나는 늘 자신에게 《타산만 하지 말고 우선 시작해놓고보라. 제일 큰 위험은 지체하는데 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그러되 일단 시작했으면 끝장을 볼 때까지 쉬임없이 노력하라!》 하고 채찍질하곤 한다.

노력하지 않는 작가가 어데 있겠는가? 장편소설과 같은 장거리경주에서는 마라손녀왕 정성옥선수가 그랬던것처럼 두번째번 극한점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기란 참으로 험치 않다. 때로는 자기가 쓰는것들이 다 고루하게 느껴져 억이 막히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뿐아니라 오히려 멀어져가는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치가 떨릴 때, 바로 그런 때야말로 목표에 가장 가까이 가있는것이라고 한 어느 한 작가의 말을...

얼마전에 나는 요즘 시문단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몇몇 쟁쟁한 시인들을 만나 교훈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었다. 원산까지의 먼길을 달려가야 하는 자동차행군의 휴식참에 있는 일이었다.

그들중 한 시인이 나를 따로 만나 소설가들과 달리 시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시적환상과 열정이 떨어진다는 의미의 말을 했다.

나는 반대의사를 표했다.

《그렇가?... 하지만 오염재선생은 나날이 더 좋은 시를 내놓지 않소.》

이상하게도 그는 마치 그런 대답을 기다리고있었던듯 대뜸 긍정했다.

《웁습니다. 어제도 오선생님이 쓴 뿌리에 대한 시를 합평했는데 정말 놀랍더군요. 시적발견과 정서에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어 그는 사실 자기가 느닷없이 이런 화제를 꺼낸것은 요즘 자꾸만 소설에 눈이 가고 소설을 쓰고싶은 욕망이 굴뚝처럼 치솟기때문이라고 고백하는것이였다.

그의 말에 공감이 갔다. 사실 내가 생각하건대 시와 소설은 뗄수 없는 영향력을 서로가 배태하고있다.

뿌수꾼이나 레르몬토브가 쓴 《대위의 딸》이나 《현대의 영웅》을 보라. 그들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것처럼 시적으로, 운문적으로 소설을 쓰지 않았다. 오히려 더 산문적으로, 더 생활적으로, 가장 단순하고 평이하게 썼고 운률을 고르는데 습관된 시인들답게 온갖 사말사와 설명이 없이 오직 감정의 극만을 추구하면서 당시로서는 아주 이채로운, 속도감에 넘치는 실로 정교한 음악적산문을 창조하였다.

발견이 중요하다.

둘이켜보면 나는 첫 장편소설 《태백산줄기》를 창작할 때에도 마지막장의 전투장면때문에 몹시 골머리를 앓은 일이 있었다. 아무리 뜯어보아야 누구나 흔히 쓰는 그런 극히 평범한 장면이였다. 따라서 인상깊은 절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격들이 살지 않았다. 하여 거의 한달동안이나 쓰고 또 쓰면서 수많은 원고지들을 찢어던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던중 집에 다녀오려고 우산장에서 남포역까지의 30리길을 터벌터벌 걸어가는데 논밭에서 아이들이 떠들썩하며 최쪽에 불을 놓는것을 보게 되였다. 바람이 쐈다. 불길이 황황 번져가고 번져왔다. 그 순간 머리속에서 번쩍이는 생각이 있었다.

(그렇다, 산에 불을 지르자!...)

결과 작품의 마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바로 《새로운 정황이 발견》되자 절정은 더욱 처절해졌고 작중인물들의 성격도 더 적라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장편소설 《너가수》를 창작할 때에는 주인공을 일대기식으로 어린시절부터 말년까지 순차적으로 그리지 않으면 안되는것때문에 심한 진통을 겪었다. 오랜 번민속에서 불현듯 한 녀성이, 새로운 한 인물이 《발견》되였다. 아직 한번도 주인공

공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해외에서 살면서 그를 뼈에 사무치게 증오하는 녀인, 전쟁때 자기 아버지를 유혹하여 북으로 끌고갔다고 알고있었으므로 어머니의 일생을 망치고 자기의 한생도 불우하게 만든 주인공— 너가수를 두고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하다가 마침내 조국방문의 길에 오르게 되는 고진아라는 녀인, 그가 《발견》 됴으로써 그가 추구하고 간절히 바라는대로 아버지세대의 옛 자취를 더듬으며 우리 조국의 근대사와 더불어 북과 남에서 곡절많은 길을 걸어온 주인공과 여러 작중인물들의 운명선을 시공간을 뛰어넘어 종횡무진으로 그려낼수 있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별의 세계》에서는 주로 격렬한 극성을 추구하였다. 피어린 지리산빨찌산과 엄혹한 교도소가 작품의 기본생활무대로 펼쳐지는것으로 하여 그러한 극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던것이다.

그런데 그 극성은 또 새로운 《성격의 발견》을 요구하였다. 하여 작품에는 하정례라는 리화녀대출신의 독살스러운 녀성과 부당하게도 변절자로 몰리어 동지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총탄이 입을 판통하였으므로) 비극적인 지리산빨찌산출신 비전향장기수 최동환 등의 격렬한 성격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 나는 개성적인 성격이 극을 만들며 성격이 극을 운반해간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쓰고있는 장편소설 《운명》(가제)에서는 무엇이 발견되었는가?… 고백하건대 아직은 새롭게 탐구된것이 하나도 없다. 구태의연하다. 그래서 몇번이고 작품을 뒤집어보기도 한다. 새로운것을 《발견》하기 위해 앉으나서나 괴롭게 숨쉬며 모대기지 않는 때가 없다. 때로는 작품의

속성을 안고있는 새로운 그 무엇이 발견되지 않는 한 며칠이고 자지 않고 고통을 겪어보리라고 모질게 마음먹기도 한다.

피나게 노력하느라면 끝내는 발견되겠지만 무엇이 어떻게 발견되는가에 따라 특색있는 작품이 되기도 하고 극히 평범한 그리고 고루한 작품이 되기도 한다.

특색있는 소설, 독자들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감동깊은 소설을 쓰고싶은것은 우리 작가들모두가 품고있는 희망이며 목적이다. 그리고 오늘의 벽찬 현실과 영웅적주인공들은 우리 작가들에게 새로운 시대적요구를 제기하고있다. 구태의연한 작품에는 정말 진저리가 난다고! 낡은 쪽바가지엔 새로운 시대사상을 절대 담을수 없다고! 그러므로 보다 새롭고 현대적인 작품을 만들어달라고!...

물론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흔히 말하듯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것이고 새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기에 우리는 기어이 하늘의 별을 따와야 한다. 그 별들이란 다름아닌 선군조선의 시대정신에 걸맞는 새롭고 철학적무게가 실린 종자와 이채로운 성격, 줄기찬 감정의 흐름, 활동적이고 속도감있는 문체의 발견이라고 나는 믿고싶다.

그러므로 우리모두 결심품고 하늘의 별을 따오자. 예로부터 일러오기를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저마다 자기의 별 하나씩을 가지고 온다고 했다. 하다면 자기가 태어날 때 지고온 별은 어느것이요 어떤 크기와 어떤 모양에 어떤 속성을 가진것인지 끝까지 파고들어 탐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남들의것과 확실히 구별되는 자기의것이 발견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발견된것이 바로 우리들 매 개인의 개성이요 문단에서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우리들 매 작가의 참모습이 아니겠는가?!...

가 사

## 내 심장 철령을 안고사네

리 호

뜨락에 피어난 꽃을 보아도  
철령의 철쭉꽃 어리어오네  
고요한 밤하늘 별을 보아도  
철령의 그 밤길 비끼어오네  
아 행복속에 선군덕을 누려갈수록  
우리 장군님 넘으신 철령 심장에 안고사네

불밝은 창가에 눈이 날려도  
철령의 눈보라 안기어오네  
꽃피는 거리에 비가 내려도

철령의 그 찬비 가슴 적시네  
아 행복속에 선군덕을 누려갈수록  
우리 장군님 넘으신 철령 심장에 안고사네

철령은 사시절 내 맘에 솟아  
장군님 그 자옥 새기여주네  
선군의 한길에 이어간 자옥  
내 한생 따르며 빛내여가리  
아 행복속에 선군덕을 누려갈수록  
우리 장군님 넘으신 철령 심장에 안고사네

# 겨울밤의 궤도전차에서



림 봉 철

막차는 대체로 바쁜 사람들이 타게 된다.

나 역시 오늘 저녁 일정이 대단했다.

세 자식중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외동딸의 인생 중대사를 결정짓게 되어있었던것이다.

사실 나는 사내자식 일곱이 우글거리는 세포의 산골집에서 막내로 태어났다. 철들자 눈에 뜨이는 것은 뒤집 돌각담우에서 재주를 부린답시고 끈독 끈독하다가 함정같이 깊어보는 장독안에 허궁 처박히는 통에 온 동네를 소란케 한 둘째형님이며 왜놈들이 물어놓고간 총을 찾는다고 자칭 《탐사대장》이 되어 술한 아이들을 휘동하고 다니다가 나홀만에야 덜미를 잡혀 끌려오던 넷째형, 군대에 나간 맏형님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조국해방전쟁 시기 전사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해지던 어머니의 모습이였다.

한여름 폭비에 산골물이 불어날 때쯤이면 나긋 나긋한 강버들로 썰미를 만들어가지고 싫든좋든 고기잡이하는 형님들을 쫓아다니느라 밤샘을 해야 했고 무릎이 빠지고 팔굽이 닳아 없어진 옷을 줄줄이 일곱번재판에야 내리입어야 했던 나로서는 녀자로 태어나지 못한것이 얼마나 한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래서인지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본 후에도 한사코 우겨서 결국은 예육이라고 눈이 머루알같은 금딸을 얻게 된것이다. 그땐 참 내가 낳은 것만큼이나 장하고 기뻐다. 그 딸이 벌써 무섭게 자라 시집을 가게 된것이다.

...《뭘 하는 총각이게?》

오늘 아침 밥상을 물리면서 물었더니 딸애의 입에서는 뜻밖의 대답이 흘러나왔다.

《운전수...》

허허, 말 못할 일이로군. ...

언젠가 인민반장이 말했던 어느 연구사총각도 가볍게 거절했다더니 결국은 제 어미와 머리를 맞대고 기껏 작당을 했다는게 운전수란다. 이럴 때면 나는 딸보다도 안해에 대한 고까움이 더 컸다. 사실 가정이란 땅우에 이룩되는것이 아니라 안해우에 이룩된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게다가 가만

눈치를 보니 자기들끼리는 이미 무슨 속구구가 다 있는 모양이였다.

이렇게 가정에는 형식상문제라는것도 있다.

쑤이야, 걸이야 저들끼리 실컷 꿈꾸을 해가지고 서는 어쨌든 세대주니까 그들 표현대로 한다면 《집안일에 영 무관심한 남편》앞에 옛소, 여기다 수표만 하시우 하고 일종의 《동의서》만 제출하는것이다.

《퇴근때 그 총각을 오랫동안까 늦지 말고 들어오시우.》

안해는 이렇게 거듭거듭 침 석대를 잔등에 꽂아서야 나를 출근시켰다.

헌데 일에만 파묻혀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니 벌써 밤 열시가 가까와온다.

(이크, 너무 늦었군.)

나는 해덤비며 차에 올랐다. 차거운 겨울밤이였다. 2월말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요 며칠새 꽤 기승을 부리는 추위다.

불빛 환한 궤도전차안에는 나까지 세사람뿐이였다.

얼굴이 붉고 패기머리를 깎은 청년은 뭐가 맞가지 않은듯 팔짱을 꺾 찌른채 지씨 눈을 감고있었다. 머리총이 어찌나 세보이는지 마치 바늘발이 돌아있는것 같다.

한줄 건너서 사십대에 나보이는 갱빳한 사나이가 앉아있었는데 나는 제격 그가 어떤 현악기를 다루는 연주가이며 모름지기 그것은 바이올린쯤 될거라고 생각하였다.

그 사람은 수염뿌리들이 퍼렇게 살아난 조개턱을 왼쪽어깨쪽으로 찌뿔이 박고 앉아서는 자기의 오른손등에 왼손가락짚기를 열심히 해나가있었던것이다. 사람들은 제나름대로 바쁜것이다.

덜렁 - 지그그...

제동이 풀리며 차가 출발하는 순간 나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몹시도 귀에 익은 소리였던것이다. 오래동안 무궤도전차 운전사로 일해온 나의 모든 감각은 분명 이렇게 알고있었다.



(정인구… 그 사람이 끌던 차로구나!)  
내과의사들은 환자의 얼굴을 기억하지만 구강과 의사는 환자가 입을 벌려야 그를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 분명 그가 운전하던 궤도전차였다.  
나는 마치 옛친구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심정으로 차안을 두리번거렸다. 운전실문우에 정중히 걸려진 순회우승기, 일제히 건들거리는 새빨간 가죽 손잡이들…

어느덧 성에불린 차창에는 정인구의 모습이 비쳐진다.

불시에 피로운 추억이 되살아올랐다. 그것은 러객운수지도국의 로동행정사업을 책임진 나의 손을 거쳐 정인구의 년로보장수속이 정식 끝나는 날이었다.

…그날 나는 퇴근시간을 앞당겨 사무실을 나섰다.

그날 나는 궤도전차사업소의 당비서와 함께 막차운행이 끝날 때까지 정인구의 궤도전차에 앉아 시내로선을 세돌이나 하였다.

정인구는 이것으로써 수십년간에 걸치는 자기의 로동생활을 마친다. 그날 정인구는 매 정류소들마다에서 류달리도 길게 종을 울리곤 하였다. 밤도 어지간히 깊어 텅빈 정류소들도 많았지만 그는 무엇을 기다리는듯 차칸문들을 활짝 열어놓은채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였다.

《이젠 갑시다요—》

사연을 알수 없는 손님들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재촉을 해서야 그는 한을 품은채 터놓을수 없는 속마음인듯 절경절경 차문들을 걷어닫고 지그시 기동발판을 밟아가곤 하였다. 행하니 열려있는 차문들을 나는 차마 눈뜨고 보기가 힘들었다.

그것들은 마치도 정인구의 술한 입들이 되어 《정명아, 내 아들이! 어서 여기로 돌아오너라.》하고 소리치는것만 같았다.

정인구와 그의 아들 정명이 그리고 나…

인구와 나는 1960년대 중엽에 한 무궤도전차에서 로동생활의 첫걸음을 뒀었다.

우리는 배짱이 맞았다.

공도 같이 세우고 잘못도 같이 저질렀다.

한번은 운행도중 양성소시절의 친구를 만난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어느새 바퀴가 열개나 달린 대형화물차를 맡아가지고 시내 건설장들에 팔레트를 운반하고있었다.

수도의 곳곳에 새 거리들이 수풀처럼 일떠서던 때였다.

《유천이, 저거! 교수머리차다!》

정인구의 손가락에 엉덩이라도 찢리운듯 감쪽놀라 달아나는 화물차를 향해 경적소리를 길게 울렸으나 교수머리는 나 보란듯이 경적소리를 울리

며 뱃다 사라져가는것이였다.

《여, 저게 빠스나 몬다구 우릴 우습게 보는데 아니야?》

이쯤되면 눈에 초생달이 뜬다. 차가 속도를 놓자 넓은 아스팔트도로가 점차 좁아졌다. 교수머리의 적재함에서 푹푹 떨어져내리는 물방울이 보인다. 인제야 잡혔지 하는 순간 화물차는 왼쪽으로 휩 꺾어들었다. 나도 앞뒤를 가리지 않고 힘껏 조향륜을 틀었다.

윙— 다시 속도를 내려는 순간 교통안전원(당시)의 아츠러운 호각소리, 왈카당 뗏어서는 전차… 차안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났다.

한바탕 짓쫓고 나딩굴고난 사람들속에서 성난 웨침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때야 나는 이마를 탁쳤다.

아차, 내 찬 무궤도전차지!…

그후 우리는 궤도전차사업소가 새로 생기면서 함께 넘어왔다.

그리고 수십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나는 러객운수지도국의 한개 부서를 책임진 사람으로, 인구는 평범한 궤도전차운전수로 인생의 노래 3절을 부르게 된것이다.

언제인가 한 젊은이가 인구에게 물었다고 한다.

《아바인 인차 〈졸업〉을 한다지요?》

《그래.》

《거 심정이 어떻습니까?》

《자네 좋아하는 노래가 있나?》

《그럼요.》

《후렴을 부르는 심정일세. …》

대리석기둥처럼 미끈한 정인구의 일생에 한가지 허물이 있다면 어느 해인가 책벌을 받은것이였다.

그때로 말하면 우리 당보의 웅근 두면에 걸쳐 《우리는 잊지 않으리》라는 불같은 정론이 실리고 수도의 거리거리들에는 새로운 불야성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어 가로수들에게까지 희한한 불장식이 피어나던 때였다.

아마도 수도의 새로운 밤풍경을 보면서 누구보다 가슴을 적신것은 우리 궤도운전수들일것이다.

불꺼진 거리, 까치머리를 꽂진 책상물림의 나어진 차장이 밤늦은 궤도전차에 웅크리고 앉아 출발을 기다리는 손님들앞에서 변변치 못한 목청으로 불러준 노래는 그 몇곡이던가.

그런 노래조차 세곡을 채 넘기기 전에 유쾌한 《만보견기운동》에 나서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남몰래 가슴때운것은 그 몇번이었던가.

그해 양력설을 앞둔 어느날 나는 한밤중에 사업소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게 되였다. 그때 나는 궤도전차사업소에서 대대장으로 일하고있었다. 사업은 놀라운것이였다. 궤도전차 한대가 행불되였다는것이 아닌가!

송수화기를 내동댕이치고 숨이 턱에 닿아 사업

소에 달려가보니 없어진것은 바로 정인구의 궤도 전차였다. 배전소에 알아보니 운행시간이 지난 뒤 사업소에서 시험운행이 제기된다고 전화가 왔길래 지연전력공급을 해주었다고 한다.

《이 사람이 도대체 제정신인가. 기가 막혀서… 세상에 궤도전차를 끌고 자유주의를 한다는 말은 아직 못 들어봤소.》

뒤늦게야 비상소집이 일어나고 정인구는 새벽녘에야 사업소로 끌려들어왔다. 온밤 사람들을 태우고 시내가 좁다하게 돌아쳤다고 한다. 처음에 사람들은 아닌밤중에 무슨 운행이라 싶어 정류소에서 조차 오를념을 앓더라는것이였다.

그럴 때마다 정인구는 문을 열어제끼고 《여러분! 어서 타시오. 다들 모이시오!》하고 소리치곤 했다고 한다.

정류소도 따로 없는 그야말로 망태기운행이였다. 온갖 비판에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없던 그가 나중에 한 말은 이렇다.

《…막차운행을 보장하고 들어왔는데 어디 잠이 와야지요. 끝없이 걷고싶어라 평양의 밤아… 노래를 부르면서 장밤을 지새고싶은것이…

언젠가 전선에서 돌아오시던 우리 장군님께서 거리엔 불이 꺼지고 우리 궤도전차들이 멎어서있는것을 보시고 그리도 마음아파하셨다지요. 명절이 가까와오니… 어쩌면 장군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문득 돌아오실것만 같아서… 장군님께서 돌아오시면…》

정인구는 이런 사람이였다.

이런 마음을 안고 한생 달음쳐온 그의 운행길이 이밤의 운전으로 정녕코 끝나야 한단 말인가. …

정인구의 궤도전차가 종점에 도착하였을 때 거기에는 그가 속한 운수소대의 모든 운전자들이 나와있었다. 인구는 잠시 자기의 궤도전차를 돌아보았다. 제동판도 두드려보고 접이문도 열어보며…

모두가 말없이 그의 마지막점검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소대장앞에 다가선 그는 마치 일생동안 줄곧 준비해온 말인듯 목갈려 보고하는것이였다.

《소대장동무, 막차를… 끌고왔습니다.》

나는 피로왔다. 그 말속에는 자기의 둘도 없는 교대자를 빼앗아간데 대한 분노가, 하여 한 인간의 인생이 더는 새로운 출발로 이어질수 없는 영원한 《막차》로 되어버렸다는 불같은 질책이 어려있는것 같았다.

우리는 그날 걸어서 퇴근했다.

하나, 둘… 집집의 창문들에서는 불빛이 꺼져가고있었다.

《자네… 날 원망하겠지?》하고 나는 말했다.

《됐네. 이제 와서 새삼스레…》

《아니, 양성소를 졸업한 정명이를 다른 부문으

로 빼돌려준진 박유천이, 바로 이 못난놈이 아닌가!》

그러자 정인구는 억센 힘이 느껴지는 손으로 나의 어깨를 짊 움켜쥐고 한참만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다.

《하지만 그건… 자네 잘못만도 아니지.》

사실 정인구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기처럼 궤도전차운전수로 키우려고 하였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짬만 있으면 아들을 데리고 차에 오르곤 했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외려 그녀석은 옷방 구석마다 눈을 부릅뜬 할아버지며 사색에 잠긴 대학생이며 석고로 빚은 조각상들을 잔뜩 끌어다놓고는 뭇 소묘를 한 다나…

《이 들뜬녀석!…》

방비가 너털너털해지도록 장판바닥인들 작히나 두드렸겠는가. 하지만 그 애는 키우는것이 아니라 컸다.

물론 운전수라는 직업이 어떤 소질에 따른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여하튼 정인구의 아들에게는 천성적으로 그것이 배리된 모양이였다. 우리는 생활속에서 종종 그런 사람들과 맞닥들리게 된다.

소질은 X이나 직업은 Y로 가지고있는 사람들… 더우기 문제로 된것은 언젠가 있었던 《손풍금 수사건》이였다.

그때 정인구의 차에는 얼굴이 해말썽한 차장치녀가 한명 배치되어왔는데 손풍금을 정말 귀신같이 다루었다. 교대준비를 할 때마다 사업소의 운전자들은 일은 하지 않아도 좋으니 노래나 한곡 연주하라고 치녀를 들볶아놓곤 하였다.

그것이 어느덧 관례처럼 되어서 그맘때쯤이면 사업소구내에서는 어김없이 손풍금소리가 울리곤 하였다. 때로는 물결치고 때로는 흐느끼고 때로는 와와 노도쳐나아가는듯 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소리는 사라져버렸다. 사연인즉 그 치녀가 며칠동안 휴가를 받고 제이모가 일한다는 어느 상업기관 예술소조공연을 도와주었는데 그의 재능을 탐내던 나머지 그곳 기관사람들이 한창 공상의 시절에 사는 치녀의 머리속에 별의별 아롱다롱한 수채화를 다 그려보인 모양이다. 종당에는 그 치녀 역시 기울어지고야말았다. 그때 우리를 격분시킨것은 사업소에 찾아왔던 그 이모라는 녀자의 말이였다.

《그 좋은 재간을 가지고 왜 여기서 썩겠나요?》

그 말을 듣자 우리는 행여나해서, 그래도 미련을 가지고 잃을가 두려워서 마음속에 비꼬려했던 망아지고삐를 제 손으로 잘라버렸다.

그것이 사업소의 젊은이들에게 주는 영향은 자못 컸다.

너무도 큰 충격에 입맛을 다 잃고 며칠밤을 새

우다싶이한 정인구는 돌연 정명의 손목을 잡고 학교에 찾아가 아들을 손품금소조에 맡겼다. 처음엔 어리둥절했던 정명기도 워낙 예술적재능이란 자매관계처럼 상통하는데가 있어서인지 군말없이 부지런히 《풍구질》을 익혀갔다.

해가 번져서 어느 명절을 맞으며 사업소종업원들과 가족들의 경축공연이 진행되던 날, 이전에 그 처녀가 앉곤 하던 자리에는 놀랍게도 빈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객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어느 명칭한 무대감독이 그만 실수를 하여 가까스로 잊을번 한 마음의 상처를 다시 상기시키는것만 같아 참을수가 없었다.

《이보, 기타수! 그옆의 빈 의자를 당장 들어내지 못하겠소?》

그런데 이때 무대뒤에서 정인구가 나타났다.

그는 손품금을 멘 아들을 앞세우고 나와 바로 그 처녀가 앉았던 빈 자리에 앉혀주고는 어떤 의미에서인지 관람석을 향하여 깊이 머리숙여 인사를 하고 무대를 내렸다. 그의 행동에는 그 어떤 설명도 랑해도 없었지만 우리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것을 삼키며 오래도록 박수를 치고 또 쳤다.

그날 공연은 매 종목마다 우렁찬 박수갈채를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그날의 여운은 점차 사라지고 나역시 지도국에 소환되어 새라새로운 일거리에 파묻혀 모든것을 망각해버렸다. 하지만 정인구는 정명이가 중학교를 졸업하자 우리 지도국에서 운영하는 운전사양성소에 떠밀어보냈다.

1년간에 걸치는 교육과정을 마치고 배치를 받게 되었을 때 하루는 정인구의 늙은 장모가 나를 찾아왔다.

정인구와 내가 5만키로미터무사고주행별을 처음 받았을 때 띄함지에 닭곰까지 해가지고 찾아왔던 늙은이었다.

《이게 누구십니까, 장모님!》

이제는 퍼그나 늙었다. 인구가 처음 장가를 들었을 땐 촌에서 달려와 생푸념까지 해댔었지.

《외동딸을 눈팔기처럼 호호 길러서 바퀴가진 사내라고 내맡겼더니 이젠 뭐 남들같이 쌀자루서 건 척 친구 식량공급소엘 한번 갔다오길 하나 명절날 똥 태워서 유원지구경을 한고패 시켜주길 하나... 무케도운전사도 운전사요?》

나는 그 시절이 생각나 머리에 손가락으로 《뿔대》를 만들어 붙이며 말했다.

《우리가 어머님의 <천대>를 받아가며 이 <줄타기재주>를 하던 시절이 생각나는구만요.》

그러자 로인은 《아이구, 그게 어느적 일이라구...》하며 손을 내저었다.

《헌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왜 왔겠소. 잘난 손주녀석때문이지.》

《정명이 말이지요. 그 애가 어째서요?》

《뭐가 성차지 않아 하나밖에 없는 외손자까지 로상에 내놓겠소. 기왕 그 애도 자유롭게 날아보는게 소원이 아니겠수. 헌데 개 아버가 발목에 실을 비끄러냈으니...》

로인은 검은테를 두르고 빛같이 푸르스름한 구식 돋보기안경너머로 나를 가만히 살펴보는것이였다.

자유라... 그러니 정명이를 궤도전차운전수로 배치하는것이 그 애의 자유를 구속하는것으로 된단 말인가?...

나는 그 견해에는 찬동할수 없었지만 어쨌든 정명이를 궤도전차사업소에 배치하는 명단에서 최종적으로 뽑아내고야말았다. 왜 그랬을가? 궤도전차운전수직업이 천해보여서?...

그렇다면 그것은 곧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부정이며 모욕일것이다. 그럼 할머니의 부탁이 너무도 꼭진해서?... 보다는 인간관계라는 두터운 껍질속에 들어박혀 손에 풀기가 있을 때 친구 집안의 걸린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일종의 낯내기였을것이다.

그랬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은 편안치 않아 한 번은 정인구를 찾아갔었다. 눈이 쏙 들어간것이 내쪽에 대고는 왔는지 가는지 일언반구도 없었다. 속이 요글거렸지만 달래는수밖에...

《이젠 다 지나간 일이야. 별로 기억할 사람도 없구. 그까짓 이빠진 할머니의 옛말같은 얘기때문에 두고두고 자기를 괴롭힐거야 있나. 깨끗이 잊어버리게.》

그러자 정인구는 대답대신 즉시 궤도전차를 세우더니 정류소도 아닌데서 절커덕 앞문을 열어제꼈다. 날더러 썩 사라지라는것이다.

일이 이쯤 되고보니 나도 어지간히 격해졌다.

《너무하구만! 너무해...》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한가치 뽑아들었다.

《차안에선 못 피워.》하고 정인구가 물풍스럽게 말하였다.

다시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죽여가며 말하였다.

《물론 자네 심정은 이해되네. 하지만 정명이한테도 자기의 꿈이 있지 않겠나. 무엇때문에 그 애의 발목을 한사코 붙잡는가 말일세, 웅?》

그러자 정인구는 《생각나나?》하고 아래우없는 한마디를 툭 던져놓고는 슬며시 실눈을 짓는것이였다.

《한창때... 우린 너무도 철이 없었지. 그날도 난 차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불이 부어서 야간운행을 보장하고 사업소로 들어왔었지.》

이까짓 차갈지도 않은 무궤도전차운전사노릇 꼭 그만둘가 하고 씹씩거리면서 말일세. …》

그런 일이 있었다. 바로 그 일이 있는 후부터 나와 정인구는 거의나 판사람이 되다싶이 하였던것이다.

《다음날 아침 당비서동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린 울었겠지. 글썄 우리 수령님께서 그 깊은밤 우리 전차들의 운행모습을 지켜보아주실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시내 전차운전사들이 정말 수고한다고, 그들은 이렇게 남들이 다 퇴근한 깊은밤까지도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다지. …

그래서 난 우리 정명이도 〈인민을 위해 복무함!〉이라고 씌여진 이 궤도전차에… 내 자리에 앉히고싶었던걸세.》

나는 그만 목이 꺾 막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후 정명이는 합숙생활을 하다가 군대로 갔다.

이것이 바로 나로 인한 정명이의 《첫번째 배반》이었다.

그 일로 하여 나는 줄곧 정인구앞에서 머리를 들수 없었다.

그러나… 고추가루를 붓기는 쉽지만 그 가루로 다시 고추를 만들기는 어려운것이다.

《절격—》

갑자기 궤도전차가 멎어서고 문이 열리는 바람에 나는 감았던 눈을 떴다. 운전실쪽 앞문으로는 새하얀 인조털옷을 입은 뚱보녀인이 얼굴절반을 온통 입으로 채우며 올라서고있었다.

《아유, 이 운전수총각 맘 곱기는 최고다. 혹시나 해서 손을 흔들었더니 요렇게 딱 세워줄줄이야, 호호…》

밖을 내다보니 정류소는 아니었다. 그래서 저렇게 수다스러워졌는가. 정작 그 녀인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나는 생각보다도 몸집이 어마창 큰데 대하여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핑장한 중량급이로군. …)

그 녀자는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들가방에서 신문을 꺼내 읽기 시작하였다. 헌데 그것은 놀랍게도 《체육신문》이었다.

(저런, 정말 어느 체육단 력기감독이라도 되는게 아닌가?)

《폐기머리》가 사람보다도 그 신문에 반색을 하며 묻는다.

《아주머니, 그 보아하니 국가종합팀 료리사라도 되는게 아닙니까?》

《에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어요. 료리사는 료리산데 난 저기 통일거리 단고기집 료리합니다.》

《예예. …》

이것이 계기로 되어 차안에서는 온통 체육과 판

련한 소리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뭐니뭐니해도 똥보료리사의 목소리가 제일 높았다.

《아유, 내 이래뵈두 우리 녀자축구팀덕분에 군당책임비서의 큰절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아주머니가요?!》

《폐기머리》가 회한해서 가까이 다가앉았다.

《그러므로. 사실은 언젠가 우리 집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호호. … 아마 그게 체육지도위원회 번호쯤 되던건지. 그날이 바로 우리 나라 녀자축구팀이 저 양각도축구경기장에서 오스트랄리아팀과 올림픽자격획득경기를 하는 날이었지요. 아, 저녁부터 전화통이 켜충켜충 뚱다는데 이거야 어떻게나 달달 뵈는지. 어느 광산 탐사대인데 40리 산길을 뚫아내려와 전체 탐사대원들의 위임에 의하여 묻는다는등, 어느 돌격대 방송원인데 지금 야간전투를 하는 전투원들이 노래가 아니라 경기소식을 묻고있다는등… 나중엔 아, 호랭이같은 목소리가 내 아무개 군당책임비서입니다 하질 않겠나요. 또 축구경기소식때문에 그러시느냐고 물었더니 지금 그 방에선 회의중인데 사람들이 온통 그 생각만 하고있으면서 꺄꺄 웃어요. 근데 마침 응원갔던 우리 막내녀석이 덩실덩실 뛰어들어와 경기소식을 알려주길래 난 너무 기뻐서 〈책임비서동지, 우리가 이겼답니다. 우리 선수들이 두풀이나 슛 했답니다!〉 하구 소리쳤지요. 했더니 그 쪽에선 뭐 내가 풀잉이라도 한것처럼 감지덕지해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귀 잡고 큰절 받으시우.〉 하질 않겠나요. 내 그래 너무 바빠 수화기를 턱에 건채루 넘적 었드려 맞절을 했수다요, 호호호…》

웃음이 터졌다. 어찌나 생동한지 《바이올린》은 손수건까지 꺼내들고 꺄꺄 눈굽을 문대는것이였다.

하긴 우리 지도국에도 그런 열띤 《체육광》들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나부터!

나도 젊은 시절에는 무분별한 체육열기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화들을 《창조》해냈던가.

…그때 우리 차에 새 처녀차장이 배치되어왔었다. 이마가 볼록 튀어나온 그 처녀는 영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난 자동차운전사양성소를 졸업했지요 뭐, 최우등으로! 뭐 그래야 녀자들한테두 〈십발이〉를 맡겨준다나요. 난 대형화물차를 운전하는게 소원이었어요. 헌데 정작 졸업을 하니까 무궤도전차사업소에 배치하지 않겠나요. 그것두 표나 받는 차장으로… 하지만 난 타발하지 않았어요. 뭐 단번에 올라가는 나무가 있을라구요. 그러니 동생처럼 생각하구 절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하지요?》

하지만 나는 속으로 코방귀를 뀌었다.

《홍, 별 계집애… 주체넘게스리…》

한번은 모란봉경기장(당시)에서 국제경기가 있었다. 엉치가 들썩거리는걸 겨우 참고 가까스로 경기장앞을 지나가는데 손님들은 왜 또 불는 불에 키질을 해대는지. ...

그들은 입장시간이 지났으며 이구동성으로 차를 세워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규정위반이었다. 하지만 풀떡거리는 젊은 가슴은 이미 분별을 잃어가고있었다. 예라, 모르겠다. 나는 집전기를 내리워놓고 나는듯이 경기장으로 달려갔다.

경기가 끝나기 바쁘게 날 살려라 돌아왔을 땐... 일이 났다.

교통안전원이며 사업소간부들이 눈마다 《고드름》을 똑똑 달고 지켜서있었던 것이다.

《동무 대체 제정신이요? 어디서 이런 망태기가 나타났는가, 영?》

《손님들이 어디 말을 들습니까. 조국의 영예가 판가리되는데 이앞을 그저 지난다면 공민될 자격도 없다는거지요. 인상들이 아주 험악했습니다. 그래 잠깐 세워주었더니 도무지 두사람만 내놓고는 몽땅 흩어져 달려가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두사람만이라도 태우고 갔어야지!》

《나와 차장동무를 말입니까?》

허허허... 그때 아연해서 나를 쏘아보던 차장처녀의 눈빛을 잊을수가 없다. 그후 그 처녀는 누구한테서 무슨 과업이라도 받았는지 나의 일거일동을 끈질기게 통제하려 들었다. 그 처녀의 눈은 그저 보통사람의 눈인것이 아니라 사령관들이 쓰는 십배물의 확대경같았다. 어떻게나 낯낱이 알아내고 따끔히 쏘아주던지...

두번째만에는 끝내 경을 쳤다. 글썽 세워놓았던 전차가 통채로 없어진게 아닌가!

나는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일생에 그렇게 놀라고 당황해보기는 처음이었다. 알고보니 그 주 제념는 《볼록이마》가 전차를 끌고 달아난게 아닌가. 허나 정작 전차를 찾았을 땐 육설은 커녕 아태도리가 매시시해와서 폴짝 주저앉고말았다.

그가 지금은 바로 나의 안해이다. 련애시절에는 또 얼마나 내속을 태워주었던가. 그의 자존심은 강하기보다 사나웠다.

그래도 생활에서는 나보다 선배랍시고 정인구가 풀어대던 일장 《철학》이 지금도 생각난다.

...공격해야 한다, 방어는 여자들의 것이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은폐호》와 《전호》들을 굴설해놓고 어디 덤벼만 들어봐라, 땅 하고 쏘아줄 벌총까지 재워든채 잔뜩 독을 품고 20대 전역을 내다보고있는듯싶지만 실은 은근히 자기가 차지한 방어구역에 향해 죽기로 돌격해올 사나이를 기다리고있는 것이다.

또 그들의 뒤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친척, 친우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전략적예비대》가 도사리

고있지만 어쨌든 종당에는... 누군가에게 저주고마는 것이다. 결국 그들이 지키는 《방어선》이란 그저 맹승하게 《진지》를 빼앗기기엔 그것이 너무도 소중한 것이어서 종당에는 그중 한사람에게 점령당할것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놓은 《허위진지》에 지나지 않는다. ...

물론 너무 야박스러운 표현인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하여 녀자들은 후날 멋없이 우둘렁거리는 사내들에게 이렇게 시카스를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닐가.

《아유, 내 그때 안 살가 하다가 당신 정열을 보구 살아줬지. ...》

...승객들의 이야기는 차가 정류소에 멎어서는 것과 함께 잠시 중단되었다.

내리는 사람은 없었는데 배낭을 지고 귀덮개를 내리운 군인이 올랐다.

한밤중에 웬 군인인가 해서 다시 살펴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 《명이야!》 하고 소리치며 일어설번 하였다.

이럴수가 있는가. 범이 제 소리 하면 온다더니 그는 바로 정인구의 아들 정명이었던 것이다. 깨끗한 솜옷차림이었는데 령장은 이미 군복킷에 흐릿한 흔적만 남겨놓고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 제대됐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치자 나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금시라도 너 어데 배치받았느냐 하는 물음이 터져나올것만 같았던 것이다.

흔히 물음은 대답보다 쉽다고 한다. 하지만 그 순간 나에게서는 그 한마디를 묻기가 무엇보다 힘들었다.

그는 차안에 올라서자 모자를 벗더니 힐끔 빈 자리들을 훑어보고나서 바로 한줄 건너 내앞에 와 앉았다.

(저 앤 어떻게 되어 하필이면 이 차를 탔을가. ... 우연인가?)

문득 언제인가 정명이 보내온 새해축하장을 받던 때가 생각났다. 군사우편엽서를 받는 순간 너무 기뻐서 한달음에 궤도전차사업소로 달려갔었다. 그때 정인구는 전차지봉우에 올라서서 집전기를 수리하고있었다.

《정동무! 어서 내리오. 빨리!》

그런데 그는 내려올념은 하지 않고 시큰둥해서 내리묻는 것이다.

《왜 그러나?》

《글썽 내려오라니까.》

《아직 두돌이 더 해야 해.》

《답답하다구야!》

이번에는 내가 참지 못하고 벌렁벌렁 지봉우에 게바라올라갔다.

《어, 주의하게.》

어지간한 몸집을 기우뚱거리며 올라서는 나를

붙잡아주며 인구가 하는 말이였다.

나는 대뜸 그의 코밀에 우편엽서를 들이밀었다.

《명이한테서 소식이 왔네, 군사우편으루!》

그러자 정인구는 어느새 그것을 나꾸어채서 들여다보았는데 어찌나 결탐스럽게 읽어가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것 같았다.

그것도 한순간... 정인구의 비좁은 미간에 석줄 짜리 잔주름이 잡혔다.

《내게두 왔네. 한판짜리 편지가...》

《뭐이?! 그래 뭐라든가?》

《제대된다 해두... 여기로는 올수 없을거라네.》

《왜?》

《자기네 분대장이 하는 말이... 예, 됐네.》

나는 속에서 쓴물이 끓어올랐다. 차라리 정인구가 길길이 날뛰면서 뺨풀이라도 해뒀으면 좋으련만... 얼굴이 꺼매서 망두석같이 서있는 그가 지어 불쌍해보이기까지 하였다.

나는 바람을 맞받아 옷자락을 너풀거리며 서있는 인구의 어깨우에 무겁게 손을 얹었다.

《소원이 없으면 마음이 시든됐지. ... 민자구, 군복을 입었으니 꼭 훌륭한 사람이 돼서 돌아올걸세.》...

그러나 정작 속에 별려온 그 순간을 뜻밖에 맞고보니 심장이 두근거리며 말을 뱉수가 없었다.

마침 동보로리사녀인이 정명이쪽을 건너다보며 말을 걸었다.

《제대군인인가 보지요?》

《예, 평양이 고향입니다.》

제대군인, 평양... 그 무게있고 의미깊은 말 몇마디로 하여 정명은 대번에 이 막차안의 주인공이 된듯싶었다.

노상 말이 없던 《바이올린》까지도 《참 수고가 많았겠소.》하고 정중한 인사를 나누는것이였다.

《집이 강건너쪽인가요?》하고 패기머리가 묻는다.

《아니, 우리 옛 분대장동지를 찾아갑니다.》

정명의 대답에 나는 흠칫 하였다. 분대장이라...

모난 기회때마다 벌써 여러번 듣는 말이다.

《그래 배치는 받았소?》

하고 《바이올린》이 묻자 나는 그만 숨이 턱막히는것 같았다.

나는 털모자를 더 깊숙이 눌러쓰면서 그의 등뒤에서 깡그리 귀를 모았다.

《예, 별로 한일도 없이... 대학추천을 받았습시다.》

《그렇소? 그것 참 잘됐구만!》

승객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그러나 나의 혀끝에서는 쓰디쓴 침방울이 똑똑 돌아나는 것만 같았다.

(그러니 《두번째 배반》이로구나!)

한동안이 지나도록 나의 귀전에는 정명의 목소리가 공명되는듯 그냥 들려왔다.

물론 군사복무를 마치고 훌륭한 복무의 표창으로 상급학교에 추천받아 오는것도 좋다. 하지만 정명이, 너야 류다른 사연을 안고있는 사람이 아니냐. ...

사실 나는 로총각의 첫정이 있어서였는지 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제 자식 못지 않게 인구의 아들을 고와했다.

한번은 오래간만에 시간을 내어 그의 집에 들렀더니 그 애가 자꾸만 옷자락을 쥐여당기며 방안문을 가리키는것이였다. 그래 열려져있던 그 문을 닫고보니 뒤면에 요란한 경쟁도표가 붙어있었다.

이마뺨에 올리붙은 제목을 읽는 순간 나와 정인구는 너무도 어이없어 배를 그러쥐고 폭소를 터뜨렸다.

거기에는 빼뺨뺨한 글씨로 다음과 같이 써여져있었다.

《나한테 뭘 갖다준거.》

그다음 구분란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서건 맨 나중에는 《작은아버지》하고 나까지 차렷자세로 세워놓지 않았는가! 순위로 보면 나는 영낙없이 맨 꼴찌였다.

그래 다음날 생활비를 똑 떼서 사탕과자를 뒤되박 사다주었더니 《작은아버지》의 빨간줄이 단박에 천정에 가붙었다.

그런데 세월은 참 살같이...

《부모님들이 참 기뻐하시겠소.》하고 《바이올린》이 말하였다.

《그렇가요?》

《그렇가요라니, 제자식 잘되는걸 마다하는 부모도 있겠소?》

《사실 저의 아버지는 궤도전차운전수였구... 나 역시 이 궤도전차를 몰게 하려고 했습니다.》

승객들은 놀라운듯 그의 말을 되받아 외웠다.

정명은 담담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계속해나갔다.

《...그런데 전 철없이 엇드레질을 하다못해 아버지몰래 직업을 옮기구 나중엔 집을 떠나 합숙으로 나가버렸지요. 아버지가 곧 년로보장을 받게 된다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을 때 전 정말 잠들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죄스럽게 돌이켜지던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게 정말인가?

패기머리의 어깨너머로 정명의 넘적한 잔등이 어룡거린다. 그렇다면 두번째 선택은 왜 또 달리했단 말인가.

《...제가 인민군적인 축전에 내놓을 소묘창작을 포기했다는 말을 듣자 우리 분대장동지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난 그때 말했습니다. 연필만 들면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만 얼른거려서... 난 집에 돌

아가 궤도전차를 타겠다고 말입니다. 그때 분대장 동진 내게 말했습니다. <명이, 이런 말이 있어. 많이 물어볼수록 길은 멀어보이구 적게 물어볼수록 가까와보인다. ... 마음 흔들리면 안돼.>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는 분대장동지도 대답을 못하더군요. ...>

우리는 모두가 정명이의 이야기에 부쩍 심취되어 숨을 죽이고있었다. 그런데 이때 운전실쪽에서 차갈 부서지는 소리 같은것이 들리더니 차가 똑 떨어져서는것이였다.

《뭇니까, 운전수동무?》

그쪽에서 《고장입니다!》 하는 뚱뚱한 소리가 넘어왔다.

절커덕 문이 열리는것과 동시에 차거운 바람이 훑 쓸어들어와 차안을 한바퀴 휩쓸었다. 이젠 벌써 쉽게 퇴치할 고장이 아니니 바쁜 손님들은 내려서 걸어가라는 운전수의 미안스런 부탁이다.

밖을 내다본 료리사가 탄성을 지르며 일어섰다.

《애개개! 또 딱 우리 집앞에서 세우네. 호호... 이렇게 신통할테라우야.》

《거 아주머니네 집에서 누가 원격조종을 하는게 아니요?》

패기머리가 받아주자 벌써 차문을 내려섰던 여인은 다시 돌아서서 얼굴까지 들이밀며 수선을 떨었다.

《글쎄, 우리 <범달님> 이 그러시나...》

더러는 그 모양이 우스워서 또 더러는 하는 말이 우스워서 모두가 웃었다. 일단 웃음이 멎자 분위기는 어쩐지 머쓱해졌다.

나역시 그냥 있어야 할지 아니면 내려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때 운전실안에서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차장과 운전수사이에 무슨 의견이 생긴 모양이다.

《바이올린》이 몇번이나 갑자르더니 운전실문을 조심스럽게 푹푹 두드렸다. 마치 싸움도중에 이거 정말 안됐습니다 하고 랑해라도 구하는듯...

《오래 걸리는가요?》

대답대신 문이 벌럭 열리더니 단발머리차장이 쿵쾅거리며 나왔다. 《바이올린》은 흠칫 놀라며 눈이 휘둥그래졌다.

뒤따라 고수머리에 작업모자를 빼박하게 눌러쓴 운전수총각이 후닥닥 튀어나오더니 《인차 연락을 하고 오겠어.》 하고는 어둠속으로 사라져버린다. 그런데도 처녀는 울음길에 꽤 간편인지 그냥 후속거리다. 보다 못해 《바이올린》이 그를 달래자 처녀는 총각이 사라진쪽을 향해 토달거리는데것이였다.

《맹꽁이같은거. 예비부속을 신고 떠나라구 운전수동지가 그렇게 말했는데 듣지 않더니...》

이런, 처녀가 총각을 보고 맹꽁이란단다.

《아니, 그럼 이자 그 사람은 운전수가 아니란

말이요?》 하고 놀라운듯 《바이올린》이 물었다. 《사실 이 차 운전수는 우리 청년비서동지예요.》

《그러니 동무넌 실습생이요?》

《예. ... 아, 아니요. 우린 양성소를 졸업했어요. 하지만 단독운행은... 그런데다 매일 아침엔 첫차로 나가야 할텐데...》 하더니 또 울음을 터뜨릴듯 울상이 된다.

판이 글렀다고 생각했는지 설렁거리던 《바이올린》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그때야 편뜻 정신이 들어보니 정명이도 어느새 벌써 사라졌는지 차안에는 나와 패기머리만이 남아있었다.

그가 두덜거렸다.

《젠장! 같이 넘어지고도 제각기 상처를 비빈다더니... 아바이도 바쁘시면 어서 가보십시오.》

어찌보면 좀 무례한 언사였지만 나는 빙그레 웃으며 대꾸했다.

《바쁘지. ... 하지만 차가 고장난걸 보구서도 그냥 달아뺄면야 사람속이 아니지.》

패기머리가 일어서더니 덩석 내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아바이, 고맙습니다! 까짓거, 우리 손으로 휘딱 고쳐냅시다.》

《자네 기계속을 좀 아나?》

《군대뎌 포차를 끌었습니다. 지금은 단전기 관차대에서 기관사로 일하구요. 이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껄껄 웃으며 유쾌한 젊은이의 어깨를 톡쳤다.

《그럼 해봅세!》

그러나 정작 일에 달라붙자 큰소리를 땡땡 치던 패기머리는 곧 나의 조수격이 되고말았다.

《히야, 거 아바이썰씨도 팬찮은데요. 안경은 끼셨지만서두 전차내속은 항아리 들여다보듯 뻥합니다요.》

《내 실은 무궤도전차운전사 출신이야.》

그러자 패기머리는 그게 정말인가 눈이 둥그레 지더니 자기가 앉았던 좌석밑에서 좀 민하다 할 정도로 큼직한 배낭을 끌어내는것이였다. 그것을 마주 받아주던 나는 허리가 시큰하게 무게가 실리는 바람에 어지간히 놀랐다.

《아니, 이게 대체 뭐가?》

《나도 뭔가 이바지해야지요.》

배낭을 터치자 그속에는 온통 쇠붙이들이였다. 패기머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마치 소학교신입생들의 출석을 부르듯 재미나게 호명을 해나갔다.

《이공팔배아링에 볼트나트가 열조, 차축메달... 어이구, 절연니스도 한통 있습니다. ...》

《아니, 이런건 어데서 다...》

그는 대답없이 벌써 웃기만 했다.

나는 그의 배낭과 구리빛얼굴을 나중에 어디다 복사라도 해내려는 듯 오래동안 바라보았다. 얼마나 좋은 젊은이인가.

차장처녀도 어느새 말끔 눈물을 거두고 우리 주위를 팔랑팔랑 나비처럼 맴돌았다.

《어마나, 그럼 아바이도 우리 러객운수소속에 제쳤겠네.》

《그럼.》

《지금은 뭘 하세요?》

《인생가요의 제3절을 부르지.》

《어마, 우리 교관아바이하구 딱 같이 말쑥하구!》 하면서 처녀는 동그랗게 토끼눈을 그리며 손뼉까지 딱 마주쳤다.

《그게 뉘데?》 하고 나는 시치미를 떼며 물었다.

《우리 교관아바이는 엄한분인데 글썄 한생을 전차선과 함께 사셨대요. 바로 이 차를 운전하셨어요. 아바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키워서 그한테 이 차를 넘겨주려고 했더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훌쩍 달아났지요 뭐.》

《뭘 달아나기야 했겠나. 뒤에서 누가 조작질을 했겠지.》

《갈구갈지요 뭐. 여하튼 아바인 차를 내리면서 몹시 괴로와했대요. 헌데 기적이 일어났지요.》

《기적이라니?!...》 나는 놀라서 되물었다.

《최전연에서 복무한 끝끝한 제대병사가 아바이네 집을 찾아왔더니요. 바로 우리 청년비서동지랍니다.》

《그 청년비서의 이름이 뭐라구?》

《리상혁이예요. 키가 이렇구...》

보매 이 처녀는 자기 청년비서에 대한 공지가 대단한것 같았다. 그럼에도 또 한가지 자랑을 덧붙이는것이다.

리상혁이라... 궤도전차운전수라면 분명 내 손을 걸쳐 배치를 받았겠는데 아무리 굴려봐야 생각나지 않았다.

《헌데 오늘 저녁 운행은 왜 그가 말지 않았나?》

《글썄... 아무튼 대단히 중요한 일이 있대요. 인생중대사를 결정한다던지. ... 사업소에선 모범청년동맹원들이라고 우릴 친구 운행을 맡겼는데...》

(인생중대사라...)하고 가만히 입속으로 외워보느라니 문득 지금쯤 집에서 속이 까매서 기다리고있을 안해와 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이때 폐기머리가 끼여들며 차장처녀에게 중편보듯 말을 건넸다.

《두줄기궤도, 중량화물방통, 빵— 기적소리를 울리며 강성대국건설로 들끓는 조국땅 방방곡곡으로!... 기차는 참 멋있지요. 그런데 동문 이렇게 제한된 로선만을 채바퀴돌듯 뱅뱅 돌아가자니 답답하지 않소?》

《왜 답답해요?》 하고 처녀는 단박에 두눈을 땡그랗게 모아뜯다.

《중량화물이 어떻구저뽕구해도 주체는 역시 사람들이거던요.》

제법 룩룩치 않게 철학을 풀 잡도리다.

《또 승용차운전사는 어느 한사람을 태우고 다니겠지만 우린 연구사도, 체육인도, 고급기능공도 다 태우고다니지 않아요.》

한번은 내가 차안에서까지 도면을 들여다보고 서있는 아주머니를 차장자리에 앉혀준적이 있었어요. 내 말뜻을 알겠어요? 그저 보통 아주머니로 보이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글썄 며칠후 저녁보도시간에 그 아주머니가 텔레비존에 나오는게 아니겠어요. 최첨단공학기계연구에 참가한 박사선생님이였어요!》

처녀는 그때 일이 참 잊혀지지 않는다는듯 눈을 감고 가슴우에 두손까지 가볍게 모아쥐는것이였다.

나는 그 종달새같은 차장처녀의 말을 병싯해서 듣고있는 폐기머리를 보자 웃음을 금치 못하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그런즉... 이체는 다르게 없네. 분명 베아링에 문제가 있어. 아까 그 소릴 들었지?》

나는 운전실에 들어가 전원절체기를 돌린 다음 전동기베아링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어데 편락을 하러 간다던 운전수총각이 숨을 헐떡거리며 나타났다. 떠날 때와 달리 아주 만족한 기색인것으로 보아 갔던 일은 썩 잘된듯싶었다.

차장처녀는 그의 말을 몇마디 듣고나서 《이제 보라요.》 하고 자기네 청년비서가 마중을 온다며 으시댄다. 마치 자기들이 고장을 내서 우리앞에 청년비서를 내세우게 된것이 자랑스럽기라도 한것처럼.

우리는 다시 일에 달라붙었다.

폐기머리가 부지런히 공구를 섬겼다.

퍼그나 품이 먹는 작업이였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공공거리는데 갑자기 폭대기에서 웬 녀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구 숨차. ... 아, 이렇게 풀썩 주저앉아 있는걸 우리 형감님은 괜히 들볶아대면서... 아우, 아바이도 제쳤구만요.》

머리를 들어보니 똥보료리사가 랑손에 묵직한 구력을 나누어들고 반색을 하며 내려다보고있었다.

《아니, 아주머니가 어떻게?!》

《나야 료리사가 아니냐요. 싸우는 고지에 식사를 보장해야지요.》

그뒤로 약속이나 한듯 《바이올린》까지 나타났다. 활긔는 사람에게 무슨 신통한 재간이 있으랴만 그래도 오자바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것이였다.

나는 구태여 어데 갔다오느냐고 묻지 않았다. 전동기를 분해해보니 역시 베아링이 깨어져나갔



다. 그것을 뽑아내느라고 서로 잡아당기다가 그만 패기머리가 벌렁 나가자빠지며 그리스통을 깔고앉았다.

《아이쿠!》

영평판이 엇가마에 담그었다 나온것처럼 가관이 되었다.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예비부속이 도착하는 차례로 인차 수리를 할수 있게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나서 간단히 요기를 하였다.

너인은 그때까지 품에 끼안고있던 더운물을 범랑고뿌에 찰랑찰랑 부어주었다. 뜨끈한게 속을 쪽 훑어내리자 어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이윽고 나는 한발 먼저 자리에서 나앉은 《바이올린》에게 다가가며 말을 건넸다. 짐작했던대로 그는 국립교향악단의 바이올린연주가였다.

《퇴근시간이 항상 그렇게 늦어지는가요?》

《퇴근시간이야 맞춥하지요. 실은 딸때문에 어쩔 좀 다녀오느라구...》

《예. ...》

역시 자식문제다. 아마도 사람들은 인생 후반부의 여가시간을 거의나 다 자식들때문에 써버리는것 같다.

《이번에 예술학원에 시험쳤지요. 그래 〈뒤공작〉을 했습니다.》

《뒤공작이요?!》

나는 정말 뜻밖의 소리라 믿어지지 않아 되물었다. 보매 젊잖은 사람이 이렇게도 공공연히?!...

《거기 부원장이 나와 막역지우랍니다.》

《그러니 뜻대로 뻤겠구만요.》

《예, 딸애를 뻔구기로... 동의했습니다.》

《?!...》

《우리 애한테 음악가로서의 재능이 없습니다. 아프지만... 난 그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버지가 예술가인데...》

《아버지라구요? 여기에 아버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그는 거의나 도전적으로 물어왔다.

(무슨 상관이라...)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는 지금껏 자식들의 일, 더우기 운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양보할수 없으며 전적으로 간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나와 같이 자식을 둔 이 아버지는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 주저없이 말하고있는것이다. 과연 누가 옳은가?!)

내가 대답이 없자 그는 또 이렇게 공격을 들이댔다.

《예, 그러니 대를 잇는 문제가 이를테면 평대신 님이라 뭐 그래도 무방하다는겁니까?》

이렇게도 말쑥하게 반박한다구야. 그는 반응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의 열손가락을 쪽 펴며 말했다.

《가령 우리 교향악단이라고 봅시다. 사람은 열

명을 쓰지요. 그런데 가짜가 하나 끼여들었습니다. 그럼 진짜는요?》

《하지만 말입니다.》 하고 나는 반박하였다.

《여하튼 부모가 하던 일을 그 자식이 잇는거야 나쁘다고 볼수 없지요. 물론 능력상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나 사람들이 선뜻 말아나서기를 주저하는 그런 일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지요.》

나는 정인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싶었다.

정인구... 누구나 그의 생애 대하여 《훌륭했다.》고 말들은 한다.

그러나 정작 그와 같은 인생을 동무도 다시 반복하여 사시오라고 한다면 선선히 응해나서기는 힘들지 않는가.

《물론 그렇지요. 나역시 그런 훌륭한 젊은이들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소질과 재능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만은 문제가 다르지요. 나는 범일 반적인 선후대관계에서가 아니라 내 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겁니다.》

그리고나서 《바이올린》은 자기의 견해가 무조건 옳다는 뜻인지 아예 입을 꼭 다물어버렸다.

나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래, 이 연주가의 말이 지내 뽕족한것은 사실이지만 역시 무엇인가 생각해볼 가치는 있는것이다. 어찌 보면 방금전에 정명이가 들려준 분대장의 이야기와도 비슷하지 않은가. 계승이라고 할때 우리는 전 세대가 지녔던 정신력을 넘두에 둔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우리들속에는 이 거대한 의미를 〈직업의 이전〉 정도로 리해하고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는 그때 누군가 다급히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불빛가까이 얼굴이 나타났을 때 나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여전히 령장없는 군복에 털모자를 눌러쓰고 배낭을 추슬러며 나타난것은 다름아닌 정명이였던것이다.

발판을 짚기 바쁘게 그는 말하였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허연 입김이 뿜어져나왔다.

모두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쏠리자 그는 군복상의가 팽팽해지도록 가슴을 힘있게 내밀며 또박또박 씹어서 보고하였다.

《제대병사 정명, 대렬에 들어설수 있습니까?》

갑자기 그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나와 눈길이 마주쳤던것이다.

《날 알아보겠니?》 하고 나는 조용히 말하였다.

오랜 속썩임끝의 상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평이한 첫 대화였다. 그 목소리가 이상스러워서인지 아니면 털모자를 푹 눌러쓰고 안경까지 걸친 나의 모습이 낯설어서인지 그는 푹 굳어진채 이윽도록 바라보고만 서있었다.

《로병아바이일세. 선후부터 전차를 몰았다네.》 사연을 알수 없는 패기머리가 제나름대로 희떠운

해설을 달았다. 정명은 움썰 어깨를 펴더니 내 쪽으로 한걸음 다가섰다.

(알아보았구나!)하는 생각이 머리를 치자 나는 불빛을 향해 머리를 돌리며 그를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내다. 박유천이다.》

《아...저씨!》

그 말은 어찌나 가늘게 새어나왔던지 나는 들었대기보다 눈으로 보았다. 그제야 무슨 감촉을 받았는지 주위사람들도 엉거주춤 자리를 비켜섰다.

정명의 차거운 손이 나의 몸을 와락 그려안았다.

《아버지랑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이렇게 문득 돌아오는걸...》

정작 가슴에 파고드는 정명의 머리를 쓰다듬자니 코언저리가 찡해왔다. 이제야 무엇인가 짐작된다는듯 료리사녀인이 끼어들며 허를 끝끝 차냈다.

《그런 사인절 아까부터 모르쇠를 했었구만요! 참, 아바이두...》

나는 저마끔 떠들어대는 승객들의 손에 이끌려 새롭게 자리를 고쳐앉았다.

《아버지한테 알렸니?》

《날 많이 욕하셨겠지요?》

서로가 동문서답이었다.

《아니, 무슨 인사들이 그렇습니까?》하면서 꽤 기머리가 또 끼어들었다.

우리는 그때에야 서로 통성을 했다. 내가 지금도 지도국에서 일을 본다고 하자 금시까지 재잘거리던 차장처녀는 어찌나 놀라던지 얼굴에는 지어 경계하는듯 한 인상까지 지으며 고슴도치처럼 몸을 도사렸다.

《정명아!》하고 나는 입을 열었다.

《그... 아까 하던 얘기가 있었지. 너의 분대장에 대한...》

그러자 그는 약간 실눈을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는데 어째야 할지 잠시 가늠해보는것 같았다.

《사실 전 지난해에 제대된 분대장동지를 찾아가던 길이였습니다. 이자 전화를 걸어보았었는데 받지 않더군요만요.》

《그사이 장가라도 들었는지 알겠나. 혹시 우리 집처럼 전화번호가 바뀌었을수도 있지.》

료리사가 어느새 감정마당에 뛰어들어 제일처럼 걱정을 해주는 말이였다. 정명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우리 집은 군인가정〉 노래를 압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몰라서가 아니였다.

모두가 잠자코 생각에 잠겨 아까 동강났던 이야기의 끝마리를 찾아 정명의 질문과 련결시켜보는것이였다.

《어느날 군중문화시간이였습니다.

우린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보내주신 화면반주 음악기재로 노래를 불렀는데 내 순서엔 바로 그

노래가 짚였습니다. 난 한절밖에 부르지 못했지요. 아시지 않습니까. 다들... 그 노래 다음절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두가 거의 동시에 그 노래를 속구구해보았다.

아버지의 전호가에 아들이 서고

어머니가 섰던 초소 딸이 지키네

...

《...그날 취침시간이 지나서 분대장동지가 날 찾더군요. 교양실에서 마주앉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따라가면서 제나름대로 그 광경을 그려보았다.

...교양실창문밖, 밤에 내리는 봄비...

보슬보슬 내려서는 연푸른 잎새우에서 장난꾸러기들처럼 서로 불안고 간지럼을 피우며 캐득거리다가 점차 불어나는 몸무게에 못견뎌 툭툭떨어져내리는 몽툭한 비물소리...

이밤이 새면 제대명령을 받은 분대장은 떠나간다. 그는 창밖에 손을 내밀어 축축한 보슬비를 두손바닥에 받아본다.

《땅이 좋아하겠구만. ...》

이렇게 문득 한마디 하고는 생생한 자연그대로의 봄냄새를 맡아보려는가 젖은 두손을 얼굴에 가져간다. 이어지는 분대장의 목소리...

...물론 노래처럼 사는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는것은 아버지세대가 지냈던 그 녘, 그 정신을 따라배우자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것이다. 만약 동무에게 그것으로써 우리의 건설과 투쟁에 보다 훌륭하게 이바지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바로 그 선택이 진실로 아버지를 위한것이며 우리 당이 바라는것임을 명심하라. ...

정명은 대답이 없다. 아마도 아버지를 생각하는듯...

분대장은 새로 장만한 소묘용연필묵음을 꺼내놓으며 이야기한다.

...계승이란 결코 《모조》가 아니며 사도지를 대고 그려내는 《복사》도 아니다. 나는 동무가 모양만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

《모양만 같은 사람》?...

정명은 중학시절에 체했었던 한가지 사실을 추억해본다.

...소묘수업 용비닐사과를 쳐들고 선생님이 물었다.

《동무들, 이게 뭐니까?》

《사팍니다!》

그다음은 싱그런 향기가 물씬 풍기는 진짜 사과를 쳐들며 물었다.

《그럼 이건 뭐니까?》

《사ပါတ다!》

선생님은 빙그레 웃었다. 그러자 아이들도 자기의 대답이 어딘가 좀 별나다는것을 느꼈다. 선생님은 이야기했다.

《모양은 같지만 〈사과〉와 사과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정명의 연필이 달린다. 땀배인 한장한장의 그림들이 모여서 화첩 《보람찬 병사시절》이 태어난다.

중대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야외휴식장에 게시된 정명의 그림들을 몸소 보아주시고 것처럼 만족하시여 그림도구일식을 안겨주시었다. ...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이 동무의 아버지는 평범한 노동자라는데 그런 가정에서 이런 보배덩이가 나온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복무의 나날에 다져온 군인정신과 높은 실력으로 강성대국건설에 보다 쓸모있게 이바지하면 집에서도 모두 기뻐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때에야 저는 푹푹히 알게 되었습니다. 참다운 계승은 바로 부모자식간의 료리도덕이나 리해타산을 따르는것이 아니라 시대와 혁명의 요구앞에 진정한 자기쓸모를 찾는 바로 그런것이라는것을 말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뒤 나는 인차 대학추천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우리는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에 대하여, 또 자식들에 대하여 생각하고있는것 같았다.

이것이 결국 내가 생각한 정명의 《두번째 배반》이었다. 첫번째와 두번째... 어찌보면 두번 다 《배반》이라는 공통괄호안에 넣을것 같지만 그것들사이에는 《사과》와 사과처럼 얼마나 커다란 질적차이가 있는가. 나는 가슴이 뿌듯해짐을 느꼈다.

고요한 밤하늘의 평한 대기를 헤가르며 나의 옥땀했던 좁은 속을 더뜨려주듯 평양역 시계탑의 종소리가 멀리서 땡땡 시원스럽게 울려왔다.

《그 분대장 말이다, 지금은 제대돼서 무슨 일을 하지?》

나는 정명에게 물었다.

그는 미안한 기색을 지으며 설레설레 고개만 젖는다.

《바이올린》이 무게있게 대변하였다.

《훌륭한 사람의 이름은 저절로 알려지는 법이요.》

나역시 그 말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멀리서 궤도전차의 불빛만 보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앉아있었을것이다. 거리가 점점 가까와지자 드릉드릉 레루의 진동이 우리가 탄 차칸에도 퍼져오고 머리우에서는 스크스룩 전차선 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따금 평곳

평곳 불꽃이 일었다.

운전수와 차장처녀는 마치 한 실오리에 비끄러땀던 새들처럼 동시에 날아올랐다. 밖에서는 곧 반가운 환성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성에불린 차창을 입김으로 녹이고 창밖에 눈길을 모았다. 전조등빛을 등지고 거울친 체격의 사나이가 랑쪽에 차장, 운전수를 끼고 성큼성큼 걸어오고있었다.

이때 또 한사람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정명이었다. 천천히 모자를 벗어드는것이 보인다.

무슨 일인가?! 나는 궁금하여 조심스럽게 차칸에서 내려섰다.

운전수와 차장이 류다른 기미를 눈치챘는지 슬금슬금 옆으로 물러섰다.

차장처녀가 내게 다가와 귀속말로 속삭였다.

《우리 청년비서동지요. 아까 말하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무말 말라고 췌 손시늉을 했다.

그 순간 나는 정명의 입에서 제 목소리와는 너무도 다르게 흘러나오는 소리를 푹푹히 들었다.

《분대장동지!》

이것은 참으로 상상밖의 일이었다.

그 소리는 나만이 아닌 모두가 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들중 누구도 깜짝 놀라거나 의문스러워하는 사람은 없었다. 마치 응당 그렇게 될 줄 미리전부터 알고나있은것처럼.

《그러니 분대장동진...》

정명의 격한 목소리가 울려온다.

《동문 언젠가 내게 물었됐지.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구... 이게 바로 그때 할수 없었던 나의 대답이랄가...》

그 청년의 얼굴에는 분명 만족한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그럼 그렇다구 소식이라도 한장 띄우면 안 됩니까?!》

《뭘 그래. 이제 아버지앞에 찾아가 우리 모든 걸 더놓자구. 동문 참 훌륭한 부모님들을 모셨더구만.》

《분대장동지...》

정명의 마지막음성이 그만 꺾 막힌다.

《허, 허허, 허허허...》

나는 그만 실성한듯 그냥그냥 웃어댔다.

혹시 딸애가 말하던 운전수총각이 저 청년은 아닐가. 그러면 덮어놓고 합격도장을 땡 찍어주는건데... 아닌들 또 어떡랴.

참 얼마나 좋은 청년들인가.

나는 젊은 시절 사랑의 고백을 안고 처녀앞에 다가섰을 때와 같이 흥분된 마음으로 휘적휘적 어디론가 걸음을 옮겼다. 차를 타고가다니, 이렇게 좋은 밤에...

헌데 어디로 갈가? 이제는 집에 가도 그 운전수

총각을 만나기는 틀렸거니와 집에 가도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차라리 궤도로선을 따라 어디까지든 걸어보자. 그러느라 정인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역시 지금 이 차를 기다리고있을런지도 모른다.

(능구렁이같이니... 저렇게 멋진 젊은이를 얻

고서도 내겐 말 한마디 앓다니... 이제 리상혁이가 정명이까지 척 앞세우고 나타나면 그가 얼마나 놀랄텐가!)

드디어 멀리 등뒤에서 되살아난 궤도전차의 종소리가 정답게 들려왔다.

한생과도 같은 하루밤이었다.

~~~~~

작가연단

## 생활의 분석가가 되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를 탐구하는 과정은 현상으로부터 본질으로 파고드는 과정이다. 작가는 생활현상을 관찰하는데 머물지 말고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현상으로부터 생활의 본질으로 끝까지 파고드는 철학적사색과 탐구능력을 가져야 한다.》

인간과 그의 생활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가. 그리고 우리 시대가 격류쳐흐르는 현생활은 또한 얼마나 거창하고 드세차고 갈래 많으며 아름다운가. 이 아름답고 휘황한 인간들과 그의 생활을 문학작품에 담는 작가들은 그 생활과 그 인간들의 세계를 깊이깊이 들여다보고 파헤치며 시대의 정의와 진리를 끄집어낸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작가들은 인간과 생활의 분석가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있었다.

인간과 그의 생활을 현상적으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파고들어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참된 인간과 그 생활을 문학의 기름진 형상으로 진실하게 펼쳐는데서 작가의 분석력문제, 종합사고력문제는 매우 필수적이다.

그것은 작가의 분석종합능력에 의하여 작품의 사상적알맹이—핵이 발견되고 핵으로부터 인간과 그의 생활을 하나로 꿰수 있는 주제가 뻗어나가며 그 결과로 작가의 사상미학적주장이 열매맺기때문이다.

문제는 작가가 생활의 본질—핵을 발견하기 위하여 분석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며 그 폭과 깊이를 어느 정도로 확산시키고 종합하는가 하는것이다.

작가의 분석종합력에 의해 작품의 철학성이 좌우된다고 볼 때 특히 소설창작에서 이 문제를 중시하고 꾸준히 해결하여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무게있는 작품을 끊임없이 창작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몇해어간에 창작되어 사람들속에 널리 읽히고있는 두 장편소설 《열망》과 《불타는 러명》의 창작경험을 들어 이를 입증하고싶다.

장편소설 《열망》의 창작초기에 작가는 이 소

설을 비교적 쉽게 완성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그자신이 어느 한 탄광기계공장과 연합기업소에 늘 나가살다싶이 한 충분한 체험에 의해 탄광기계부문의 생활을 잘 알고있다고 자부해왔기때문이었다.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에서 기사장을 부정인물로 그린 실례가 많으니 이번 소설에서는 기사장을 주인공으로, 긍정인물로 그리자. 주제로는 생산단위에서의 자력갱생문제를 제기하면 될것이고...

이렇게 생각한 작가는 예상대로 초고를 쉽게 끝내고 여러 작가들과 로동자들에게 의견을 청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제일 단순하게 생각했던 고리들에서 심각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우선 주인공설정문제에서 실재한 원형인물인 책임비서를 주인공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였고 또한 주제문제도 생산현장에서의 자력갱생문제가 새롭지 않고 매우 구태의연하다는것이였다.

작가는 심중한 자세로 자기의 초고를 맹목하게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확실히 종합채탄기를 우리 손으로 완성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갈등의 중심에 세워놓고 전개한 소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전혀 새롭지 않았다. 그런 류의 문제는 이미 다른 소설들에서 다 론의된것에 지나지 않았던것이다. 또 원형을 외면하고 현지의 기사장들속에서 제기된 기사장급들을 왜 자꾸 부정으로 취급하느냐는 의견에 치우쳐 연합기업소 기사장을 무력대고 주인공으로 내세운것도 사실과 어긋나는 억지에 불과하였다.

작가자신에 대한 분석도 따라섰다. 자신이 너무나 잘 아는 생활이라고 하여 작가적인 깊은 사색이 없이 무책임하게 쉽게 펜을 들었다는 자책이 들었다.

작가는 이 작품에 담고있는 생활 즉 선군시대 자력갱생의 본질을 분석적으로 투시해보았다.

그것은 자력갱생을 한다고 하면서 무엇이나 다 자체로 만들어 쓰려는 경향과 구체적인 원가를 타산하지 않고 되는데로 만들어쓰는 경향 등 이것들은 우리 당이 바라는 자력갱생이 아니라는것이였다.

어느 한 공장에서 자력갱생이 낳은 성과중의 하

나라고 자랑하는 전극문제도 실지 원가를 따져놓고 보면 랑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전극을 전문생산하는 공장들에 비해볼 때 자체로 만든 전극의 강철 톤당 소비량은 2배에 달하였다.

과연 기업소들마다에서 경제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의 경제는 어느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인가.

여기까지 한걸음두걸음 분석적으로 파헤치고보니 과연 짚이는것이 있었다.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실리의 원칙에서 자력갱생을 하는것, 오늘날 아니라 먼 후날까지도 나라의 경제발전에 리익을 주는 자력갱생을 하는것, 바로 이것이었다.

이것이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였고 동시에 문학적 형상을 안은 사상적알맹이었다. 비로소 찾아진 이 알맹이에 의하여 오늘의 《열망》이 태어났다.

작가가 처음에 사색하고 형상한 초고는 극히 현상적인것에 치우친 손쉬운 결과였으며 그만큼 가볍고 깊이가 없었다.

당정책에 의거하여 선군시대적견지에서 파고들고 또 파고든 사색과 분석의 종합적결과로 오늘과 같은 의의있는 소설이 창작되게 된것이다.

장편소설 《불타는 려명》의 창작과정에 대한 실례를 하나 더 들자.

《불타는 려명》을 창작한 후 작가는 《이 소설은 결국 3번 씌여진셈이다.》라고 말하고있다.

이 작품창작에서도 생활의 본질을 직접 체현한 주인공설문제로 하여 고충이 많았다고 말할수 있다.

처음에 작가는 큰 고충이 없이 주인공을 책임비서로 선정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작가가 찾아간 공장에서 제일 선뜻 두드러지는 사람이 책임비서였고 이때까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고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공장, 기업소에 대한 소설들의 대부분이 책임비서를 주인공으로 하여 씌여진터라 이번 경우에도 다를것이 없다고 작가는 생각하였던것이다.

구상이 다 무르익었다고 생각될무렵 그것이 안일하고 손쉬운 창작태도이며 오히려 류형성을 범하는 길이라는 심중한 충고를 듣게 되었다.

이번에는 그 주인공을 지배인으로 설정해보았다. 그래도 결과는 앞의 경우와 크게 다를바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종자를 똑똑히 잡아쥐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하면서 시간과 정력만 허비할뿐 씨가 박힌 작품을 내놓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말씀을 다시한번 되새긴 작가는 다시 로동계급속으로 들어갔다.

진지한 체험이 다시 시작되고 작품을 둘러싼 작가와 생산지휘일군들, 로동자들과의 현상심사가 격식없이 진행되었다.

그들속에서 제기된 일치한 의견은 작품에 단 몇 줄정도로 스치며 소개된 한 기술자 (그가 바로 후

에는 지배인이 되었다)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야 한다는것이였다.

이 의견을 들은 작가는 스스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 평범하면서도 귀중한 사람을 자신은 왜 몇줄밖에 안되는 글속에 묻어두었던가. 그 두터운 초고속에서 대중이 단번에 골라내는 본질을 자신은 왜 보지 못했던가.

책임비서나 지배인처럼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해서, 직위가 높지 않다고 해서, 그저 평범하다고 해서 대중의 진정한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상의 변두리로 밀어놓은것. 보다 평범한 사람을 그려 보다 광범한 대중을 한사람같이 불러일으켜야 할 작가적사명의 견지에서 볼 때 이것은 매우 심각한 오류였다.

또한 복잡다단한 생활의 와류속에서 본질과 현상을 예리하게 투시하고 그를 명백히 갈라 진리를 구가해야 할 작가로서 응당 갖추어야 할 분석력, 종합사고력이 부족한데서부터 빚어진 실패였다.

작가는 이렇게 자신과 작품을 끈지게 투시하고 분석하면서 평범하면서도 귀중한 사람, 실지로 큰일을 한 사람인 전선공장의 보배덩이—젊은 기술자—차정민을 주인공으로 한 장편소설 《불타는 려명》을 창작하였다.

두 작가의 경우에 그 성공적비결의 중요한 뭇은 그들자신이 지니고 발휘한 정치적, 시대적, 문학적분석력과 종합사고력에 있다.

지금 우리의 일부 작가들의 창작과정을 보면 소재에 인차 흥분하여 작품을 쓰고는 뒤따라 평론가의 분석평가를 은근히 기다리는 실례가 없지 않아 있다.

사회적평가와 형상분석이 뒤따르는 공정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작가의 창작실천단계에서 작가스스로의 거듭되는 분석과정, 종합과정이 수시로 동반되어야 한다는것이다.

단번의 완성에 서두르고 만족할것이 아니라 자기 작품에 대한 스스로의 강한 요구성을 내세우고 형상의 본질과 매 고리를 분석적으로 들여다보고 깨뜨려보고 흔들어보고 쪼개보아야 보다 철학적이고 보다 진실한 시대의 성과작을 창작할수 있다.

독자의 평가나 평론가의 분석에 앞서 작가가 자신을 먼저 분석하는 이런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곱씹어 말하고싶다.

인간과 생활에 대한 분석적인 안목을 가지라.

인간과 생활에 대한 끈질긴 탐구가가 되라, 분석가가 되라.

그래야만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과 의도에 맞는 선군시대의 격류를 휘감은 훌륭한 작품, 추억으로 숭고한 어제가 있고 창조로 벅찬 오늘의 숨결이 있으며 희망으로 찬연한 강성대국의 래일이 살아 번득이는 시대적인 작품이 탄생할수 있다.

리 춘 국

# 사랑과 믿음의 생활철학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화폭

— 장편소설 《행복의 기초》에 대하여 —

박 춘 택

인간은 누구나 한생을 값있고 보람있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바란다고 하여 사람들모두가 삶의 진정한 영예와 행복을 꽃피우는것은 아니다.

그러면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장편소설 《행복의 기초》(윤경찬 작)는 기술의 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유압식굴착기를 만들어내는 락원의 로동계급의 투쟁과 생활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이에 대한 심오한 해명을 주고있다. 소설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행복의 진가에 대한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락원의 10명당원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위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 결사관철의 정신을 곳곳이 계승해나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릴수 있고 선군시대 인간의 진정한 삶의 영예와 보람을 찾을수 있다는 생활의 철리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는 비교적 우수한 작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종자를 바로 잡고 그에 기초하여 형상의 꽃을 피워나가는것은 문학창작의 생리로, 철칙으로 되어야 한다.》

장편소설 《행복의 기초》의 사상예술적풍격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은 새롭고 특색있는 사랑과 믿음에 대한 철학적인 종자를 심은데 있다.

소설에서 형상된것처럼 사랑의 감정은 자기 부모처자로부터 시작되어 자기가 살고있는 주위환경으로 확대되는것이다. 사랑과 믿음의 감정이 변하면 자기가 믿고 사랑하던것들을 하나씩 버리게 되고 종당에는 무서운 사상적변질을 가져오게 된다. 때문에 사랑과 믿음은 인간을 명실공히 인간으로 되게 하는 기본징표라고 할수 있다.

사랑과 믿음의 감정으로 사회의 한 세포라고 하는 가정이 지켜지고 공장과 나서자란 고향과 조국이 지켜진다. 말하자면 그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자기에게 귀중한 모든것을 목숨바쳐 지키려는 정신을 기초짓는 토양으로 되고 창조와 기적의 원천으로 되는것이다.

열렬한 사랑과 믿음의 감정을 지닐 때 고결한 정신세계를 지닌 참다운 인간으로 되고 진정한 행복의 창조자가 된다. 바로 이런 인간만이 시대앞에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빛내일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다. 소설에 심어진 종자는 심오한 인간문제를 안고있다.

소설에서는 이 철학적인 종자를 진실하고 생동한 생활과 성격형상을 통하여 풍만하게 꽃피우고 있다.

주인공 안금석의 성격적특질의 기본은 제힘을 믿고 펼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주체의 신념과 의지, 강한 민족적자존심이다.

이런 그였기에 나라의 유압기계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유압식굴착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는것이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공장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유압기구들을 제작해낸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유압식굴착기에서 핵심부분인 유압분배기와 일부 부분품들은 수입하자는 안도 제기하였다. 그러나 금석은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오직 제힘을 믿고 살아가려는 락원로동계급의 사상과 신념대로 자체의 힘으로 유압식굴착기를 생산할 결심을 가지고 분발한다. 그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 제힘을 믿고 펼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배심에 기초한것이였으며 자기에게 귀중한것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숭고한 애국헌신의 마음에 뿌리를 둔것이였다.

금석의 심장속에는 10명당원들의 녀이 살아있다. 그리하여 금석은 동환이 분배기수입설을 주장할 때 동환부지배인은 지금 아버지들의 녀를 부정하고 천리마를 타고 우리 식으로 전진해온 조국의 경제발전력사를 부정하고있다고 엄하게 꾸짖는것이다. 그러면서 동환에게 제힘으로 산다는것이 무엇이고 또 부모들의 정신을 계승한다는건 사랑을 지키는것이고 나아가서 그것은 사회주의를 지키는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새겨주는것이다.

소설에서는 금석이로 하여금 유압식굴착기를 만드는 과정이 자기 힘을 믿고사는 정신력을 다지는 과정으로 되게 하고 그 굴착기에 우리의 힘과 기술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 인간들의 신념과 의지, 감정과 정서까지도 깃들게 되도록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생동하게 그려보이고있다.

정림에게 분배기를 맡겨놓고 끝까지 성사시키려

남모르는 수고를 바치고 선미와 정수의 사랑을 지켜주려 고심하고 동환이 락원의 정신을 지니고 살도록 일깨워주고 도와주는 금석의 소행은 바로 이것을 확증해주고있다.

금석은 자기의것이 소중하면 그것을 지키는 힘도 자기에게서 나오는 법이고 자기에게 귀중한것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변함없이 아끼고 지켜야 한다는 생활의 철리를 신념으로 안고산 인간이었다. 또한 그는 아버지세대가 지녔던 고귀한 넋을 세대와 세대를 이어 편편히 계승할 때 인간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조국과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을 간직하며 행복한 삶을 창조할수 있다는 것을 신념으로 간직한 인간이었다.

사랑과 믿음에 대한 종자의 형상적구현에서 신정림기사는 중요한 몫을 가진다. 신정림은 쇠물처럼 뜨겁고 깨끗하고 굳세여지기 위해 쇠물을 사랑했고 그래서 야금학을 전공했으며 자기의 전공부문에 성실했다. 그러던 그가 유압식굴착기의 중요한 부분품인 분배기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받고 제작과정에 난관이 조성되자 동요하게 된다. 더우기 로영삼박사가 분배기재질문제를 연구하다가 연구조건이 불비한 생산현장에서 새로운 합금주철을 만들어낼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과학원으로 돌아간것은 정림에게 심리적타격을 주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분배기연구를 할수 없다고 하면서 분배기를 수입해다가 조립하자고 말한다. 이것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정신적나약성의 표현이었다. 정림은 남편의 엄한 꾸짖음을 듣고 남편까지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부리고 일이 힘들다고 투정질을 하면서 집까지 뛰쳐나간다. 행복을 바라던 그의 인생의 좌표가 빗나가기 시작한것이다. 다시말하여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였던것이다.

정림은 남편의 용서를 기대할수조차 없는 처지에 빠지고말았으며 안해로서만이 아니라 기술자로서, 인간으로서 락원땅을 다시 밟을 권리를 잃었다.

그러면 정림이 왜 이렇게 되였는가? 정림은 자기가 많은것을 희생시키면서 산다고 생각해왔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을 실리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하였다. 상실이나? 획득이나? 그것을 기준으로 자기가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결론하려고 했던것이다. 그 결과 현재의 생활이 획득은 없고 상실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은연중 자기가 상실당한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남편에게 불평을 부리고 투정질을 했었다.

온 공장이 유압식굴착기를 만드느라 끓고있는데 신정림이 분배기를 쫓아다니고 달아난것은 결국 그가 가정에서뿐아니라 공장앞에, 조국앞에 투정질을 한것이다. 이러했던 정림이가 락원의 딸답게

새 인생의 궤도에 들어서고 분배기연구에 피타는 탐구와 완강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의 가슴에서 식어가던 쇠물이 다시 끓기 시작하였다. 그는 희생을 각오하고 방사성물질인 《중》광석을 개량제로 쓸것을 결심하고 자기 운명앞에 닦쳐온 그 고난을 정면으로 맞받아나가면서 끝내 분배기를 만들어낸다. 분배기의 성공, 그것은 정림의 그 열렬한 사랑과 믿음의 감정의 창조물이였다.

정림의 형상은 자기 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않으면 얼마든지 힘은 생긴다는것, 그리고 우리 장군님을 받드는 길에 자기를 끝까지 따라세우면 행복을 지니게 된다는 생활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깊이 새겨주는 교훈적인 형상이다.

박동환은 지금껏 공장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유압식굴착기를 제기일내에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는 유압식굴착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도 출세와 명예에 눈이 어두워서 하루빨리 평가받을 궁리만 했다. 더우기 그는 자기는 락원의 10명당원들의 후손답게 산다고 하면서도 전세대의 공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시대변화에만 눈을 크게 뜨고 남의것을 넘겨다보는 모순적인 존재가 되었던것이다. 그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고 일신의 공명에만 현혹되어 생활에서 귀중한것을 다 버렸다. 공장을 현대화한다고 하면서 귀중한 설비들을 버렸고 금석이와의 우정도 버렸다. 친동생같은 정수의 사랑도 외면했고 가정의 행복도 안중에 없었다. 또한 그는 아버지에게 효도한다고 했지만 효도를 못하고 도리어 아버지를 노엽히는 일을 하였으며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되였다.

결국 그에게는 목숨바쳐 지킬만 한 소중한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남은것이 있다면, 귀중하다고 생각되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자신뿐이였다.

동환은 은연중 아버지들의 세대가 닦아놓은 터전을 자기개인의 행복의 기초로만 생각하고있었다.

그 터전우에 제 땀을 흘릴 생각은 못하였다. 그는 시대정신을 따를 대신에 세상의 변화에 신경을 쓰면서 제힘을 믿고 제힘으로 일떠서려는 그 정신이 없었다. 시대와 력사가 전진하는데 따라 혁명의 환경과 조건은 달라질수 있지만 제힘을 믿고 자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혁명의 원리는 변할수 없는것이다. 동환은 이것을 옳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는 사랑과 믿음의 감정이 변하여 자기가 믿고 사랑하던것들을 하나씩 버리였으며 종당에는 무서운 사상적변질을 가져왔던것이다.

소설은 동환의 이러한 성격적특질을 생동하고 전형적인 생활로써 개성적으로 그리고있다.

동환의 형상은 자기에게 귀중한 모든것을 목숨바쳐 지키려는 정신이 변하면 자기의 가정도, 공

장과 나서자란 고향도, 나아가서 조국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교훈적인 형상이다.

소설은 배성춘도 신정림과의 대조속에서 사람들에게 생활의 교훈을 안겨줄 수 있도록 의의있게 형상하고 있다.

배성춘은 녀자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몰랐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지 여러해가 지났어도 사회앞에 아무것도 해놓은 일이 없이 부평초처럼 살아왔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였다. 한마디로 그는 기사로서나 녀성으로서나 잘못 살아왔다. 그에게는 자기에게 귀중한 것들을 지키고 가꾸고 빛내이려는 각오와 열정이 식어진 것이다. 이것은 사랑과 믿음에 대한 그의 감정이 변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작품에서 그의 이러한 성격적 특질을 인상깊은 생활속에서 감득하게 된다.

소설의 사상에 예술적 풍격은 또한 인간관계를 종자의 특색을 효과적으로 원만하게 독창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설정한 데서 담보되고 있다.

매 인물들에게 사랑과 믿음에 관한 문제를 실현하는 뚜렷한 과제를 주어 이야기줄거리에서 유기적으로 얹혀들게 하고 있으며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얹혀지는 선상에 력점을 찍고 극적인 대목, 극적인 매듭을 형성시키고 그것을 풀어나감으로써 주인공들에게 극적인 내부체험이 절절히 조성되도록 하고 있다.

신정림은 사랑을 의심하면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 특별히 행복한 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군님을 받드는 길에 자기를 끝까지 따라세우면 행복한 녀자가 된다는 것, 자기 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힘이 생긴다는 이러한 문제성을 체현하고 있다. 박동환에게는 사랑과 믿음의 감정이 변할 때 무서운 사상적 변질이 온다는 문제성이, 배성춘에게는 녀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인가 하는 문제성이 체현되고 있다.

소설에서는 이처럼 성격 자체에 작품에 제기된 특색있는 문제점을 부여함으로써 인간관계가 이야기줄거리에서 밀접하게 얹혀들고 성격발전에 굴곡이 형성되게 하여 인물성격의 깊이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에서는 정림이 남편이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부리면서 친정집으로 가는 장면, 주철직장 선전실에서의 기술협의회 장면 등과 같이 신정림과 안금석과의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얹혀지는 대목을 형성시키고 여기서 그들의 내부체험이 절절하게 조성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배기수입을 주장하는 동환이가 수입주문서를 가지고 왔을 때 금석이 그것을 움켜쥐고 책상을 치면서 부지배인이 변한 데 대해 비판하는 장면, 동환이 선미와 정수의 사랑문제에 휘방을

노는 장면, 열처리직장앞의 백양나무밑에서 유압식 굴착기 생산문제를 놓고 금석과 동환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등과 같이 금석과 동환의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얹혀지는 극적인 대목을 설정하고 두 인물의 극적인 내부체험이 절절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소설은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펼치는데서 비교적 성공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작품에서는 인간들의 사색과정이 깊이있게 그려지고 있으며 내면독백과 객관적인 심리분석적 설화를 결합시키고 심리적 생활세부를 적극 탐구하는 등 심리묘사의 다양한 수단과 수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유압식 굴착기를 못하겠다는 사람은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집에 혼자 있으면서 정림이 추억속에 사진첩을 펼치는 심리적 생활세부, 애국렬사릉에서 신포향영웅과 《대화》하는 정림의 내면독백, 친정집에서 아들 명빈이가 왔다가 후 생활의 흐름을 역행하는 자기를 발견한 순간부터 자신의 처사를 불만족스러워하는 정림의 생활모습에 대한 객관적 묘사는 작가가 생활과 밀착된 립체적인 심리묘사의 수법들을 능숙하게 리용하고 있으며 인물들의 내면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인물들의 체험세계와 심리적 굴곡과정을 진지하고 생동하고 감명깊게 그려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의 사상에 예술적 풍격은 인상적인 세부묘사로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의 형상의 심오성, 생동성은 세부묘사의 심오성, 생동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소설의 첫머리에 있는 정림의 생일 저녁 장면세부는 유압식 굴착기 생산과정에 조성된 인간들의 심각한 극적 관계를 시사해 주고 있으며 전세대의 업적과 정신의 계승에 관한 문제, 전세대와 새 세대의 료리 문제에 대한 인간들의 견해와 립장을 깊이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글자를 새긴 주물품에 대한 세부형상은 금석과 정림의 료리도덕관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열렬한 사랑과 믿음의 감정속에 가정이 지켜지고 행복이 창조된다는 생활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

장편소설 《행복의 기초》가 성과작으로 창작될 수 있는 것은 생활에 대한 작가의 심오한 사색과 개성적인 탐구에 있다.

작가는 이 소설창작을 통하여 생활을 개성적인 안목으로 보고 받아들이며 그리고 예술적 취미와 기호, 예술적 사고방식에서 뚜렷한 창작적 개성을 가진 자기로서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인간문제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인간관계를 극적인 관계로 심화시키며 인물들의 체험세계에 대한 립체적 묘사로 특색있는 예술적 형상을 창조한 데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인간성격과 생활을 개성화하는데서 창작적



숨씨를 보여주고있다.

고선미와 박정수의 애정선만 보더라도 작가가 생활속에서 해당한 인간성격의 본질을 표현하는 개성적특징을 명확히 포착하고 그것을 형상적으로 강조하고 예리화하여 정수와 선미를 개성적인 성격으로 형상하였다.

선미는 성격이 활달하고 모든 일에서 명백하고 진취적인 녀자이고 정수는 어질고 순박한 총각이다. 정수는 선미를 그토록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를 사위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또 동환형님이 자기들의 사랑을 반대한다고 하여 집에 온 선미에게 《제 감정이 소중한다고 주위사람들 립장을 무시할수 없지 않아? 난 사랑이 이렇게 복잡한것인줄 몰랐어.》라고 하면서 서로 갈라지자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선미는 《아니예요, 사랑은 단순해요. 그저 믿으면 되는거야. 오빠 사랑이 뭔지 나보다도 몰라. 제 감정이 깨끗한데 남의 눈치를 볼게 있어요? 부모들때문에, 다른 사람들때문에 자기 사랑을 희생한다는건 말두 안돼요.》라고 말한다.

다음날 정수는 자기가 선미에게 주었던 열쇠를 달랠수 없으니까 선미로 하여금 더는 자기 집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문에 다른 자물쇠를 채운다. 그것을 보자 선미는 (나야 정수오빠가 독한 마음을 먹고있는 리유를 알지 않는가. 그걸 알면서도 내가 앵돌아지면 그는 평생 장가도 안 가고 불행하게 살거야. 이런 때일수록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걸 보여주어야 해. 그래야 그도 힘을 얻고 우리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일어설게 아닌가.)고 생각하고 갈아채운 자물쇠를 돌로 깨버린다.

정수가 집에 들어섰을 때 선미는 《동문 날 이 미 이 집 문턱안에 들여놓았었어요. 그런데 이견 뭐예요?》, 《지금껏 나한테 동무밖에 없었어요. 난 마음속으로 동무와 함께 살아온지 오래요. 이제 동무가 날 버리면 난 일생 시집 안가요. 내 마음속엔 다른 남자 들어앉을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날 배신해요?》

선미의 말을 들은 정수가 《배신하다니?》라고 되물을 때 선미는 《다른 녀자 사귀는것만 배신이에요? 자기 마음속에서 날 지워버리는건 배신이 아니예요? 동문 날 지우지 못할거예요. 나두 같어요. 아니, 난 지우지 않겠어요! 절대로! 그러니 이런 열쇠 백번 바꾸어봐요. 그럼 난 백번 까겠어요!》

참으로 이 장면은 선미의 개성적인 성격적특질을 명백히 포착하고 그것을 형상적으로 강조하여 그의 성격을 독특한 개성으로 그린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는 사랑과 믿음의 감정이 열렬하고 진실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 료리의 세계를 지닌

선미의 개성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고있다. 특히 열쇠세부는 어떤 어려움속에서도 사랑을 지키고 가꾸려는 선미의 성격적미를 부각한 예술적발견이라고 할수 있다.

이 소설의 사상예술적질을 담보한것은 또한 지성도이다. 작가의 철학적인 안목과 지성적인 사고력은 작품의 지성세계를 높이고있다.

그것은 먼저 인물들의 리지적인 성격을 잘 살려내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주인공 안금석과 신정림기사, 락원의 10명당원들중의 한사람인 박형준, 노동자 고선미의 형상에서 그들의 리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지성적으로 그리고있다.

소설에서는 부정인물들인 박동환과 최형조형상에서도 그들이 가지고있는 리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시대변화》를 운운하면서 우리 조국의 전진방식을 외면하였던 잘못을 깨닫고 교양개조되는것을 진지하고 깊이있게 그리고있다.

소설의 지성미는 작가가 형상수법과 기교를 높은 수준에서 리용한것과도 관련된다. 작가는 이 작품을 창작하면서 락원로동계급의 생활의 평범하고 소박한 묘사에 충실하면서 생활의 깊은 진실을 추구하였으며 유압식굴착기를 생산하는 투쟁과 생활속에 깃든 인간들의 내면세계를 섬세하게 그려내는 예술적수법을 활용하였다.

안금석과 정림의 가정생활과 유압식굴착기를 만들기 위한 기술혁신돌격대의 생활, 박형준과 박동환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생활, 고선미와 정수의 애정생활, 남태욱책임비서의 생활 등 소설에 펼쳐진 모든 생활에 대한 묘사가 요란하지 않고 소박하고 평범하다. 그래서 더욱 진실하고 감명깊다.

소설가는 이 작품을 창작하면서 생활에 대한 지성적인 분석과 그에 의하여 밀받침된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의 세계를 펼쳐는데서 귀중한 경험을 보여주었다.

장편소설 《행복의 기초》는 형상의 철학성과 진실성, 지성미로 하여 올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할것이다.

## 수수께끼

- ① 대가리를 얻어맞아야 들어가는것.
- ② 일할 때는 모자를 벗고 쉴 때에는 모자를 쓰는것.

수수께끼의 답 ①: 못

수수께끼의 답 ②: 만년필

## 금강산의 장수바위와 할미바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아름다운 금강산을 찾으시고 우리 인민들이 금강산의 절경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도록 해주셨다.

금강산에 가면 별금강이라는 곳도 있다.

별금강은 명송지의 하나로서 금강산의 북쪽 고성군 입구부분에 자리잡고있다. 이 명송지를 《별금강》이라 일러오는것은 이곳이 금강산에서도 특별히 아름답기때문이라고도 하고 아득한 먼 옛날 금강산을 만든 조물주가 이곳을 별도로 아름답게 꾸려놓았기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별금강지구에는 기묘한 담소와 바위, 절벽, 폭포들이 많지만 이름이 있는것이 많지 못하고 전설, 고적 등이 얼마 발굴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부문 일꾼들이 현지에 나가 발굴, 정리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제시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받아안은 연구사들과 문필가들은 옛문헌들을 통하여 별금강일대에 깃든 전설자료들을 연구하는 한편 현지답사를 통하여 전설들을 발굴수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별금강의 유래전설과 그 일대의 봉우리, 계곡, 절벽, 기암괴석, 폭포, 담소에 깃든 전설, 동물, 나무, 꽃 등에 깃든 전설 그리고 별금강일대를 지켜 싸운 이곳 인민들의 반침략애국투쟁에 대한 전설, 세태생활전설들을 새로 정리할수 있게 되었다. 《금강산의 장수바위와 할미바위》 전설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 전설은 별금강지구 선창천가에 아아하게 솟아있어 《성벽봉》이라 일러오는 절벽에 깃들어 전해오고있다.

성벽봉 남쪽끝에 갑옷을 입고 서있는 장수모양의 바위와 그아래 치마저고리를 입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같이 생긴 바위가 보인다. 이 바위를 예로부터 《장수바위》와 《할미바위》라고 불러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전해오기를 갑옷입은 장수바위는 이 성의 성장이었고 그아래 할머니바위는 성장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옛날 무술에 능하고 병서에 밝은 젊은 한 장수가 성장의 부하로 뿔하여와서 성장과 함께 별금강을 지키는 일에 한몫을 하게 되었다. 성장과 함께 성을 지키고 관리하는 나날에 젊은 장수는 성장이 하는 모든 일에서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그에게서 많은것을 배웠다.

성장은 고금동서의 병서를 다 통달하였을뿐 아니라 활쏘기와 말타기에서도 그를 따를만 한 장수가 없었다. 또한 군률에 엄하면서도 의협심이 강하고 청렴결백하였으며 모든 일에 공명정대하였으

로 누구나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성장에게도 이해할수 없는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효도에 대한 립장이었다.

왜구의 침입이 언제 있을지 몰라 성을 지키는 군사들은 한시도 성을 비울수 없었지만 성장은 설날이 오면 부모를 모시고있는 군사들을 꼭 집으로 보내어 세배를 드리고 오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늙은 어머니에게 세배를 드리러 간적이 없었고 오히려 허리굽은 모친이 설날에 아들을 찾아 산성에 오르곤 하였다.

여러해동안 이런 일을 목격해온 부하장수는 늙은 어머니에 대한 성장의 불효스러운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수 없었다.

(예로부터 부모에 대한 효도가 높아야 나라에 충의를 다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성장은 나라를 지키는 일에 한몫 아끼지 않으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효도는 왜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가?)

생각이 깊어질수록 늙으신 어머니에 대한 성장의 처사야말로 성안의 술한 군사들을 옳바르게 이끌어나가는데서 좋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진 부하장수는 조용한 기회를 타서 성장에게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바로하도록 충언을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느해 설명절이 가까와오던 날 부하장수는 성장에게 속에 품어오던 말을 내비치었다.

《성장님, 한가지 조용히 여쭙 말이 있소이다.》

《그래 무슨 말인데?》

《이제 며칠 안있으면 설날이오이다.》

《참 그렇군, 그런데?》

《이번 설날엔 모친께 세배드리러 행차하시오이다.》

《세배드리러?...》

《예, 설날마다 년로하신 모친께서 성장님 뵈오려 이 험한 산성에 늘 오시게 하는것은 우리 군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일이라고 보나이다.》

《그렇긴 한데 어디 모친의 뜻을 굽힐수 있어야지, 하하.》

《아니, 모친의 뜻이라니요?》

《우리 모친이 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집을 비워두면 잃을것은 한 집안의 재산뿐이지만 성장이 성을 비우면 별금강을 잃을수 있다면 설날이라도 절대로 집에 내려와서는 안된다고 하시니 난들 어찌하겠나.》

《예? 그러세요?》

성장의 말을 들은 부하장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참으로 성장님은 훌륭한 모친을 모시고있구나.

그런 모친의 슬하에서 자라났기에 성장님은 저렇게 훌륭하구나. 난 그런것도 모르고 성장님에게는 효도가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으니 언제면 그 뜻을 다 따를수 있으랴.)

부하장수가 감동과 자책으로 생각에 잠겨있는데 성장은 말을 이었다.

《자네의 권고에도 일리가 있지. 내가 모친의 뜻만 따르다나니 우리 군사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리라는데 대하여 미처 생각을 못했네. 그게 사실이지. 이젠 내가 성을 잠시 떠난다 해도 나만 못지 않는 자네가 있으니 어찌 성을 비우는것으로 되겠나. 자네의 권고대로 이번 설만은 모친께서 올라오시지 않게 내가 집에 다녀오겠네.》

설날에 어머니에게 세배드리러 가겠다는 성장의 말은 부하장수를 기쁨에 넘치게 하였다. 그런데 일이 안될 때라 설을 하루 앞두고 성장이 집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왜구들이 바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통보가 들어왔다. 부하장수는 이런 때에 성안의 안전을 자신이 도맡아야 성장이 안심하고 집에 다녀올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왜구들의 침입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는 자진하여 해변가의 파수막에까지 나가 일일이 살펴보고 만전을 기한 뒤 성으로 돌아오던 길에 성장의 어머니가 여느때와 같이 매일 아침 성으로 올라오시지 말고 집에서 성장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알려주기 위하여 성장의 집에 들렀다. 집에서는 설날 아침 성장에게 가지고갈 설음식준비로 분주하였다.

설음식은 성장에게만 아니라 성안에 남아있는 군사들에게도 골고루 맛보이게 하느라고 며칠씩 품을 들여 마련하곤 하였던것이다.

뜻밖에 나타난 부하장수를 따듯이 맞아들인 성장의 어머니는 무슨 일로 밤늦게 들렀는가고 물었다.

부하장수는 사실대로 말했다.

《매일이 설날인데 성장님의 모친께서 또 어려운 걸음을 하실가보아 왔소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번 설엔 성장님이 직접 집에 내려와 모친께 세배드리겠다고 하셨소이다. 그러니 이번 설에는 성장님과 집에서 잘 쇠소이다.》

《뭐라구? 성장이 내려온다구?》

성장의 어머니는 펄쩍 놀랐다.

《그렇소이다, 저와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소이다.》

《성장이 성을 비우고 내려오다니, 이런 변이 있나?》

《안심하시오이다. 성장님이 집에 내려와계시는 동안 제가 성안일을 다 맡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아닐세, 그래서는 안되네!》

성장의 어머니는 부하장수의 뜻은 고마우나 성

장이 설날이라고 해서 집에 와서는 안된다면서 말을 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설날 아침 성장에게 찾아간것은 단지 성장이 성을 비우고 내려올것 같아서만아니라 그는 성안에서 세배를 받아야 할 어른이여서그러네.》

《어른이라니요?》

부하장수는 어리둥절했다.

(세상에 자기 자식을 두고 세배를 해야 하는 어른이라니?)

부하장수의 의문을 풀어주려는듯 성장 어머니는 다시 침착하게 말하였다.

《어른이란 나이가 우이어서만 어른대접을 받게 아닐세. 어른이란 나이도 있어야 하지만 나라와 백성을 위한 중임을 맡고 큰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지. 그러니 성장은 비록 내 아들이기는 하지만 별금강을 지킬 중임을 맡고 이곳 백성들을 돌보는 어른인셈이니 내 어찌 집에 가만히 앉아 설인사를 받겠나. 나는 성장의 예미에 앞서 이곳 백성의 한사람으로서 성장을 받드는 마음으로 설인사를 하러 가는것이네. 그래야 그도 중임을 더 느낄것이 아닌가?》

《예?!》

부하장수는 다시금 몽클해지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용서하시오이다, 저는 성장님의 모친이 지니신 그 깊은 뜻을 미처 몰랐소이다.》

《이젠 이 예미의 속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성장이 내려오기 전에 당장 같이 떠나세.》

《당장이요?》

《그렇네, 군사들에게도 대접할 음식도 다 마련했겠다 마침 자네가 여러명의 군사들과 같이 왔으니 이웃집사람들을 깨워 도움받을게 있나. 어서 같이 성으로 가세나.》

이튿날 설날 아침. 성장과 성안의 군사들은 성장의 어머니가 마련해온 설음식을 여느때와 같이 맛있게 들다가 설마다 어김없이 많은 음식을 해가지고 성에 오르곤 하는 성장 어머니의 깊은 뜻에 대한 부하장수의 말을 듣고 모두 가슴이 뜨거워올라 목메여하면서 눈물을 닦았다.

이처럼 뜨거워진 가슴을 안고있던 이들은 이날 저녁 굶주린 배를 채우려 바다가마일에 달려들어 로략질하려고 한 왜구인해적들을 순간에 몰살해버렸다.

성안에 이와 같은 설맛이가 변함없이 흘러가자 하늘에서 늘 내려다보던 조물주가 금강산의 산천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성장 어머니의 미덕을 영구히 전해가려는 생각에서 성벽위에 성장의 어머니와 성장의 모습으로 바위가 솟아나게 하였다고 한다.

김 정 설

# 학습제일주의주제 작품창작에서 시대정신의 반영과 동심적형상의 구현

장 현 혜

위대한 선군령장의 빨찌산식강행군에 고무되어 천만군민이 산악같이 떨쳐나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폭풍쳐내달리고있는 장엄한 현실은 미래의 주인공들인 우리 어린이들도 비약하는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며 정신도덕적으로 몰라보게 성장해나가도록 적극 추동하고있다.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남김없이 분출시켜 제힘으로 만든 인공지구위성도 단번에 또 쏘올리고 당당한 전쟁억제력의 위력도 과시하며 남들이 주저하는 최첨단도 마음먹은대로 돌파해나가는 오늘의 선군조국은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로 하여금 김일성조선의 새 세대라는 긍지와 원대한 포부를 안고 세계를 향하여 도약해 보려는 욕망으로 가슴불태우게 하고있다. 이러한 아동들의 지향과 아름다운 꿈을 더 크게 자라우고 그 실천으로 떠밀어주어야 할 사명감이 우리 아동문학앞에 놓여있으며 그들을 고무해주고 희망의 나래를 달아줄 아동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내는것은 현시기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의 진두에 서시여 군대와 인민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삼복철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문천시 3중영예의 붉은기 영웅문천중학교를 찾으시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높은 실력으로 강성대국건설위업에 이바지할 나라의 기둥으로 키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총대로 굳건히 지켜주시고 빛내주시는 내 조국을 이 세상 으뜸가는 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해 장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우리 학생소년들이 무엇보다 공부를 잘하여 현대적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인재들로, 강성대국건설의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될 유능한 실력가로 튼튼히 준비해나갈것을 바라고있으며 바로 이것이 우리 장군님의 의도이고 시대와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이러한 시대적요구에 맞게 아동문학분야에서는 학습제일주의주제작품창작에 주되는 힘을 넣고 그 형상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아동문학은 모든 학생이 자기의 기본과업인 학과학습을 잘하는데 힘을 집중하도록 옳은 학습관점과 학풍을 세워주고 새 지식에 대한 탐구심을 키워주는데 모를 박아야 한다.》

학습은 학생들앞에 나선 첫째가는 혁명과업이며 학과학습을 떠나서는 학생의 본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최근에 창작된 아동단편소설들가운데는 아동생활의 이모저모를 학습을 중심에 놓고 형상함으로써 선군시대 어린이들이 자기들의 생활에서 중심을 똑바로 틀어쥐고 내 조국의 인재로 훌륭히 자라나도록 이끌어주는 학습제일주의주제작품들도 있다.

단편소설 《철부지시절은 언제까지》〔김성국작, 《아동문학》잡지 주제97(2008)년 2호〕에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에 찬 나날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그 모든 애로를 이겨내며 내 조국의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큰 포부를 안고 이 악하게 공부함으로써 아버지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갈데 대한 의의있는 문제를 담고있다.

작품의 주인공들인 금철이와 봉수는 지난해 1중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생들, 나이상으로 보면 열한살밖에 안되는 철부지들이다. 아직은 부모들의 곁에서 웅석이나 부리며 자랄 철부지시절에 부모솔하를 떠나 외지에서 공부한다는것은 험한일이 아니다. 하기에 입학초기에는 사기가 나서 공부에도 열성을 내어 앞자리를 차지하던 금철이는 점차 기숙사생활이 힘겨워지면서 집생각을 하며 학습열의가 식어지고 나중에는 성적총화에서 뒤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고향동무인 봉수의 꾸준한 학습태도를 보며 또한 오늘과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공부를 잘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발전시키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갈 그의 굳은 결심을 알게 되면서 부모품에 매달려 웅석이나 부리고 밥투정이나 하던 철부지시절과 작별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된다.

고난을 겪고있는 조국을 보며 그속에서 지난 시기와는 비할바없이 빨리 철이 드는 아동들의 진실한 형상을 통하여 작품은 어린이시절이라고 하여 응

석만 부리고 투정질이나 하는 칠부지가 될것이 아니라 그 어느때보다도 본심임무인 학습을 더 잘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에 높은 실력으로 이바지함으로써 우리 조선을 세계에 빛내이는 역군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의깊은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단편소설 《5점꽃》 [림순석 작, 《아동문학》 잡지 주체98(2009)년 5호]에서는 선군혁명령도의 자욱마다에 새겨진 아버지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를 한시도 잊지 않고 공부를 잘해 5점꽃만을 피워 장군님께 기쁨드리려는 주인공 선영이의 기특한 모습이 그려지고있다.

TV화면에서 뵈은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 험산준령을 넘으며 어둠속을 달리는 장군님의 야전차를 뵈은 그날부터 선영이의 가슴속에는 장군님께서 더는 멀리, 험한 길을 걷지 않으시길 하기 위한 5점만 맞으리라는 결심이 굳게 자리잡게 되었다. 그래서 방학기간에도 숙제를 채 못하고 깜빡 잠에 들었다가도 아버지장군님의 야전차를 안고살라는 아버지의 절절한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다시 일어나 숙제문제풀이를 마저 해나갔던 것이고 수학시험에서도 단어알아맞추기에서도 그림그리기에서도 언제나 1등만을 하는것이다. 귀를 재보며 엉뚱하게 구는 강범이에게 귀가 아니라 마음과 머리를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고 타일러주는 선영이, 아버지장군님을 그리는 마음, 장군님께 기쁨드릴 고운 마음을 안고 열심히 공부하여 5점꽃을 피운 그의 모습을 통하여 작가는 우리 학생소년들이 매일매일 받는 5점점수에 그들의 정신적높이를 부여함으로써 장군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공부할 때 실력도 높아진다는 심오한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최근에 발표된 학습제일주의주제 아동단편소설들이 우리 당의 학습제일주의방침관철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과 직결시키고 언제나 장군님의 사랑과 은덕을 심장깊이 새기며 높은 실력으로 보답해나가기 위해 애쓰는 아동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해 학습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선군시대의 요구와 결부하여 보여주려고 한것은 긍정할만 한것이다.

그러나 최근년간 학습제일주의주제작품창작정형을 놓고볼 때 아직도 학생들의 학과생활을 시대정신의 견지에서 새롭게 형상한 작품이 얼마 안되며 창작된 작품들의 사상예술적수준은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고 말할수 없다.

앞에 언급된 작품들을 놓고보다라도 어제날 아동들의 사상정신세계와 큰 차이가 없이 그려지고 형상수준이 새롭지 못하다보니 선군시대 우리 어린이들의 높은 정신도덕적지향세계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였다. 더우기 학과생활을 정면으로 파고들어 형상한 작품들임에도 불구하고 선군시대, 정보산업시대의 주인공들로서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주제조선의 귀중한 인재들로 준비해나가는 오늘의 우리 학생들의 전형적인 모습, 동심적성격

이 잘 보이지 않는다. 결국 오늘의 시대정신을 새롭게 탐구된 동심적형상속에 구현하지 못하다보니 발전하는 현실에 맞는 학생들의 학과생활을 응당한 높이에서 보여주지 못하였다.

오늘 학습제일주의주제작품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창작하자면 동심적형상속에 시대의 본질을 옹계 구현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전 시기에도 학습제일주의주제작품창작이 중단없이 진행되어왔다는 사정파도 관련된다.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시대에 창작된 학습제일주의주제작품들은 흔히 공부를 잘하는것으로써 부모들에게 기쁨을 주고 혁신적성파를 고무해주는것이 보편적인 내용을 이루었다면 선군시대가 안아온 세기적변혁속에서 날에 날마다 새롭게 변모되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불피코 정신도덕적측면과 지적수준에서 지난날과 질적으로 구별되도록 학과생활과 아이들의 사상정신세계를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그릴것을 요구하고있다. 한마디로 학습을 기본으로 하는 학생들의 생활에서 시대정신을 옹계 반영해야 한다.

이에 긍정적인 대답을 주는 작품으로서는 이미 전에 발표된 단편소설 《책상》 [손형호 작, 《아동문학》 잡지 주체95(2006)년 5호] 을 들 수 있다.

소설은 현시기 학생들에게 있어서 우리 당이 제시한 학습제일주의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시대적높이에서 동심적형상으로 옹계 밝혀냄으로써 선군시대 학습제일주의주제작품의 발전면모와 그 본질적성격을 잘 보여주고있다.

작품에는 우리 학생들의 생활에서 기본인 학습을 선군시대의 현실적요구와 결부시켜 형상함으로써 아동교양에서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이 작품의 종자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결사옹위는 공부를 1등으로 잘하는것》이다.

수령결사옹위와 학습제일주의, 이 두 개념의 생활적이고 형상적인 결합은 지난 시기 학습제일주의주제작품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것으로서 오늘날 우리 어린이들의 생활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되는 학습이 가지는 중요성을 시대정신의 견지에서 새롭게 해명하고있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김일성**민족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질이며 무한대한 정신력의 근본핵으로서 오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이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뚫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돌격전에서 기적과 혁신을 낳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더우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더욱더 악랄해지는 오늘의 정세는 앞날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의 학과생활에서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첫자리에 내세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오늘의 시대적요구를 학생들의 본심

혁명과업인 학습과 밀접히 결부시켜 형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있어서 수령결사옹위는 빈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공부를 잘하는것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심오한 진리를 심어주어 현시기 아동교양에서 절실히 필요한 문제를 원만히 해명하고있다.

시대가 반영되고 아이들이 즐겨읽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창작하자면 현시기 아동들의 생활에서 전형적이며 동심적인 성격들을 옹게 탐구하여 형상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시대정신이 반영된 의의있는 종자를 잡아쥐었다 하더라도 동심적인 생활, 동심적인 성격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작가의 의도만 보이는 생경하며 따분한 작품으로 되고말것이며 사상주제적 과제도 원만히 해명할수 없을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단편소설 《책상》은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주요인물인 초록이와 초순이의 동심적인 성격을 잘 찾아쥐고 형상하였다.

작가는 학생소년들속에서 찾아볼수 있는 일반적 성격을 초록이와 초순이의 성격에 집약시켜 학생의 참모습, 오늘 우리 시대 아이들이 지향하고 따라배워야 할 모습은 어떤것인가를 생활적으로 원만히 해명하고있다. 작가는 특히 주인공 초록이의 성격형상을 매우 동심적으로 개성화하여 그림으로써 중요한 문제점을 시사해주고있다.

그것은 작품에서 종자해명에 적극 이바지하는 요인으로서의 주인공의 개성적인 성격과 동심적인 생활을 어떻게 탐구해야 하는가 하는것이다.

물론 새삼스러운 말이라고 할수도 있다. 하지만 작품을 깊이 들여다보며 음미해볼 필요는 있다.

중학생이 된것을 기념하여 아버지가 사다준 멋진 책상을 놓고 펼쳐지는 초록이의 생활은 자랑하기 좋아하고 본따기 잘하며 제판의 영웅심에 들떠있는 아이들의 심리가 방불하게 안겨오는 새롭고도 동심적인 생활이다.

모르면서도 아는체, 못하면서 잘하는체 하며 뽐내기 좋아하는 초록이의 개성적인 성격은 생활적인 묘사를 통해 생동하게 그려지고있다. 새로 생긴 자기의 멋쟁이책상에 전화기부터 올려놓고는 어른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동무들에게 전화로 자랑하고 자기 위신을 돋구려고 책상우에 멋진 글까지 큼직하게 써붙이는 세부라든가 발은 지식으로 하여 허튼 소리만 하다가 동생에게서까지 《몰리우는》 세부 등은 작가가 초록이의 개성적이며 동심적인 성격을 생동하게 그려보여준것으로 하여 견인력을 가지고 이야기에 끌려들어가게 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세부형상들을 통해 멋부리기만 좋아하고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도 영웅이 되겠다고 들떠다니다가 공부를 잘하지 않고서는 《결사옹위》의 영웅은커녕 시대의 락오자가 될수 있다는것을 깨닫고 새 출발을 하는 초록이의 성격발전과정을 진실하게 그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제일주의구호의 참뜻을 생활적으로 깨우쳐

주고있다. 이와 함께 참고도서까지 읽으면서 말없이 꾸준히 폭넓고 깊이있는 지식을 쌓아나가는 초순이를 통하여 《결사옹위는 자기 초소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가는 실력가가 되어 아버지장군님의 권위를 지키고 높이높이 받들어모시는것》이라는 작품의 사상을 강조하면서 선군시대 우리 학생들이 따라배워야 할 참모습이 어떤것인가를 형상으로 해명하고있다.

이처럼 단편소설 《책상》은 선군시대 아동생활의 절박한 문제점을 찾아쥐고 그것을 시대적인 높이에서 개성적인 성격과 동심적인 생활로 형상함으로써 우리 시대 아이들의 교양에 적극 이바지하고있으며 학습제일주의주제작품창작에서 비교적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비약의 나래를 펴고 폭풍쳐달리는 선군시대는 우리 아동소설작가들로 하여금 현실생활과 동심세계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있는 탐구를 기울여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학습제일주의주제작품 창작에 더 많은 품을 들일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높은 목표와 담대한 배짱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돌진하기 위해 이악하게 학습하는 선군시대 우리 어린이들의 진취적인 성격을 동심적인 생활화폭으로 그리는것이다.

우리의 현실생활속에는 그러한 작품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원형인물들이 수없이 많다. 국제수학을 립픽경연, 국제프로그램경연 등 국제경연무대들에서 당당히 우승의 영예를 떨친 학생소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바로 이러한 원형들에 기초하여 창작할 때 지난 시기에 비해 근본적으로 달라진 우리 시대 어린이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전형적인 동심적성격을 생동하게 그릴수 있으며 최첨단을 돌파할 열망으로 지식의 탑을 하나하나 쌓아가고있는 우리의 학생소년들을 고무추동하고 높은 실력을 갖춘 강성대국의 기둥으로 키워내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사상교양의 무기로서의 사명감을 다해나갈수 있다.

날에날마다 류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는 오늘의 선군시대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학과 생활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있다. 우리의 과학과 기술로써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강성대국의 주인공들로 씩씩하게 성장해가고있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공부를 하나 해도 세계에 우뚝 올라서서 내 조국의 존엄과 위력을 떨치는 과학기술인재가 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질풍같이 내달리게 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또 하나의 대경사인 《광명성2호》의 성과적발사소식을 듣고 다음번 《광명성3호》는 자기들이 쏘올린다며 10대에 박사가 될 꿈을 안고 자라는것이 우리 시대의 아동들이다. 우리의 아동소설작품들에는 바로 이러한 우리 시대 전형들이 그려져야 한다.

어머니 우리 당의 부름따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기 위해 폭풍쳐 내달리는 오늘의 자랑찬 선군시대에는 학습제일주의주제작품창작에서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것과 함께 생동하고 새로운 성격, 생기발랄한 동심적세부탐구에 힘을 넣을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아동주인공들의 동심적성격형상과 함께 그 상대 인물들, 특히는 그들을 교양하고 이끌어주는 부모들과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의 형상에도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한다. 상대인물의 형상에서도 이전 시기의 구태의연한 틀거리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이 자 경제강국이고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오늘의 시대정신이 철저히 구현되도록 새롭게 형상해야 한다.

등장인물들의 생동한 성격과 함께 구성조직에 대한 탐구를 깊이하여 고정격식화된 틀거리에서 벗어나 새맛이 나고 읽을 재미가 있는 독특한 작품, 자그마한 하나의 세부를 통해서도 오늘의 시대와 우리 어린이들의 정신도덕적, 지적높이를 보여줄수 있는 인상깊은 작품이 되게 해야 한다.

우리 아동소설가들은 현시기 아동생활의 절박한 문제점을 안고있는 학습제일주의주제 아동단편 소설창작에 더 큰 힘을 넣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이 땅위에 펼쳐지게 될 강성대국의 주인공들로 키워내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아동단편소설들이 새로운 혁명적대 고조의 열풍속에 쏟아져나오게 해야 할것이다.

## 작가일화

# 그를 왜 《시습》이라 불렀는가

김시습(1435-1493)은 태어난지 얼마후부터 매우 총명한 아이였다고 한다. 아이의 재능이 하도 놀라와 외할아버지는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기에 앞서 글자부터 배워주었다. 글자를 배워준 다음 아이에게 그 글자를 내보이며 무슨 글자인가고 물으면 아이는 말은 못하여도 그 뜻을 실물이나 그림 같은것을 가리켜 보여주곤 하였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외할아버지가 손자를 불러다놓고 시를 읊어주었다.

꽃은 란간앞에서 웃어도  
소리를 듣지 못하니라

그러자 시습은 제격 일어나 아장아장 걸어가더니 병풍에 그려져있는 꽃을 가리켰다. 외할아버지는 너무도 뜻밖이고 기특하여 이번에는 이런 시구를 읊었다.

새는 수풀에서 울건만  
눈물을 볼수 없노라

시를 듣고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생각에 잠겨있던 시습은 인차 마루끝으로 걸어나가 처마밑에서 우짖는 새를 가리키며 방긋이 웃었다. 병풍에는 새가 없고 마침 바깥에서 새소리가 들렸던것이였다.

어느날 이 소문을 들은 당시의 학자이며 시인이였던 최치운이 김시습을 찾아왔다. 그는 말도 채번지지 못하는 어린 시습을 여러가지로 시험해보고나서 외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아이는 배우면 즉시 익히는 총명한 아이요. 그러니 이름을 〈때 시〉자와 〈익힐 습〉자를 써서 〈시습〉이라고 하는것이 어떻겠소?》

그 이름이 하도 그럴듯하여 그후 그의 이름은 김시습으로 되었다고 한다.

김시습은 일생에 대표작으로서 한자시 《산골농민의 고생》, 《농부의 항의》, 단편소설들인 《리생의 사랑》, 《부벽정의 달맞이》 등을 남기였다.

## 세계유모아

# 겨 자

두명의 젊은 작가가 한 저명한 작가의 집으로 저녁식사에 초청되었다. 식탁에 앉아서 한 젊은 작가가 주인에게 물었다.

《이건 무슨 요리입니까?》

《겨자입니다.》

《맛있겠지요?》

《예, 아주 맛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작가는 겨자 한숟가락을 입에 넣었는데 당장 눈물이 질끔 나왔다.

《아니, 왜 그러나?》 같이 온 젊은 작가가 놀라며 물었다.

한동안 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갑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러네.》

그러자 겨자를 처음 보는 다른 젊은 작가도 한숟가락 먹었는데 역시 눈물이 나왔다.

《아니, 자넨 왜 그러나?》

《이보게, 돌아가신 자네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그러네.》

## 항일혁명투사들을 형상한 강경애의 창작활동

장편소설 《인간문제》와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널리 알려진 작가 강경애는 해방전 우리나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소설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의 한 사람이었으며 뚜렷한 개성을 가진 재능있는 녀류소설가이다.

1906년 4월 황해도 송화군의 농민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시절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겨운 생활과 비극적운명을 직접 체험하고 수없이 목격하면서 자랐고 이들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설정하였다.

강경애는 장편소설 《어머니와 딸》〔주체21(1932)년〕, 《인간문제》〔주체23(1934)년〕, 단편소설 《채전》〔주체22(1933)년〕, 《해고》〔주체24(1935)년〕, 《지하촌》〔주체25(1936)년〕 등에서 자기의 이러한 창작적특징을 잘 보여 주었다.

그러나 강경애의 창작에서 가장 이채를 띠는 것은 항일혁명투사들을 자기 소설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들을 민족의 총아로 높이 그린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누구를 위하여 어떤 작품을 창작하는가 하는데 대한 관점과 입장을 바로 가지는것이다.》

그는 작품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을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는 가장 훌륭한 열혈투사로 그리었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전개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일제에게는 죽음과 공포를 주었고 착취와 억압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인민에게는 조선독립에 대한 무한대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희세의 영웅으로 높이 떠받들게 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환경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을 악랄하게 비방증상하고 갖은 험담을 다하여 인민들속에서 그들의 영상을 흐리게 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들을 지지하는 사소한 현상도 허용하지 않고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공개출판물에 항일혁명가들로, 애국투사로, 민족의 총아로 찬양하며 소설에서 그 인물들을 그린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중편소설 《소금》〔주체23(1934)년〕과 단편소설 《모자》〔주체24(1935)년〕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을 참다운 애국자, 깃뚫혀 신음하는 조선인민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해 싸우는 투사들로 형상하려는 자기의 지향을 실현시켰다.

그는 창작에서 우선 항일혁명투사들을 착취받고 억압받는 근로인민대중, 수난당하는 우리 인민을 위하여 싸우는 혁명가, 애국자로 형상하였다.

중편소설 《소금》에서 두만강가의 가까운 곳에서 만난 총을 멘 《공산당》들이 소금짐을 지고 밤중에 강을 건느는 사람들, 생활의 막바지에서 소금밀수에 운명을 건 봉염이 어머니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왜 이 밤중에 단잠을 못 자고 소금짐을 지게 되였는지 아십니까.》라고 그들을 깨우쳐주는것은 무엇을 위해 싸우는 어떤 정신세계를 지닌 사람들인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또한 단편소설 《모자》에서 《우리는 아무리 잘살자고 하나 잘살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세상과 싸우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는 승호 어머니의 형상을 놓고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중편소설 《소금》에서 경찰놈들에게 목숨같은 소금을 빼앗기고 붙잡혀가게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단도와 칼을 찬 저들을 누가 감히 물리치고 자기들을 구원할가?》하고 구원자를 찾는 봉염이 어머니의 뇌리에 어제 밤 산마루에서 자기들을 만났던 《총을 멘 공산당》들의 모습과 그들의 참다운 목소리가 떠오르는 장면묘사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수난에 우는 조선민족,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의 구원자로서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적풍모에 대한 간접적인 형상적확인으로 된다. 그는 작품에서 칼을 찬 경찰의 악랄행위와 총을 멘 항일유격대와의 대비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줄 사람, 다시말하여 수난당하는 조선민족을 구원할 사람들은 항일혁명투사들이라는 사상을 제기하였다.

그는 또한 작품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을 만난을 극복하며 싸우는 불굴의 혁명가로, 죽음앞에서도 오히려 살인자들을 위압하는 강의한 혁명정신의 소유자로 형상하였다.

중편소설 《소금》에서는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하여 싸우다가 체포되어 희생되는 봉식이의 모습을 지주의 시점에서 이렇게 그리고있다.



《봉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도 기운있게 버티고있었다. 그리고 입모습에는 비웃음을 가득히 띠고있다. 묶이운 몸으로 눈도 가리지 않은 채 목을 베려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 형리들을 마주한 사형수, 일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나 봉식은 그 어떤 본능적인 공감도 없이 조금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기운있게 버티고 서있었다. 오히려 그의 입모습에는 사형을 집행하려는자들을 비웃는 여유있는 웃음이 가득히 떠오른다.》고 묘사하였다.

비록 간결한 묘사이지만 투사의 당당하고 도고한 모습을 인상깊게 그려내고있다. 이것은 자기위업의 정당성에서 확고부동한 신념과 긍지를 찾는 항일혁명투사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는 형상으로 된다.

작가는 또한 소설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을 레절박고 인민적인 품성을 지닌 참인간들로 형상하였다.

중편소설 《소금》에서는 주인공 봉염이 어머니가 조선에 건너가서 소금을 사서 이고 두만강을 건너와서 산마루에서 《총을 멘 공산당》을 만나는 장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여러분, 당신들이 왜 이 밤중에 단잠을 못하고 소금집을 지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쇠소리같은 웅장한 음성이 바람결을 타고 높았다가 떨어진다. 그들은 〈웁다! 공산당이구나! 소금집은 빼앗기지 않겠구나.〉 하고 두루 생각하였다.

봉염 어머니는 저편의 연설을 듣는 사이에 찰뎌 거꾸에 있을 때 봉염이를 따라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연설을 듣던것이 얼핏 생각키우며 흡사히도 그 선생의 음성 같았다. ...

어둠속에서 연설이 끝난 후 그들은 먼길에 잘다녀가라는 인사까지 받았다.》

여기에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인민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쳐 싸우는 우리 항일유격대, 항일혁명투사들의 인민적품모가 형상적으로 뚜렷이 밝혀지고있다.

또한 이 장면에서는 자기들의 운명을 걱정해주고 위해주는 친근한 목소리를 듣고 봉염 어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소금밀수자들이 곧 대상이 《공산당》이라고 확신하고 소금을 빼앗기지 않게 되었다고 안심하는 심리묘사에서도 온갖 험담을 꾸며대며 항일유격대의 품모를 손상시키려는 일제의 모략책동을 단마디로 부정하고 항일혁명투사들의 인민적품모를 뚜렷이 부각시킨것으로 된다.

작가 강경애는 또한 소설에서 민족해방, 계급해

방을 위한 의로운 투쟁에 목숨걸고 나선 혁명가들뿐아니라 그 가족의 형상도 훌륭히 창조하였다.

그는 단편소설 《모자》에서 투사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생활고충과 그들의 정신적지향을 그리는 데 힘을 넣었다.

1930년대 우리 인민은 일제에 의하여 누구나 다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겪고있었지만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에 나선 투사가족들이 당하는 고충은 참으로 더 비참하였다.

강경애는 단편소설 《모자》에서 항일혁명투사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주인공의 시형의 형상을 통하여서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승호네 모자가 자기 집에 찾아오는것을 꺼리고 찾아오지 못하도록 랭대하면서 의리도 인정도 버리고 박대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는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승호 어머니는 기둥처럼 밍고 살던 시형네 집에서 쫓겨나 남편을 잠시 원망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잘살자고 하나 잘살수가 없다.》고 한 남편의 말이 옳으며 《잠 한잠 드뜻이 자지 못하고 밥 한끼 달게 먹어보지 못하고 산으로 돌아다니다가 적들에게 붙들리어 죽은 남편》의 삶이 참다운 삶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결코 자신과 같은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리라》, 《아버지가 못 다한 사업을 이 아들로 완성하게 하리라.》고 굳게 다짐하며 살길이 막혀버린 마지막순간에 희생된 남편을 그리면서 《오직 자기네 모자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게 하는 산》을 바라보면서 눈속을 헤치며 산을 찾아가는것으로 형상하고있다.

이 형상에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산》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산에서 왜놈들과 싸우는 길만이 모자의 살길, 민족재생의 길이라는 확고한 사상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크나큰 기대와 념원이 담겨져있다.

작가 강경애의 창작에서 가지는 특별한 의의는 무산대중의 운명개척의 방도를 투쟁의 견지에서 모색하도록 한것보다 작품에서 제기하는 주제해명의 기본고리로 무장한 우리 항일혁명투사들을 직접 등장시킨데 의의가 있다.

참으로 강경애는 작품창작에서 우리 항일혁명투사들을 《항일에국투사—민족의 총아》로 형상함으로써 조국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항일혁명투사들과 조국해방을 념원하는 우리 인민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허 왕 진

## 현명한 판결

김 주 현

리조 말엽 충청도 보은고을에 김광년과 리해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있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한고장에서 자란 친구였으며 부모들사이의 관계도 매우 두터웠다.

이들이 중년나이에 이르렀을 때 김광년의 가문은 점점 번창하여 유족한 생활을 하였으나 리해익이네 가문은 몰락하여 죽물도 변변히 먹지 못하는 형편에 처했다.

김광년이 친우의 어려운 살림을 도와 매달 식량과 돈을 보내주었으나 생활형편은 점점 조들리기만 하였다.

해익은 늙은 부모의 공대를 변변히 못하고 자식의 주린 배도 채워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스러웠다.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을 굴리던 끝에 김광년을 찾아가 돈 백냥을 꾸기로 결심했다. 그 돈으로 밀을 많이 사서 타겐 다음 가루로 때식을 끓이고 나머지로는 누룩을 만들어 팔면 주림을 면할뿐 아니라 얼마간의 여유도 생길것 같아서였다.

광년에게서 번번이 신세를 지는 처지에 많은 돈을 꾸어달라고 하기가 좀 렴치없는 행동같았지만 자체로 살림을 꾸려나가자니 별수없어 무거운 걸음을 내디디었다.

해익이 찾아가서 이야기하는것을 들은 광년은 친구의 부탁이라 그 자리에서 선뜻 백냥을 내주었다.

《자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만한 일이야 뭘 그리 어렵겠나. 임자와 나사이에 그 무슨 증서 같은 것은 없어도 되네. 그저 그 돈으로 리자가 생기면 갚아주고 실패하면 그만두도록 하세.》

그리하여 해익은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계획대로 밀을 사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타개여 가루는 가족의 주림을 면하는데 쓰고 밀기울로는 누룩을 만들어 팔아 차츰 돈을 저축하기에 힘썼다.

때마침 일이 될세라 그해에 누룩값이 굉장히 비싸져 예상외의 리익을 보았으며 몇년후에는 수천냥의 저축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반대로 김광년의 집안형편은 날로 기울어져갔다.

빈민구제와 자선사업에 힘써왔으나 하늘이 무심함인지 얼마후에는 가산이 모두 날아나고말았다. 광년은 여러해동안 집안을 추켜세우려고 모지름을 쓰다가 일이 잘되지 않자 할수없이 해익을 찾아가서 전날 꾸어준 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

고 다만 얼마간의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나 해익은 돈을 주지 않고 땀땀한 눈길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 처지가 그렇게 궁하면 우리 집에 와서 일이나 봐주게.》

대하는 품이 자기 집에서 머슴을 살라는 눈치였다. 광년은 의리없는 친구의 행동에 아연했으나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해익의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를 지어주었다.

군말없이 수직수직 일을 해주는 광년에게는 그래도 친구에 대한 한가닥의 희망이 있었다.

(아무리 그와 나사이에 빈부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지난날의 우정이야 잊어버리지 않았겠지. 이제 좀 있으면 나에게도 한말천 잡아주겠지. ...)

그러나 몇해가 지나도록 광년에게 살림살이할 밀천을 주지 않았다. 광년을 대하는 품은 역시 보통 소작인이나 머슴으로 볼뿐이었다.

광년은 참다못해 하루는 조용한 틈을 타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네만 생각다못해 오늘은 자네에게 간청하네.

언제인가 자네가 나한테서 가져간 돈 백냥을 지금까지 신세를 입은 몸으로 리자야 받겠나. 본전만 돌려주면 우리 식구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 나갈수 있겠네.》

해익은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꾸했다.

《아니, 여러해동안 호구시킨 은공도 생각지 않고 그제 무슨 당치 않은 소리인가? 꾸어준 돈이라니? 언제 내가 그대에게서 돈 꾸어쓴 일이 있단 말인가? 그런 사실없는 말을 해서 돈을 빼앗으려는 건가?》

광년은 너무도 어이없는 친구의 녀두리에 억이 막혔다.

분이 치밀어오른 그는 며칠을 두고 생각한 끝에 마침내 보은군수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증서도 없고 해익은 꺾은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니 근거부족으로 기각되고말았다.

다시 이웃고을 군수에게 제기하여보았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광년이 끝으로 충청감사에게 호소하였으나 근거도 없는데다가 꺾주었다는 사람은 가난뱅이요 꺾쓰지 않았다는 사람은 부자인지라 부결되고말았다. 광년은 원통하고 억울하여 돌아오던 도중 길가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였다.

그때 충주목사가 감영에 갔다오는 길에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

광년에게로 다가간 목사가 통분해하는 이유를 물었다. 광년에게서 사연을 들어보니 과연 그의 처지가 가궁하였다.

《사실이 정말 그렇다면 혹 해결할 방도가 있을지도 모르니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광년은 목사를 따라 충주로 갔다.

관청에 도착한 목사는 광년에게 물었다.

《그대가 다년간 리해익의 집안일을 봐주었다니 그 집의 전답결수(밭과 논이 치수)를 잘 알겠지?》

《예, 손금보듯 알고있소이다.》

광년이 자기가 알고있는대로 다 아뢰니 목사는 일일이 그것을 적어 원본을 만들고 다시 그것을 십여권 베끼게 하였다. 그다음 그것을 도적질로 붙들려온 십여명의 무리들에게 한권씩 나누어 주었다.

《이 책의 내용을 다 기억하면 감형을 시킬터이니 너희들은 일심으로 이것을 읽어외워라.》

그리고는 다시 죄수들에게 무엇인가 비밀히 말하였다.

죄수들이 한달도 못되어 다 기억했다고 하자 목사는 곧 사령을 보내어 리해익을 잡아오게 하였다. 목사는 리해익을 문초하기에 앞서 옥안에 갇혀있던 죄수들을 한자리에 불러내었다. 죄수들은 리해익을 보자 반갑고도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목사와 관속의 앞인것도 잊은듯이 떠들어댔다.

《아이구, 형님! 이게 웬일이시오. 형님은 무사할줄 알았더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리해익은 깜짝 놀랐다. 영문도 모르고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이 또 무슨 놈의 도깨비판이냐!

생전 처음 보는 놈들이 자기를 형님이라 부르니 하도 어이가 없어 노발대발했다.

《너희들은 웬놈들이기에 나더러 형님이라고 하느냐? 이런 무례한 놈들 같으니라구.》

그러자 죄수들은 울분에 찬 낮으로 말했다.

《아니, 세상인심이 어찌 그럴단 말이요? 형님이 우리들과 도적질할적에는 친형제같이 지내었고 도적질한 물건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먹지 않았소. 우리는 실속을 차리지 못하고 함부로 그 물건들을 써버려서 한푼도 남은게 없이 되고 또 불행히 판가에 잡히어 이 지경이 되었는데 형님은 그때 그 돈으로 여러가지 장사를 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고 우리들을 구해줄 생각은 아니하고 도리어 전혀 모르쇠를 하니 그런 심사가 어데 있소?》

리해익과 도적들사이에는 말싸움이 벌어졌다.

목사가 그들이 말하는것을 듣다가 호령했다.

《리해익 이놈, 네놈은 어찌하여 너의 동료들을 모른다고 하느냐?》

해익은 자기가 도적무리와 결탁한적이 전혀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자 목사가 죄수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너희들은 리해익이 도적질한 물건을 받은 날자와 금액이며 그 돈의 출처를 다 기억하느냐?》

죄수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억하다뿐이겠습니까. 어느해, 어느달, 어느날에 돈 백냥을 받아서 동네 앞의 천자답 열마지기를 사고 또 어느때 어느곳에 옥답 닷마지기를 사고 또 어느때 돈 얼마를 가지고 장사하여 얼마를 남기고 또 여차여차하다고 한 달동안 암송한대로 전부 다 일러바쳤다.

그러자 목사가 큰소리로 리해익을 꾸짖었다.

《이래도 자백 안할테냐?》

리해익은 어쩔바를 몰라하며 떠듬떠듬 말했다.

《저— 전답의 이름과 결수는 틀림이 없으나 도적질한 물건으로 샀다함은 전혀 근거가 없는것이옵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그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

《그것은 친구에게서 돈 백냥을 꾸어가지고 모은것이옵니다. 그 백냥으로 밭을 사서 누룩을 만들어 팔아 땅을 사고 또 장사를 하여 차차 지금의 재산을 모은것이옵니다.》

목사는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말했다.

《그러면 그 돈 꺾은 날자와 친구의 이름을 밝혀라!》

《예! ××년 ××월 ××일이옵고 친구의 이름은 김광년입니다.》

《사실이 틀림없으렸다. 거짓말하면 죄가 중한줄 알아라.》

《털끝만치도 거짓이 있다면 천벌을 받아 마땅하오리다.》

리해익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쉬었다.

이때 목사가 그에게 말했다.

《그러면 그 사실여부를 여기에 밝히고 네 이름을 써라.》

그리하여 리해익은 김광년에게서 돈 백냥을 꾸어쓴 내용을 일일이 쓰고 수표를 했다.

목사는 곧 김광년을 부르게 하였다. 이리하여 두사람은 서로 대면하게 되었다.

목사는 수판을 잘 놓는 아전을 불러서 돈 백냥을 오피변으로 십여년간의 리자를 계산하도록 했다. 얼마동안 계산하니 엄청난 금액이 되어 해익의 재산전부를 바쳐도 오히려 모자랄 지경이었다.

목사는 의리없는 리해익의 행동을 책망하고 이렇게 판결했다.

《너의 재산은 김광년의 재산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니 값은 당연한 일이며 전날의 은혜를 저버림은 망하게 된 근본이노라.》

# 고려시기 농민생활을 반영한 시문학의 사상정서적 특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고전문학작품은 일찍부터 가난하고 천대받는 근로인민을 등장시키고 그들에 대한 뜨거운 동정과 사랑을 표시하였으며 반침략애국주의 정신을 강하게 반영하였다.》

문학작품의 가치와 사회적기능은 그것이 사회의 어떤 계급과 계층의 생활을 어떻게 그리는가에 따라 중요하게 좌우된다.

고려시기 우리 시문학에서는 봉건사회의 기본 수탈대상으로 신음하는 농민의 형상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들의 비참한 운명에 뜨거운 동정을 표시한 작품들이 뚜렷한 주제분야를 이루고 창작되였다.

이러한 경향은 고려 전반기에 활동한 허충재, 김돈중, 김돈시 등의 창작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고려 중엽 진화, 김극기, 리규보 등의 시들에서 더욱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특히 고려 말기에 들어와 농민생활주제 시들에서는 농민들의 운명문제와 결부하여 사회적불합리를 예리하게 폭로함으로써 그 사실주의적성격이 훨씬 강화되였다.

고려시기 농민생활을 반영한 시문학에서 두드러지는 사상정서적특성은 무엇보다 성실한 로동에도 불구하고 혹심한 기아와 가난속에서 시달리는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에 대한 뜨거운 동정이다.

널리 알려진 김극기의 시 《농사집의 네절기》가 그러한 대표적실례로 된다. 시에서는 이른봄 밭갈이로부터 무더운 여름날의 김매기, 가을수확과 겨울농준비 등 레사로운 농촌생활을 노래하면서도 봉건적수탈로 만성적인 생활고에 허덕이는 농민들의 가궁한 처지에 초점을 집중함으로써 당대 사회의 본질적모순을 밝혀내고있다.

아무리 뼈빠지게 일해도 불행만 겪어야 하는 농민들의 억울한 처지에 대한 동정은 평연의 시 《방아노래》에서도 잘 엿볼수 있다.

시인은 누런 이삭 패여난 풍요한 가을날 어른들은 방아찰기에 여념없고 아이들도 장난삼아 키질하느라 흥성대는 농가의 광경을 풍속도마냥 담담하게 그려보이면서 농민들의 수고와 순박함에 공감을 표시하고 또다시 가난에 시달려야 할 그들의 처지에 대한 련민의 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하늘이 사람 낼 땐 너나없이 갈았건만  
어이하여 부귀와 가난이 이다지도 다름가

놀고먹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차이 생겨  
하나는 호령하고 하나는 섬겨야 하누나

땀흘린 보람을 느끼면서도 농민들의 가슴깊이 갈마드는 불안, 그것은 닥쳐올 조세부담에 대한 근심이였으니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것은 《쌀한말에 서돈씩 더 내려진 마읍기를》바라는 소박한 기대이다. 서정적주인공— 농민의 이 내면심리를 통하여 시는 봉건적수탈로 하여 언제 한번 기를 펴지 못하는 농민들의 불행한 처지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이밖에 산나물도 배불리 못 먹으며 돌밭을 뛰지고 곡식을 가꾸건만 《조세를 물고나면 가슴찢어지는》 산골농민들의 울분을 노래한 김약수의 시 《임실공판에서》 조운홀의 시 《회인》 등에서도 농민들의 비참한 모습에 대한 동정이 기본정서를 이루고있다.

그런가하면 김돈시의 시 《피로운 장마비》, 김돈중의 시 《동생의 시 〈피로운 장마비〉에 화답하여》, 최해의 시 《삼월 스무사흘날 비가 내린다》, 리연종의 시 《모진 추위》, 정흥의 시 《영일현에서》, 안축의 시 《고성으로 가는 길에 잠깐 쉬면서》, 리달충의 시 《농가집녀인의 탄식》, 허금의 시 《기미년 겨울의 피로운 비》 등에서는 자연재해와 전란으로 당하는 농민들의 고통을 가셔줄것을 애타게 호소하였다.

고려시기 농민생활을 반영한 시문학에서 주되는 사상정서적특성의 다른 하나는 농민들이 겪는 불행의 원인을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수탈과 직접 결부시켜 사회적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한것이다.

대표적으로 진화의 시 《도원의 노래》, 리첨의 시 《태평춘》, 안축의 시 《도원역을 지나며》, 허소유의 시 《정선 봉서루》, 최해의 시 《3월 고만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장원을 지나며》 등을 들수 있다.

이가운데서 진화의 시 《도원의 노래》는 전설로 전해지는 무릉도원에 의탁하여 눈물없이 편히 살려는 당대 사람들의 념원과 야속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형상적으로 색갈있게 표현하였다.

시인은 무릉도원을 인간생활과 동떨어진 신비하고 몽롱한 꿈세계가 아니라 현실적인 인간세계, 조국산천에서 찾고있으며 관료들이 백성들을 못살게만 굴지 않는다면 우리 고장은 진

실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될것이라는 자기의 미학적리상을 제시하고있다. 그리하여 농민들의 불행이 다름아닌 가혹한 봉건적수탈과 결부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파렴치한 착취자들에 대한 증오를 질제 표현하였다.

고려시기 근로인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봉건통치배들의 악착한 착취와 결부시켜 진실하게 묘사하면서 심각한 사회적모순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한 성과작은 윤여형의 시 《도톨밤의 노래》이다.

밤아닌 도톨밤을 찾아 맹수들이 무시로 싸다니는 수림속에 들어가 천신만고 벼랑을 뚫아오르는 사람들, 양식을 짊어지고 새벽닭 울 때부터 떠나는 젊은이들의 행렬, 술가지와 나뭇을 굽어다 간신히 끼니를 에우고 차거운 밤 뚝에 입은 상처로 신음하는 부부 등 시에 그려진 형상은 도탄속에 헤매이는 당대 농민들의 참혹한 모습을 현실 그대로 재현하고있다. 반면에 시인은 그들의 피땀 어린 창조물을 탕진하며 거들거리는 량반귀족들, 각종 명목의 세금을 들쭉우며 흡혈귀처럼 농민들의 땀을 값아먹는 탐관오리 등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봉건통치배들의 죄악상을 날날이 고발하였다.

그대는 못 보는가  
하루에도 만냥어치  
먹어치우는 부자놈들을...  
상우에 차린 진수성찬은

다섯술에 차고넘친다네  
말 부리는 하인까지 술에 취하여  
비단자리우에 먹은걸 토해놓고  
살찐 말들은 곡식이 싫어  
금우리안에서 투레질하누나  
그 누가 알랴 잘사는 부자놈들이  
상우에 벌려놓은 진귀한 저 음식  
죄다 마을늙은이들의  
피눈물로 이루어진것임을...

선량하고 소박한 농민들을 무제한하게 착취하는 봉건관료들의 탐욕과 부화방탕에 대한 비판을 통해 당대 사회의 근본적모순을 밝힌 이러한 특성은 리규보의 시 《나라에서 농사꾼이 흰쌀밥과 맑은 술을 먹는것을 금지하는 령을 내렸다는 말을 듣고》, 《며칠후에 다시 쓰노라》, 리곡의 시 《길을 가다가 청주 참군에게 시 한수를 지어주노라》, 《흡곡현 객사에서》, 《흥해현 객사에서》 등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찾아볼수 있다.

고려시기 농민생활을 반영한 시문학은 이처럼 봉건사회에서 농민들의 참혹한 처지와 운명을 생활적화폭으로 진실하게 반영하고 반동적통치배들에 대한 저주와 분노를 뚜렷이 구현함으로써 당시 우리 시문학의 사회적성격과 현실비판적기백을 한층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김 명 철